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01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은 2003년 북한에서 있었던 ‘동명왕 출생 2300돐 기념 고구려사 전국학술토론회’에 제출되었던 논문들과 새로 연구집필된 논문들을 편선한 것이다.

제1편에서는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논문 9편, 제2편에서는 문화적 계승성에 대한 논문 11편을 선정하여 실었다. 제1편의 논문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고구려사의 왜곡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가한 논문들로서 주민구성, 조공과 책봉, 수당과의 전쟁, 혈연적 계승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제2편의 논문들은 고고학과 미술사 등 문화적 계승성에 대한 논문들로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에 대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특히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논문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선력사학회 허종호 위원장과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희승 고구려연구실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1월

고구려연구재단 대외협력실

책 머리에 ● 006

제1편 우리의 고구려사 고수를 위하여

1. 고구려력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희승) ● 009
2. 고구려는 고대조선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리영식) ● 070
3.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강세권) ● 080
4. 기외를 통하여 본 삼국문화의 공통성(윤광수) ● 094
5.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 조국방위항전(전동철) ● 113
6.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림호성) ● 121
7. 《책봉》과 《조공》에 대하여(김혁철) ● 131
8.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박영해) ● 141
9. 성씨를 통해 본 우리 민족국가들의 혈연적 계승성(공명성) ● 149

제2편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

1.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과 그 의의(남일룡) ○ 175
2.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력사적 의의(김덕성) ○ 182
3. 고구려가 근사강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손영종) ○ 191
4.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기풍(김은택) ○ 198
5. 고구려가 동아시아문화 발전에 눈 역할(송순탁) ○ 207
6.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손수호) ○ 215
7. 고구려산성의 특징(지승철) ○ 224
8.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리승혁) ○ 232
9.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력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조희승) ○ 245
10. 국내성 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에 대하여(최승택) ○ 264
11.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 대하여(김경삼) ○ 277

제1편 우리의 고구려사 고수를 위하여

1. 고구려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희승)
2. 고구려는 고대조선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리영식)
3.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강세권)
4. 기와를 통하여 본 삼국문화의 공통성(윤광수)
5.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 조국방위항전(전동철)
6.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림호성)
7. 《책봉》과 《조공》에 대하여(김혁철)
8.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박영해)
9. 성씨를 통해 본 우리 민족국기들의 혈연적 계승성(공명성)

고구려력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희승(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고구려사실실장 교수 박사)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고구려력사에 대하여 이례저리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견해 가운데는 조선력사 특히 고구려력사에 대한 리해가 부족한 데로부터 잘못 내린 결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문제별로 론하하려고 한다.

1. 국호 조선은 단군조선에서 시작

일부 론자들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와 《고려(고구려)》라는 국호를 《도용》(훑쳐쓰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국호가 《기자조선》에서 나왔으며 고려(고구려)의 력사도 본래 다른 나라의 력사였기 때문에 왕씨고려가 고려라는 국호를 쓴 것은 다른 나라에서 《도용》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리씨조선의 조선국호도 다른 나라에서 《하사》하였다고 말하였다.

《기자조선》이란 이른바 중국의 은나라말기에 무왕이 기지를 조선에 봉하였다는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이야기이다.

《상서대전》, 《사기》, 《한서》(지리지) 등에 몇가지 단편적기사로 전해오는 《기자조선》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것으로서 거기에는 조선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기자가 조선에 달아났다가거나 《무왕이 기지를 조선에 봉하였

다.》(《사기》 송미자세가)고 하였을 뿐 기자가 조선에서 왕노릇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다. 더더구나 기자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은 그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기자에 대한 기록은 《상서대전》(尙書大傳)과 《론어》 지어는 《사기》의 《주본기》(周本記)와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갑골문자도 나온다. 즉 기자는 은나라 말기에 주왕의 폭정을 피하기 위해 거점으로 미친척 하다가 갑육에 갇혔는데 주나라가 은왕실을 멸망시킨 다음 갑육에서 풀어 주었더니 자기 조국이 망한 수치로해서 조선으로 도주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서주의 무왕이 기자를 그곳(조선에) 봉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송미자세가)에는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나 신하는 아니었다.》(武王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는 기록이 나온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치고 《책봉》받았다는 것은 기자가 도망치기 전에도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기자가 조선에 《책봉》되었다고 하는데 기자는 조선의 신하이지 왕이 아니며 무왕(서주)의 신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자가 조선을 만들었다거나 왕노릇을 하였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다른 나라의것을 우리가 《도용》한것이라는 말이 나온것 자체가 언어도탄이다. 기자가 조선에 오지도 않았고 중원지방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따라서 《기자조선》을 기정 사실화하여 고구려가 《한4군》이나 《기자조선》에서 나온 뜻이 꾸며내는 것은 상식밖의 일인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조선이라는 국호를 적은 가장 오랜 기록은 일연의 《삼국유사》(권1 기이 고조선-왕검조선)이다. 《삼국유사》에는 《위서》

와 《고기》(古記)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기록을 전하고 있다. 거기에는 명문으로 《조선》(朝鮮)이라고 밝히고있으며 시기는 중국 요임금때와 같은시기라고 써여있다. 이것이 바로 단군조선 즉 전조선이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고조선의 아사달, 평양이라는 말과 같은것으로서 건국시조왕인 단군과의 련관속에서 발생한 역사적술어이다.

그 뜻은 태양이 쬐는 동방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토론회집》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5(1996)년, 240~247페이지, 《조선력대국호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0(2001)년]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비단 일연의 《삼국유사》에만 한하지 않는다. 고려때의 판료이며 무인인 리승휴(1224년-1300년)도 《제왕운기》(1287년 편찬)에서 단군조선에 대하여 밝혔다.

리승휴는 료동에는 중국과 별도로 하나의 천하가 있었다고 하면서 뱀뱀 저 단군조선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단군본기》에 의하면 석제(천왕)의 자손으로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태백산 신단수아래서 단수신(박달나무신)과 혼인하여 이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단군이라고 하였다. 그가 조선땅에 할거하여 임금노릇을 하였다. 시라, 고례, 남북옥저와 동북부여 그리고 예와 백들이 모두 단군의 거례라고 한 다음 후조선과 만위만조선에 대하여 밝혔다. 또한 그는 부여와 고구려, 백제가 혈연적으로 련결된것임을 이야기한 다음 이들이 다같이 단군의 후손임을 강조하였다. 리승휴는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단군본기》, 《동명본기》 등의 고서적내용을 인용하면서 궁예의 후고구려와 고구려의 옛 장수대조영이 세운 발해에 대하여 언급하고 발해가 망하면서 온 나라가 고려에 넘어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시말하여 리승휴는 당시 13세기까지 전해오던 고문헌에 근거하여 단군조선(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의 세 조선과 고구려, 발해, 후고구려에 이어진 우리 나라의 역사적흐름을 밝힌것이다.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의 세조선이 있었다는것은 《고구려》(권

58 지리지 서장의 기록을 보아 명명백백하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전한것으로서 가장 오랜것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인용의 《단군본기》이고 다음으로 오랜것은 B.C. 7세기의 사실을 전한 중국책 《관자》(규도편)이다. 여기에는 당시 중국과 교역하였던 우리 나라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기자조선》이라는 말은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일정한 침략적구실을 만들기 위해 꾸민것이다. 기자란 앞에서 본것처럼 《상서대전》과 《사기》등에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기지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한마디 써놓은것이 있을뿐 그것이 그 어떤 역사적사실을 반영한것은 아니다. 기자가 은나라 국왕의 친척이요 뉘요 하는것도 다 거짓이다.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침략할 그 어떤 적당한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고조선은 중국의 봉국이 없기때문에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그럴듯 한 거짓명분을 세운것이였다. 하지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백보 양보해서 《기자조선》이라는것이 있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룡동평에는 이마 전 조선인 단군조선이 있었기때문에 조선이라는 국호가 《기자조선》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료녕문물》(1984년 6기, 926~930페이지)을 비롯해서 국호 조선을 《기자》와 관련시켜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거기에는 조선에 대한 사소한 그루터기나 흔적도 찾아볼배야 찾아볼수 없다. 사실 무근거한 허위만이 거기에 남아있다. 구태여 더 말하면 평양의 기자묘를 광복후 발굴해보니 벽돌조각과 사기조각 몇개가 나왔을뿐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론자들은 리조건국초기의 국호 조선(리씨조선)역시 명나라가 《하사》한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리성계는 정치적야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명나라에 대한 대의명분론인 《이소사대》를 표방하며 왕씨로부터 권력을 가로챘다. 이로부터 명나라의 정치외교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면서 사대주의자인 리성계는 그

때 예로부터 쓰던 조선이라는 국호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화녕(화주)이라는 두 국호를 제기하였다. 명나라는 화녕이라는 귀에 선 지명보다 지주 들면 조선이라는 국호가 더 마음에 들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처럼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파견해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하였다거나 혹은 조선사신이 명나라에 가서 국호를 청하였다면 몰라도 사대주의자 리정계의 사신이 대외적지지를 얻기 위해 량사백일의 국호를 입에 올린 것을 《하사》라고 하는것은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은 견해이다.

2.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계승국

일부 론자들은 고구려족이 주나라와 진나라때에 활동한 집단이라고 하거나 혹은 중국고대전설의 염제나 고양씨의 후예로 보는 등 허황하기 그지없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들은 고양씨가 B.C. 10세기경에 존재한 고이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런 억지주장을 전개하였다. 혹은 상나라가 주나라에 패하여 동쪽으로 간것이 고구려의 선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부 론자들은 중국학계의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퍼들어낸 《견해》를 공정한면서 고구려가 마치도 중국한족의 한갈배인것처럼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고대조선주민집단의 하나인 예족과 백족에서 나온 독자적인 주민집단이다. 예족과 백족을 따로따로 쓴 기록도 있으나 예백이라고 함께 쓴 기록도 있다. 이것은 예와 백이 원래 같은 선조의 두갈배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예족과 백족은 하나의 문화적공통성을 가지고 조선반도 중부이북으로부터 료동반도일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고조선의 주민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예백족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고조선의 직접적계승국

으로 발생발전하였다.

고구려가 구려국에서 나온것은 사실이지만 구려국은 또한 고조선 태내에서 발전한 나라이다.

고려시대의 귀중한 역사책인 《삼국유사》는 왕력편에서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써놓았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조선에 대하여 기록한 일연은 고조선의 시조왕 단군과 고구려의 시조왕 고주몽이 시공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써놓았다. 그것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처사였다고 보아진다. 《삼국유사》에는 이 밖에도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 백제, 진한, 만조선, 낙랑국, 고조선 등을 조선의 역사속에 체계화해놓았다. 말하자면 이들이 조선 역사에 속한다고 옹기 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편은 리승휴의 《제왕운기》에도 명확히 반영되어있었다.

리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단군본기》와 《동명본기》를 인용하면서 부여와 고구려와의 관계 그리고 고구려에 흡수통합된 송양국과 시락, 고례, 남북옥저와 예맥 등이 단군을 계승하였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고구려는 물론 남북옥저와 북부여, 동부여등이 단군을 계승하였으며 모두가 단군의 후예였음을 긍지높이 자랑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자들은 마치도 고주몽이 《서한 현도군 고구려현에 국기를 수립》한 것처럼 사실을 외곡오도하고있다. 고구려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조선의 태내에서 발생발전한 구려국을 계승하여 B.C. 277년에 건 나라이다. 한 무제의 고조선 침략이 있는 다음 고조선은 내부의 변절자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한4군》의 하나인 현도군이 오늘의 강도일대를 비롯한 압록강중하류일대에까지 들어온적이 없다. 하물며 한(서한)의 현도군에 있던 고구려현에 와서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는것은 어불성

설이다. 고구려현이란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기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고을(현)이름이지 없던 이름을 지어서 만든것은 아니다. 중국력사책 《북사》(당나라 리연수 편찬) 고구려전에도 《한나라 무제 원봉4년(B.C. 108년) 조선을 멸망시켜 현도군을 두었는데 고구려로써 현을 삼아(군에) 속하게 하였다.》고 명문으로 밝히었다. 같은 중국사람이 지은 《헌소》(지리지)에서조차도 《현도, 락랑군은 무제때 두었는데 모두 조선, 예맥, 구려땅이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이미 조선과 예맥, 고구려가 존재한 후에 현도, 락랑의 두개 군을 료동지역에 둔것이다. 이렇게 《북사》나 《한서》와 같은 중국의 《정사》기록에도 고구려가 B.C. 108년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는것이 명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에 밝혀진 고구려건국 B.C. 37년보다 현저히 앞선다.

이것을 무시하고 고구려가 마치도 《한4군》설치이후 비로소 그 태내에서 발생한듯이 말하는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3. 조선의 민족고전을 통해 전해져온 고구려력사

고구려가 조선력사에 속한다는것은 의미할바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있는 민족고전유산을 통해 고구려가 조선력사에 속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고구려력사의 구체적내용은 주로 조선의 민족고전인 《삼국사기》를 통하여 력대로 전해져왔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도 고구려의 기원과 년대를 《삼국사기》에 전적으로 의거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1075년-1151년)도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구삼국사》도 고구려의 력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삼국사기》는 조선의 민족고전으로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삼국사기》를 다른 나라의 민족고전이라고 해본적이 없

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서 본기에 필적으로 이루어진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인연이 없는 독자적인 국가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고려때 사람들은 모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국사》(國史)라고 부르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본하였다. 일연(1206년-1289년)은 《삼국사기》를 《국사》라고 하면서 이 《국사》에서 김부식이 흘린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의 사료들을 모아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이밖에도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과 만조선, 마한, 락랑국, 북대방, 남대방, 다섯가야, 말갈,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 진한, 발해 등을 서술함으로써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 역사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놓았다. 이후 고구려의 역사는 고려때 사람인 리승휴의 《제화운기》, 리규보의 《동국리상국집》 동명왕편, 15세기 로사신의 《삼국사절요》 등에 의해 전승되었고 《고려사》와 리조의 역대 《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지리서를 통해서도 면면히 전해내려왔다.

이와 반면에 24사를 비롯한 중국의 역대 어느 저작에도 고구려가 다른 나라 역사에 속한다고 한 글줄이 없다. 있다면 《동쪽오랑개》(동이)라고 필사에 찬 글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중국역사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민족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다.

4. 외국사료들에 밝혀진 조선의 고구려

고구려가 다른 나라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나라 고전사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료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외국사료로서 고구려가 조선역사에 속하는 것으로 밝힌 자료는 많다. 《고구려는 곧 조선》이라고 한 자료는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712년에 일본에서 완성된 《고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

에는 명백히 고구려가 조선역사에 속한다고 밝혀져있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일본서기》는 6세기경에 편찬된 《제기》와 《구사》 그리고 일본에서 편찬된 《백제신찬》을 비롯한 조선관계 자료들과 일본의 여러 고기록들, 절간과 개인기록, 씨족집단들의 전기 등을 많이 리용하면서 편찬되었다. 책은 시공간적으로 당시 조선의 삼국사기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여 사료자체의 가치는 엄정한 분석과 비판을 가해야 하지만 역사연구에는 필요한 사료로 되고있다. 이러한 《일본서기》(응신7년)에 《고구려사람, 백제사람, 가야사람, 신라사람이(일본어) 왔다. 이때 이 여러 가라히또(韓人-조선사람)들을 거느려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로부터 그 몫을 가라히또몫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명백히 일수 있는것처럼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사람들을 가라히또 즉 조선사람이라고 불렀던것이다.

《일본서기》(신공성정전기-중애 9년 10월)에는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켜 《이들을 삼한(세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삼한(三韓)에 속하는 나라들을 명문이라고 밝히었다. 그뿐아니라 같은 《일본서기》[효덕-대화4년(648년) 2월]에는 《삼한에 학문승들을 보내었다.》고 한 다음 주석에 《삼한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킨다.》고 명문으로 찍었다.

본시 삼한이란 진국을 구성하였던 소국들인 마한, 진한, 변한의 세계 소국을 가리킨 말이었는데 이후 점차 삼국시기의 조선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전회되었다. 고려시기의 왕건이 심훈요에서 발한 《삼한산천》이요 뭐요 하는 것은 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체 조선땅을 넘두에 둔 개념이었으며 한강이 남의 옛 진국간을 넘두에 둔것은 아니었다. 《삼한》은 이따금씩 전체 조선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였던것이다. 물론 《삼한》이 삼국시기의 세나라를 가리킨다는것은 적합치 못하지만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함께 조선의 역대 국가들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것만은 틀림없다.

말하자면 《삼한》이란 고구려를 위시로 한 백제와 신라의 세계 나라를

가리키는 밑이었고 그 첫번째 자리가 고구려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서기》의 모든 기록은 삼국시기에 존재한 조선국가들중 첫번째가 고구려였고 그 다음이 백제였다. 거기에 신라와 가야가 뒤따랐다. 요컨대 백제적색채가 진하고 백제 계통문필기들에 의해 이룩된 《일본서기》에서조차도 조선의 세나라를 꼽는 데서 고구려가 단연 으뜸이었다. 이렇게 조선을 꼽는데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꼽는것은 하나의 관습이고 질서였다.

고구려를 《삼한》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역대 국가로 부른것은 비단 일본뿐이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던것이다.

당 태종의 신하 저수량(褚遂良)은 당 태종 리세진과 고구려침략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고구려를 《삼한》으로 표현(《구당서》 권80 열전30 저수량)하였고 당 태종자신도 고구려를 《삼한》으로 짚어 말하였다. [《책부권기》 권111 제왕부 친정2 정관 19년(645년) 6월] 당태종이나 그의 신하 저수량이 고구려를 《삼한》이라고 한것은 바로 고구려가 조선의 세계 나라 즉 삼국의 한개 나라였기때문에 그렇게 부른것이다. 만약 고구려가 조선의 세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무엇때문에 이웃나라들인 중국과 일본의 역사기록들에 고구려를 가리켜 《삼한》이라고 하였겠는가. 신라말기의 유학자 최치원은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삼국이 있어 마한, 진한이라 하는데 고구려를 마한, 백제를 변한, 신라를 진한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것이지만 한때 삼국을 삼한이라고 부른적이 있었언때로부터 오는 최치원의 오식일것이다.

아무튼 고구려가 분명 조선역사에 속하였기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도 고구려를 《삼한》이라고 하였던것이다. 삼한은 곧 조선의 삼국이라는 뜻이다. 당나라가 보정왕을 조선왕(朝鮮王)으로 봉하고 또 그 손자 보원을 조선군왕으로 《책봉》한것은 다 고구려가 옛 조선땅, 조선의 나라였기때문이며 그 누구도 고구려를 중국땅, 중국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잘 알려져있는 것처럼 고구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별전을 내어 서술한 중국책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서 처음 시작된다. 여기에는 오환과 선비 및 동이를 위, 촉, 오의 삼국사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로 알고 서술하였다. 이후 24사의 모든 역사책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을 이민족의 나라로 서술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이 《동이》의 나라들이 조선역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일본)를 비롯하여 《북적》, 《서용》, 《남만》의 모든 나라들도 중국사에 속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모든 역사책들은 고구려를 조선역사에 속하는 나라로 서술해 놓았고 고려 역시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써놓았다.

중국의 역대 사서들이 고구려가 조선역사에 속하는 나라로 서술해 놓은 것처럼 중국의 역대 지도 역시 고구려를 중국의 이방(異邦)국으로 즉 조선으로 밝혀놓았다.

중국의 문물출판사가 2004년에 출판한 《중국고대지도집》(영인본)과 할빈출판사가 1998년에 출판한 《중화고지도진품선집》(영인본)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중국고대지도집》에 실린 청나라지도인 《동남양각국연혁도》에는 조선반도지역을 《조선》으로 표기하면서 옛 왕조명칭으로 고려(고구려), 백제, 신라를 밝혀놓았다. 《중화고지도진품선집》에 수록된 송나라시대때의 지도에도 우리 나라를 《동이》(동쪽오랑캐)로 명기하고 그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명기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역대 중국사람들 스스로가 고구려를 남의 나라 즉 조선으로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고구려가 조선역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에 속한다거나 고구려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나 다른 나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고전유산들을 전면부

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조선력사를 흑암하게 외곡한 지난날의 일제어용사가들도 감히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였고 오늘의 일본책들에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실례로 일설에 100만부의 출판부수를 가진다고 하는 이와니미서점판 《광사원》(칭무라 이즈루편찬)조차도 《고구려 고대조선의 한개 나라》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에 대한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며 지각인 것이다. 고구려가 다른 나라 력사에 포함된다는 과학적자료가 없다.

5. 천자(황제)를 칭하며 천하를 굽어본 고구려

고구려는 호방한 정신과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천하의 중심에 고구려와 고구려왕이 군림해있다는 사상경으로 천하를 굽어보며 주변나라들을 호평하였다.

고구려 시조왕 동명왕(고주몽)은 자기를 천제(天帝)의 아들, 하백(물귀신-룡왕)의 외손자로 자처하였다.

광개토태왕비에는 동명왕을 《천제의 아들》, 《황천(皇天)의 아들》로 표현했고 《모두루모지》에는 동명을 《일월지자》(日月之子) 즉 해와 달의 아들로 표현하였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동명의 아버지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였다. 해모수(解慕漱)는 추측컨대 해(태양)의 모수(아들)로 려해된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국사(삼국사기)》인용의 글이라면서 동명왕을 동명성제(東明聖帝)로 써놓았다. 결국 12세기에 와서 김부식이 유교적립장에서 제를 왕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동명이 태어난 부여나 고구려는 다같이 해(解)씨를 성으로 삼았는데 고씨는 해가 하늘중천에 높이 떠있는데로부터 지은 성씨로 보인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동명의 본태성을 해씨라고 밝혀놓았다.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백제에도 고위귀족의 문벌에 해씨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고기》의 기록이라면서 동명왕을 《천제》(天帝), 《동명제》(東明帝)라고 즐겨 인용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 북부여, 말갈, 발해, 고구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고구려가 황제의 지위에서 천하를 굽어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도 동명왕이 승천할 때는 황룡을 타고다녔다고 하였는데 황룡은 강서세무렵을 비롯하여 고구려무덤벽화들에도 즐겨 그려져 있다. 황룡은 곧 천지를 상징하였다.

고구려초기 5부의 중심인 계루부는 천지를 상징하는 방위색인 황부(黃部)라고 하였다.

고구려왕은 천자의 지위에서 주변나라들을 대하였는데 심지어 동쪽의 신라왕마저도 《동이대금》(동쪽오랑캐의 임금)이라고 불렀다. (중원고구려비) 고구려는 찾아오는 신라대금 즉 신라왕에게 의복을 거둬 하사하였다. (중원고구려비) 고구려왕은 자신을 태왕(太王)이라고 자처하였는데 그것은 못왕을 거느린 황제라는 뜻이었다. 광개토왕릉비, 중원고구려비, 모두루묘지 등의 금석문에는 광개토왕을 태왕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태왕은 곧 황제라는 뜻이다. 광개토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이 소궐제(소궐황제)라는 칭호로 불리웠다는 것이 중국측 기록에 밝혀져 있다. (《수서》 고구려전) 6세기 중엽 법흥왕에 이어 년호를 제정하고 병모를 크게 넓힌 신라의 진흥왕도 진흥태왕이라고 하였는데 (왕초릉비, 북한산비) 그것은 고구려의 본을 따서 부른 칭호였다.

이에 앞서 고구려는 천자밖에는 세울수 없다는 원(元)을 세우고 독자적인 년호도 제정하였다. 광개토왕은 영락(永樂)이라는 년호를 제정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일명 영락태왕이라고 불렀다. 그밖에도 고구려에는 연수(延壽), 건흥(建興), 영강(永康), 연가(延嘉) 등의 독자적인 많은 년호가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이 자신을 천자국으로 자칭, 자부하고있었다는것은 호칭

들에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중국이 이른바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기전에 대왕, 태왕으로 자처하고있었는데 광개토왕을 영락태왕(太王)으로 불렀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태왕은 곧 황제, 천자로서 하늘의 이들이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고구려사람들은 천자의 아들과 손자만을 부를수 있다는 태자, 태손이라는 호칭을 써왔으며 학교도 태학이라고 불렀다. 봉건유교사상에 물젖었던 김부식은 사대주의적립장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서 원래 있던 《동명성제》를 《동명성왕》으로 고치는 등의 작간을 부렸으나 다는 고칠수 없어 영양왕이 태학 박사 리문진에게 《신집》이라는 력사편찬을 지시할 때 조(高) 황제의 지사라고 하였다고 그대로 써놓았다.

무릇 태자, 태손, 태학, 조 등의 용어가 황제만이 사용하는 용어라는것은 중국사람들 자신이 하는 말(《사해》 중국서국, 1949년판)이다.

호칭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고국원왕릉을 보이도 일목료언하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의 력사를 외곡하다 못해 안악3호무덤을 중국의 망명객 동수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고구려왕(고국원왕)의 행렬앞에 씌어진 《성상변》(임금의 기발)조차도 인정 못하겠다고 우기고있다. 성상은 곧 국왕이라는 뜻이다. 성상은 성왕이라는 뜻이며 그것도 보통의 왕이 아니라 신성한 임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상(上)은 조선에서 상감 등 임금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로서 성상은 신성한 임금, 황제라는 말이다. 고구려에서는 동명왕을 추모 성왕(모두루묘지), 동명성제(삼국유사), 광개토왕을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성왕》(모두루묘지) 등으로 성(신성하다)지를 붙여 높이 불렀다.

그러나 성상변이란 관례적으로 고구려왕을 높이 존대하여 부른 존칭으로서 결코 망명객을 부르는것으로는 될수 없다. 이것 하나만 보이도 《한4군》절에 기초하여 조선의 서북지구가 《한인토착제력권》이었다는 궤변이 얼마나 허황한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더 론한다면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이 있었는데 제천의식은

말그대로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가리킨다. 아시아의 법도에는 하늘에서 나온 인물 즉 천자(황제)만이 제천의식을 거행할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에는 고구려뿐이 아니라 부여와 예, 마한 등에도 하늘에 제사지내는 풍습이 예로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조상때부터 하면 오백년 풍습이었다. 이러한 제천의식, 제천 행사를 거행하는 고구려는 만리장성이남 중원의 력대 국가들과 견주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주적인 대가센 국가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를 력대 중원국가의 속국이나 다른 나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가소로운가 하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6. 고구려는 조선문화권의 주요성원

고구려가 조선력사에 속하며 조선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주요국가였다는것은 문화적공통성을 보이도 잘 알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사람들의 문화적공통성은 넓은 포괄범위를 가지고있다.

그중에서도 언어의 공통성, 의복의 공통성, 전투방식의 공통성, 생활풍습의 공통성 등은 다 해당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고구려는 이와 같은 조선민족의 민족적공통성, 문화적공통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대표적인 주권국가였다.

언어의 공통성에 대하여 보면 고구려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조선말이었다. 당시의 조선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갈라져 살았던것만큼 방언이 심하였으나 세나라 사람들은 호상 자주 배왕하고 섞여 살았던것만큼 의사소통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고구려어가 따로 있고 백제어, 신라어, 가야어가 따로 있었것이 아니었다. 다같은 조선말을 썼기때문에 비록 지방적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소통에서는 지장이 없었다. 5세기때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중 도림이 백제의 개로왕을 녹

어내기 위해 바둑으로 환심을 샀는데 대화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신라의 거칠부가 껌랍차로 고구려에 침입하여 고구려의 고승 해랑의 불법강의를 들을때 통역을 통하여 들었다는 말도 없다.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청병하러 갔을 때 고장(보장)왕의 충신 선도계에게서 비밀리에 《토끼와 거북이이야기》를 들었다는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의 최고관직인 《막리지》와 신라의 《마립간》도 조선말로 읽어야 뜻이 통한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막리지》는 사람(지)의 머리(머리) 즉 사람들의 우두머리이며 《마립간》 역시 《마리(머리-사람)》의 한-우두머리라는 뜻이다. 5세기 신라 수도 경주에 주둔한 고구려사람들이 신라의 왕위교체에 관여한 다음 신라가 이제까지 쓰던 니사금이라는 왕호대신 마립간이라는 고구려적인 왕호를 쓰게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의복 역시 고구려사람들은 조선옷을 입었지 다른 나라 옷이나 만족의 옷을 입지 않았다. 고구려사람들은 조선옷의 고유한 옷차림인 녀자는 저고리와 주름치마 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으며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것은 강서세무렵과 역흥리무렵, 안악 2호, 3호무덤과 수산리무덤, 약수리무덤, 연탄군송죽리무덤 등의 벽화들에 반영된 의복차림새를 보어도 일목로연하다.

알려져있는것처럼 고대와 중세기의 아시아나라들에서 의복차림새는 해당 나라의 정치적주장을 반영하는 징표의 하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같은 시기의 백제와 가야 신라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민족옷을 입었다. 이러한 조선옷을 중국사람들은 호복(오랑개옷)이라고 멸시하였는데 만약 일부 론자들이 말하는것처럼 고구려사람들이 엄제나 상, 은의 한갈래였다면 고구려사람들도 한족옷을 입었어야 하였을것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좌임으로 된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옷을 즐겨 입고 다니

었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역대 한족들이 《호북》이니 머니 하면서 비방 중상함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이래로 전해내려오는 의복전통을 귀중히 여겨 고수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사람들은 언어에서만 조선말을 하고 의복은 고유하고도 전통적인 조선옷을 입고 다녔다. 그렇기때문에 중국의 역사책들에도 백제는 《언어복장이 고려(고구려)와 같다.》(《량서》 제이전 백제)고 하였고 백제는 《음식과 의복이 고구려와 같다.》(《북사》 동이 백제전, 《위서》 백제전 등)고 하였던것이다. 신라 역시 행동거지가 고구려와 류사하다(《량서》 제이전 및 《남사》)고 하였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원래 백제는 한곳에 발붙이고 살면서 방어 및 공격용시설로서의 신성을 쌓고 싸운 민족은 오로지 고대조선사람들과 그 후예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사람들이였고 그 전통이 발해와 고려 및 리조에 이어져왔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의 축성법은 우리 나라 산성구축을 대표하는 본보기였다.

고구려산성은 규모가 웅대하고 실용적가치가 있게 축성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몇배, 몇십배의 대적을 맞받아칠수 있고 장기전에 대처할수 있게 산성안에 병영과 샘및 우물을 확보하였으며 시내물(계곡)을 에워싼 고로봉식(포곡식)의 웅대한 산성을 구축하였다. 산성은 외면쌓기와 곳에 따라 양면쌓기를 하였으며 큰 돌을 필비턱에 깔고 거기에 길죽하게 다듬은 돌을 맞물리듯 벽학적으로 잘 쌓았으며 고입돌과 버팀돌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또한 큰 타격을 받을수 있는 개소에는 다듬은 큰돌을 올려쌓았다.

산성과 산성은 서로 봉수로 신호하면서 적들을 포위공격할수 있게 방어(위)체계를 세워놓았다. 바로 이 고구려의 길배로서 시조왕을 온조나 비류가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시조 고주몽(동명왕)으로 삼았었다.

전투방식의 공통성 역시 조선민족을 특징짓는 문화적공통성의 하나

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투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투방식 하나에도 해당 민족의 특징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고구려는 조선의 독특한 전투방식대로 싸워 부단히 침습하는 외배집락자들을 격퇴하였다. 조선은 예로부터 산에 튼튼히 의거하여 대적을 격퇴하였다. 고구려이래로 조선사람들은 산이 많은 지형지물에 맞게 성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성은 산성이라고 불렀다. 동방에서 산성을 쌓고 싸운것은 유독 우리 조선뿐이다. 일본에도 산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의 영향하에 구축되었기때문에 조선의 산성을 방불케 하였다. 그것은 《조선식산성》이라고 일본학자들이 명명한것처럼 조선 사람들이 쌓은 산성이다. 일본의 산성은 일본열도에 진출정착한 조선이주민집단들의 고국의 싸움방식대로 쌓은것이였다.

이후 일본의 성사는 10세기 중엽까지 산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에 공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고구려가 제일 대표적이었다. 고구려의 우수한 산성축성법이 남쪽나라들에 크게 보급되었다는것은 고로봉식산성의 남쪽으로의 파급과 남쪽나라들에서의 산성식으로부터 고로봉식의 교체 하나만 보어도 잘 알수있다. 고구려식산성의 우수성은 오히려 한족들의 성사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다. 실제로 후세의 만리장성에 《지》가 있는것은 고구려와의 침략전쟁에서 배운 지식을 도입한것으로 보아 지고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건강성(남경성)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강하다.【백제사연구》주체91(2002)년, 208~209페이지]

산성축대에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것은 재료에 관한 문제이다.

고구려를 위시로 한 삼국시기는 물론 발해와 후기 신라, 고려, 리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산성축성의 기본재료는 돌이였다.

산에서 화강암을 비롯한 돌을 캐내어 그 돌을 재치있게 맞물리며 억척같은 성사를 완성하는것, 이것이 조선의 성사축성법의 전통이였다.

그러하였기때문에 수, 당의 침략자들도 《동이(고구려)가 성을 잘 지키기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조련치 않다.》고 하면서 매우 두려워하였던것이다. 이 말은 전 의주자사 정전숙이 수 양제를 따라 고구려침략에 나섰다가 수나라 300만 대군이 몰살당하는것을 직접 보고 후날 당 태종에게 공포에 싸여 말한 것이다.

이 자료에 보이도 수, 당나라때 중국사람들이 고구려를 동이(동쪽오랑캐 즉 고구려)라고 멸시하여 불렀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산성구축은 조선에만 독특한것이였다.

유목민족인 몽골과 만족(여진족)은 정착생활을 하지 않은데로부터 산성을 쌓지 않았다. 한족 역시 황하류역의 황토층의 평야지대에서 기원하였기때문에 산성 같은것은 쌓지 않았다. 성새인 경우에도 평야와 평지에 방형모형으로 토성을 구축한 도성을 쌓는것이 고작이였다. 유독 조선사람들만이 험준한 산에 의거하여 성벽을 쌓고 외적을 격퇴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식의 전투방식과 전략 기술이 창조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민족적특징을 창조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석축은 조선의 고유하고도 전통적인 기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돌재료를 청채구축에만 쓴것이 아니라 무덤간축조에도 썼다.

조선은 고대와 중세시기에 여러가지 무덤간을 쌓았으나 그 기본재료는 돌이였다. 일부 고대시기에 남쪽지역에서 돌무덤(옹관)을 쓰기도 하였고 또 나 무곽 무덤을 쓰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돌무덤이 압도적자리를 차지하였다. 간혹 평양일대와 공주지방에 벽돌무덤이 있을뿐이다. 고인돌무덤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의 돌각담무덤, 돌곽무덤, 돌돌림무덤, 돌칸흙무덤 등 돌을 기본재료로 쓰면서 여러가지 돌무덤을 만드는것이 조선의 기본묘제였다고 말할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의 기본묘제에 쓰인 재료가 돌이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반면에 한족들의 무덤간에 쓰인 기본재료는 다같이 벽돌이었다. 황하류역 중원의 특수한 항토층의 진흙을 빚어 구워 만든 벽돌로 집을 짓고 성새(도성)도 구축하며 무덤간을 만드는 것-이것이 한족의 기본생활방식이었다. 온돌을 쓰지 않고 벽돌집을 짓고 살면서 무덤간도 벽돌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성새도 벽돌을 올려쌓으면서 완성하는 것-이것이 한족들의 보편적생활습성이었다. 후세에 와서까지 한족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벽돌건축이 보급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만리장성처럼 산세에 따라 구축하는 산성조차도 주로 벽돌로 쌓았다.

조선에서처럼 바위를 따내거나 바위우에 돌을 올려쌓지 않았다. 만약 고구려의 조성이 일부 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제의 한길태이거나 전옥 곶양씨 또는 상, 은의 후손들이었다면 고구려의 생활풍습이나 무덤간에 벽돌사용습성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통구》라고 부르는 고구려의 정치적중심지 집안에는 장군무덤을 비롯하여 1만여기에 달하는 방대한 고구려무덤떼가 있다.

거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돌무덤이 한벌 쪽 깔려있다.

또한 압록강과 장자강일대의 고구려무덤 역시 돌각담무덤이 기본주류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고구려돌무덤에서는 벽돌무덤의 흔적조차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한족의 한길태로서 룡동일대에 건너와서 고구려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 설은 얼마나 허황한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생활풍습 또한 문화적공통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들중의 하나이다.

다방면에 걸친 삼국사기 사람들의 생활풍습가운데서 온돌은 그중 대표적인 생활풍습의 하나이다.

온돌은 농는 풍습은 조선민족이 수천년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창조한 생활에 밀착된 난방과 취사보장풍습이었다. 벌써 고조선과 진국 등 고대국가시대의 조선주민들이 온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해

립증되어있다.

온돌은 난방용 및 취사용을 겸한 조선의 고유한 실림시설로서 북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 남으로는 변진과 백제, 가야, 신라 그리고 발해와 고려, 기조에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온돌은 변변히 계승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책 《삼국지》(위지동이 변진조)에는 고대진국을 구성한 변진에 집의 서쪽에 가미터가 있다고 밝히었으며 이와 같은 문헌의 전승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유적(3세기경)과 그밖의 고고학적자료들에 의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도 구들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첫 수도성였던 졸본(홀본)-오녀산성의 발굴(1996년이후 3년간)결과 병영자락에서 구들-온돌이 드러났다.

요컨대 고구려초기의 구들자리가 드러난 것이다. 안악3호무덤의 벽화에도 가미를 거는 장면이 있는데 고구려사람들이 가미를 취사용만이 아닌 난방용으로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온돌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며 조선민족을 특징짓는 생활풍습의 하나이다. 조선사람은 어디에가서나 방바닥에 구들을 놓고 살았다. 가야와 백제사람들이 당시 왜평이라고 하던 일본열도에 건너가서도 고국의 생활풍습대로 온돌을 놓고 살았다는 것은 고고학적자료가 증명해주며 그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비증을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일본사람은 물론이고 만족도 한족도 온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만족이나 한족이 쓰는 난방시설인 《강》(炕)은 온돌과 다르다.

이것은 또한 고구려족이 한족의 한갈배였다는 주장을 반박해주는 자료로도 된다.

오녀산성의 고구려병영바닥에 설치된 온돌이나 가야가 있던 김해의 부원동유적의 온돌이나 다같이 조선민족에게 고유한 난방시설로서 한족국가나 한족풍습과 전혀 같지 않은 생활풍습의 하나였다.

발발아 역시 조선의 민족적생활풍습의 하나였다.

고구려의 안악3호무덤벽화에는 고구려녀인(궁녀)이 발방아를 찧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놓았다. 그리고 그우에는 빨간글씨로 《학》(방아)이라고 적어놓았다.

방아는 아시아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쓰는 탈곡 및 가루분쇄용 도구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아질을 하는가에 따라 대개 민족의 특성,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발방아는 조선민족에게 고유한것으로서 허리와 다리가 강한조선사람의체질적특징을 잘 반영하고있다.

허리와 다리가 약한 한족과 농사를 잘 짓지 않았던 만족(여진족)은 발방아를 쓰지 않았다.

발방아질은 곡식조리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리방법이었다.

그러면 고구려사람들이 무슨 곡식을 어떻게 조리하였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여기에도 조선민족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조선사람들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걸쳐 쌀밥을 포함하여 5곡을 먹었다. 대동강류역인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표대유적 등지에서 벼일을 비롯한 조, 콩, 기장등의 5곡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5곡을 주식으로 한 식생활풍습, 음식문화는 고대시기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 시기와 그후의 발해, 신라 그리고 고려와 리조에 이어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고구려 안악3호무덤벽화에 그려진 발방아에서 찧는 알곡 역시 벼알이나 기장쌀 등의 5곡이 분명하다. 이와 반면에 황하류역의 중원에 근원을 두고있는 한족의 식생활풍습은 주로 밀과 밀가루음식이였으며 거기에 기름기를 보충하기 위한 돼지고기음식이 배합되였다. 따라서 고구려와 한족의 방아형식도 다를뿐만아니라 방아에서 찧는 알곡종류도 달랐던것이다. 한족은 연지방아에서 밀조리가 기본이였다.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백제사람들 역시 5곡을 위주로 한 음식문화를 꽃피웠지 한족사람들처럼 기름기있는 음식을 먹거나 밀가루음식을 위주로 먹

지 않았다. 일부 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구려가 중원에 있던 한족의 한갈배가 건너와서 생긴 나라이고 또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백제가 한족의 갈배였다면 고구려는 물론 남쪽나라에 할거하였던 백제도 한족처럼 밀기루음식을 위주로 한 식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음식 하나를 통해서도 고구려사람들의 민족적풍습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화유물을 포함하여 문화양상, 문화중태자체가 한족의 역대 국기들과 고구려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문화와 관련하여 견해 말한다면 중원의 역대 국기들은 고구려를 이단시, 이방시하여 침략하는 경우 철저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다. 모용황이 고구려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 파괴와 약탈을 감행한 것이나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성이 축대밭이 되도록 미증유의 대대적인 방화와 약탈을 감행한 것은 그러한 실례들이다. 지금도 모든 고구려무덤들에 유물 한조각 성하게 남지 않은 것은 그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약탈에 기인한다. 그것은 그들이 고구려를 《동이》로 멸시한데로부터 오늘 침략이며 약탈이었다. 만약 한족과 고구려족이 동족이었다면 그러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늘에 와서 랑자는 동족이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략이다.

7. 허울뿐인 《책봉》과 《조공》

일부 론자들은 역사책에 실려있는 고구려가 《조공》하였고 다른 나라 왕조가 고구려왕을 《책봉》하였다는 사료를 가지고 고구려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며 《조공국》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들의 패권주의적필법으로 씌어진 봉건사키들의 글줄대로만 하면 고구려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예속국》이며 온 세계가 《조공국》이다.

고구려는 지주적대가세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다. 천자로 자처하던 고구려가 중원의 력대 나라들에 고분고분할수 없었다. 고구려는 다른 나라에 대해 사대는커녕 그들의 대규모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A.D. 49년 고구려군의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에 대한 기습공격(《후한서》제기 광무제 25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모본왕 2년)과 598년의 료서공격이 바로 그러하였다. 상곡과 우북평은 화북성일대이고 어양은 우북평(오늘의 베이징)이동 천진이북의 만리장성이남까지도 진출하였는데 명실공히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침습과 함께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쌓은 성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고구려는 장거리기마군단을 파견하여 유주 일대까지 타고갔기도 하는(역흥리부덤벽화의 묵서) 과감한 전투행동도 벌리곤 하였다. 력대로 한쪽은 고구려를 저들과 동급의 나라로 취급하면서 매우 어렵게 대하였다. 실제로 장수왕때 북위는 고구려가 한창 강성하다면서 외국사신으로는 고구려사관을 으뜸으로 대우하였다. 고구려 장수왕때는 연나라와 송나라 등 당시의 력대 국가들도 고구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다. 장수왕과 문자명왕이 사망하자 북위에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그 나라 황제가 베옷을 입고 거애(擧哀)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북위는 당시 얼허를 포함한 화북과 북중국일대를 다 지배한 남북조시대의 북조나라로서 서북쪽은 둔황일대까지 차지한 대국이었다. 운강적골도 북조(북위)때 만들어졌다. 그러한 북위가 고구려왕의 거상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우정 거애한것이였다. 저들에게 《신속》한 나라 고구려왕이 죽었다고 황제가 거애하는 사실을 두고 《예속국가》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또한 연나라 황제 풍홍을 고구려장수들이 죽인 사건등에서 고구려의 대국적자세가 여실히 나타났다.

고구려는 동서 6,000리, 남북 4,000여의 광대한 평토와 176개 성 69만 7,000호로 수백만명(약 700만명정도로 추측)의 인구를 가진 국력이 강한 나

라였다. 30만의 굳센 상비군을 가지고있던 고구려는 남의 나라에 예속될 아무
러한 조건도 없었다.

고구려는 당당한 자주국가로서 당시의 역대 국기들과 어깨를 견주며 동
방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었지 그 어떤 나라에 빌붙거나 예속되는 《예속국》
이 아니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고구려왕이 일본국왕에게 조서(황제의 명령)를
내린다고 할 정도로 황제의 지위에서 대하였다. (《일본서기》) 만약에 《책봉
》과 《조공》이라는 봉건적대국주의사관들이 쓴 말마디를 역사적사실로 간
주하고 당시의 역사를 본한다면 일본열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주변나라들은
다 식민지속속국으로 전락된것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실지로 《책봉》과 《조공》은 대국주의적입장에서 제멋대로 정한 외
교무역형식에 불과하였다.

전한(B.C. 206년-A.D. 25년)이후시기 특히 남북조시기(5세기초~589
년)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나라와의 외교무역관계를 《책봉》과 《조공》
관계로 만들었으며 《칭신조공》(신하로 칭하고 공물을 바치는것)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외교무역관계를 맺는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봉건사자들은 외교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비록 《칭신조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한것처
럼 꾸며 써놓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역사책에 《책봉》과 《칭신조공》이라고 써놓았다고 해
서 그 말마디에 포로되어 역사적사실을 놓쳐서는 안되는것이다. 문제는 역사
적사실의 내용이 중요한것이지 형식과 말마디가 중요하지 않다는것이다. 실례
로 역대 봉건사자들은 로마제국의 안토니우스가 한나라와 무역한것도 《공물
을 바쳤다.》(《후한서》권118 서역전 대진국)고 써놓았으며 인디아의 마가다
국이나 사라스의 대식국도 당나라와 송나라에 《조공》(《구당서》 권 198 서
용별전 천축국, 《송사》 권490 천축국, 대식국)한듯이 써놓았다. 황당하게는
근대에 들어서서 영국이나 러시아도 청나라에 《칭신조공》하였다(《단체 신

채호전집》 상, 57페이지)고 기록하였다. 《책봉》하고 《조공》하였다는 말마다가 있으면 다 예속국이 된다고 논한다면 한(전한)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도 흉노와 돌궐, 거란의 예속국이 되는셈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해마다 수십 만필의 비단 등을 이 나라들에 《조공》하였기 때문이다. 한다면 고구려가 《조공》하고 《책봉》받았다고 하여 그대로 믿을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다싶이 고구려는 한나라 침략자들과 역사적으로 싸웠고 위나라 판구검이 침공도 격퇴하였다. 수와 당의 대규모침략도 과감히 맞서 섬멸적타격을 안긴 고구려가 다른 나라의 역대 왕조들에게서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바친 존재였다면 이른바 《중주국》인 다른 나라 왕조와 그토록 용감하게 싸울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고분고분하지 않았기때문에 침략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든 것이며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그러한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로 맞선 것이다.

천년강대국 고구려의 존재 전기간 서방(현재의 중국)과 북서방(현재의 몽골)에서는 35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그중 70%에 가까운 24개 국가가 50년도 못가고 멸망하였고 86%가 넘는 30개 국가가 100년도 못가서 멸망하였다. 200년이상 존재한 나라는 전한(231년)과 당(290년) 두개 나라뿐이었다.

이들 35개 나라도 절반이 한족이 아닌 북방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천년가까이 국가적기조를 튼튼히 하였던 고구려가 50년도 유지되지 못한 나라(24개 나라)나 100년도 유지되지 못한 나라(6개 나라, 오-52년, 서진-52년, 양-56년, 송-60년, 전진-61년)에 신속되어있었다고 하는것이이말로 상식밖의 견해이다.

8. 《중국고구려사》의 망동

최근 일부 문자는 《중국고구려사》(2002년 길림인민출판사)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내놓고 고구려사는 다른 나라 역사라는 것이다. 그는 고구려사에 대한 시대구분을 《대답》하게 자기 나라 역사에 맞추어 그어놓았다.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에 맞추어 시기구분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그는 과감하게 해제진 것이다. 그것도 고구려는 전기는 노예사회였고 후기는 봉건사회라는 앞뒤가 모순되는 논리로 시기구분을 해놓았다.

B.C. 3세기의 진시황때 혹은 류방의 한나라(전한)때에는 봉건사회에 들어갔었을진대 같은 《한개 나라》의 《지방장권》인 고구려가 《노예소유자국가》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한지방아래의 《국가》안에서 한쪽에서는 봉건국가이고 또 한쪽에서는 노예제국가라는 것은 자체모순에 빠진 주장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 것이다.

《중국고구려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며 과학적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이다. 구태여 그 주장을 요약한다면 첫째로, 고구려가 다른 나라 땅에 세워졌기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방장권이며 셋째로, 고구려는 조선족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한족의 한갈래가 세운 나라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수, 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국내전쟁이며 다섯째로,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 받지 않았으며 여섯째로, 조선반도북부 오늘의 한강이북지역도 평토, 다른 나라 역사이며 15세기이후 비로소 그 일부가 조선땅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고구려사》는 바로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견해로 일관된 도서이다.

지어 일부 문자는 강서 혁흥리의 피장자 유주자사진을 중국귀화인으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제논으로 한번도 직접 본적이 없는 강서 혁흥리벽화고분의 벽화목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두 글자공간에 제멋대로 북방유목민족인

《모용》씨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유주자사진을 《모용진》으로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도 정확한 자료인듯이 대대적으로 보급시키고 있다. [《동북고사자료총편》(2) 료심서사출판사, 7989년판, 472~473페이지]

9. 고구려-수, 당전쟁은 《통합전쟁》이 아니라 반침략조국 방위전쟁

일부 론자들은 《책부원기》(제왕부 친정2)에 실린 당 태종 리세민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이 《고구려지역을 전통적인 다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라고 하면서 괴이하게도 고구려침략을 미화분식하다 못해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을 《고구려와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곧 다른 나라의 영토안정》을 위한 사업인듯이 취주었다.

일부 론자들은 마치도 고구려땅을 강점하는것이 다른 나라 영토를 다 평정하는듯이 말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수나라는 물론 당나라 통치배들은 고구려만 침략한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와 신라 세나라를 다같이 삼키려고 하였기때문이다.

고구려가 다른 나라 영토였기때문에 《통합전쟁》을 벌린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고구려영토도 아니고 다른 나라 영토도 아닌 백제를 강점하였고 고구려멸망이후에는 《맹약》을 맺고 대동강이남평의 영유권을 인정한 신라마저도 이에 집어삼키려고 하였다는것은 역사적사실로 남아있다. 《삼국사기》(김유신전)에도 《당나라 사람들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사비(부여)의 언덕에 둔치고있다가 가만히 신라를 침략할 음모를 꾸미었다.》고 하였으며 《삼국유사》(태종춘추공)에도 《신라고기》의 자료라고 하면서 소정방이 《신라를 치기 위해 머물러있었다.》고 하였다. 지어소정방이 귀국하자 당고종은 《나간김에 왜 신라를 치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이것도 《통합전쟁》인가 하

는 것이다. 요컨대 당나라 통치배들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에 속화하고 우리 조선사람모두를 노예로 만들려 한 것이었다. 만약 일부 통치배들의 논리를 따르다면 신라가 위치한 조선반도 남단까지 다른 나라의 영토로 되며 소정방이 신라를 침략하려면 의도 역시 다른 나라의 《통합전쟁》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유민들이 신라와 손을 잡고 신라마저도 집어삼키려는 흉악한 기도를 짓부시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소정방은 신라마저도 타고았을 것이었다.

료동일대가 다른 나라의 영토였다는 말도 천만부당한 것이다.

원래부터 룡동일대는 리승휴가 《제왕운기》에 서술한 것처럼 중원과 별다른 천하였다. 조선이 처음부터 《가자조선》이나 《한4군》 그리고 《고죽국》이었다는 것도 력대의 침략자들이 저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민 요설과 꾀반에 불과하다.

고구려땅은 고구려사람들이 개척하고 가꾸어온 땅이었지 당시 한족의 땅은 아니었다. 그러나 《통합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구려, 백제는 물론 신라마저도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당나라 침략자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며 미화분식할 수 없다.

고구려는 다른 나라와의 계선을 긋기 위해 장성을 축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고구려사람들 역시 당나라 침략자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패막이를 겸한 하나의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만약 고구려가 다른 나라의 영토였고 한족들의 지방정권이었다면 구태여 그러한 거대한 축성물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일부 통치배들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300만 대군과 100만 대군 등 미증유의 군사를 동원시켜 고구려침략에 나선 사실을 《정의의 싸움》, 《통합전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싸움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쥐는가 하는

국가 대 국가간의 치열한 전쟁이었고 조선으로서는 횡포한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반침략애국투쟁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수나라는 실수대첩으로 유명한 싸움에서 정예부대를 상실하고 나머지 군사들도 무주고혼이 되어 결국 그것으로 하여 정권이 뒤집어지고말았다. 고구려사람들은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보복을 안기었으며 침략자들 역시 성이 함락되면 남녀로소할것없이 생매장하는 것을 배상사로 여겼다. 이것은 이민족 대 이민족의 사생결단의 싸움이였지 한겨레 한개나라의 《통합전쟁》따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의 《한울타리》안의 《지방에속국가》였다면 수나라가 고구려침공으로 망하면서 동시에 고구려도 망하여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종주국이 《지방속국》때문에 망하였다는 말도 동서고금의 역사책에 없는 금시초문이거나와 종주국이 망하면서도 《속국》이 그냥 건재하여 승승장구하였다는 사실도 역사에는 없는것이다.

리규경(1788년-?)은 자기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강점한 다음 철저한 파괴와 방화, 약탈을 감행한것은 고구려사람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이 완강한데 대한 분풀이인 동시에 자기 나라에 비한 고구려의 문화적수준이 훨씬 높은데 대한 질투에서였다고 썼다

10. 《고구려인구 70만명》의 허위성

일부 문자들은 고구려의 인구가 70만명정도였는데 그것이 네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하면서 그중 30만명이 중원각지로 류입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서 신라에 간 사람이 10만명, 돌궐로 간 사람이 1만여명, 발해갈길에 10만명, 20만명이 료동각지에 흩어졌다고 하는 제 나름의 추측을 그럴듯 하게 엮어내었다. 일부 문자들은 70만이라는 고구려인구의 《통계》를 넘으로써 첫째로, 고구려는 보잘것없던 다른 나라의 소수민족의 국가였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

고 들째로, 고려가 사실상 신라인들로 구성되었고 실지로 고구려의 주민은 얼마 없었다는 것을 《고종》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삼국사기》와 《구당서》 등 중국의 역사책들에도 고구려의 인구가 5부에 176성 69만 7,000호라고 명문으로 밝혀놓았다. 일부 문자들이 고구려사람 30만명을 중원각지에 보냈다는 것은 고종이 3만 8,300호의 고구려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황무지개간을 시킨 것을 넘두에 둔 것이다. 이때 한개 호를 10명으로 보면 대략 30만명이 된다. 그렇다면 고구려인구는 약 70만호였으니 700만명은 되는 것이다. 고구려인구 70만이란 수자는 1호당 1명으로 계산한 것인데 어떻게 한개 호에 한명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부부가 있어 집(호)인데 70만호에 70만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고구려는 30만의 상비부력을 가지고 있었다. 장정 10명에 한명의 군사를 뽑는 원칙에 준해서라도 300만명의 장정에 그 배가 되는 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다 합치면 700만은 실히 된다. 고구려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10분의 1의 인구밖에 없다 해도 700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원각지에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사방에 흩어졌다 해도 기본적인 사람들은 예전대로 자기 고향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이다. 고구려의 멸망과 더불어 그 유민들이 조선반도의 중부지역에 수없이 옮겨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멸망과 더불어 그 절대다수 주민들이 70만명밖에 없다고 왜소화하며 그나마도 중원각지에 흩어져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허위이다. 나라가 망해도 주민들 자체는 그 자리에 살기 마련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국가주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주권은 국가정치를 유지하고 있던 상층의 권력기구와 그 조직인원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 상층의 인원들이 실해와 포로 또는 망명 기타에 의해 조직적인 해체가 강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면 소수의 귀족상층들과 권

력기구를 유지하면 인원들(상충군인 등)은 강제이주당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자리에 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전체 주민들이 통채로 이동한듯이 묘사하는 것은 역사학의 상식을 초월한 잘못된 견해이다.

이것을 좀더 따져보면 고구려멸망당시의 인구가 70만명이었다고 가정하고 아이들과 녀자들, 노인들 그리고 남정으로서 허약자를 빼면 10만명의 군사도 뽑기 힘들것인데 단병집전을 위주로 한 중세초기의 전쟁에서 10만명미만의 군사들으로써 역사에 일찍 없었던 침략전쟁사에 보기 드문 300만 대군을 괴멸시키고 수제국을 멸망시킬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이다. 668년의 고구려멸망과 수 양제의 대거침입이 있었던 612년은 불과 반세기 차이이다. 반세기사이 에 고구려의 인구가 수백만명으로부터 70만명으로 줄어들수 있었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더라도 고구려의 전성기때 수도(평양-주변지역포함)의 호수는 21만 508호로서 10배를 가산한다 해도 200만명의 인구다.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시 안시성전투때 연개소문은 10만의 예비지원군을 보내었는데 그래 고구려에 70만의 인구밖에 없었더라면 기본전선에 배비한 무력이 외에 어떻게 10만명의 예비중원부대를 안시성에 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11. 다른 나라 대륙에 진출한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

일부 문자들은 고구려 역사를 다른 나라 역사의 하나로 보면서 고려를 신라에서 나온것으로 억지주장을 한 다음 《한강이남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한(韓)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는 언제 한번 다른 나라 대륙에 진출한적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A.D. 49년의 우북평, 상곡, 태원 등지에 대한 고구려진출과 5세기초의 유주진출은 들쭉치고 백제의 대륙진출은 활발하였다. 일명 《료서백제군》이라고 하는 료서지방에 백제의 진평군(진평현)이 있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또한 《삼국사기》와 《자치통감》, 《남제서》(백제전)등에는 백제-북위전쟁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백제-북위전쟁은 산둥반도에 있던 백제비래지에서 벌어졌던 전쟁으로서 백제 모태왕(동성왕)은 이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자기 신하들에게 평양태수, 청하태수, 평릉태수, 성양태수 등 중국땅의 여러 군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이 땅들은 남제가 장차 되찾을것을 계획하고있던 북위의 영역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백제군이 활동한 지역은 오늘의 산둥, 강소, 하남, 하북성과 관련이 있던 곳이었다. 그때 북위는 수십만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백제를 쳤는데 백제는 장수 사법평, 찬수류, 해비근, 목간나 4명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군을 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495년(제나라 건무 2년)백제의 동성왕은 남제에 보낸 국서에서 사법평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공격함으로써 크게 이겨 적군의 시체는 들을 덮었고 적의 에봉을 쥐어놓았다고 하였다. [《백제사연구》주체91(2002)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최치원은 당나라의 시중에게 보낸 자기의 편지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때는 강병 100만명이 있어 남으로는 오월(吳越)을 침입하고 북으로는 유연과 제(齊), 료(魯)나라를 괴롭게 하여 큰 우환거리가 되었고 수나라 왕제가 백을 못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고구려와 백제는 다른 나라 대륙에서 필요한 활동을 과감하게 벌인 대국이었다. 중국책들을 신주모시듯 하는 일본학자들이나 일부 론자들이 이와 같은 엄중한 자료를 아낀 보살하며 묵살하는것은 제 나름대로의 속심에서부터 출발하여 백제를 왜소화하는 시도에서 시작된것이다.

고구려, 백제는 물론 신라(후기)사람들도 다른 나라 대륙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였는데 산둥반도와 남중국일대에 신라방이라는 신라거리가 있었고 해

상왕 장보고는 다른 나라 대륙의 여러곳에 영지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문자들이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한발자국도 나온적이 없다.》고 하고있다.

12.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한 고구려유민들

일부 문자들은 고구려사람들이 당나라로부터 《책봉》받고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기때문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다.》고 하였다.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다.》는것은 망국을 감수하였다는 뜻이고 저항하지도 않았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당나라에 투항변절한역적 연남생이하 몇몇사람이 오히려 당나라의 전국통일에 이바지하였다고 긍정적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도 고구려유민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한투쟁을 전개하였다.

668년 9월 수도 평양이 함락된 직후로부터 고구려 인민들은 강점군의 아성으로서의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내쫓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였다.

그리하여 《안동도호부》는 이듬해 여름경에는 멀리 료동지방의 신성으로 그 소재지를 옮기지 않을수 없었다. 한편 고구려의 대형 검모장은 699년 초부터 고구려유민들을 모아 반침략투쟁을 개시하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고구려유민들이 합세하였다. 669년 2월에는 고구려남부지역에 있던 안승(보장왕의 서자 혹은 외손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의 아들 등으로 전해지고있는 인물)이 4,000여호를 거느리고 신라쪽으로 갔다. 검모장의 지휘밑에 고구려군

은 대동강남쪽으로 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당나라 관리들과 중 법인을 처단함으로써 압록강이남지역을 회복하였다. 김모집은 사이도(오늘의 경기도 덕적군의 소야도)에 가있던 안승을 데려다가 고구려 부수도의 하나였던 한성(남평양성, 황해남도의 신원군)에서 고구려국의 재건을 선포하였다.(669년)

675~676년 사이에 고구려군과 신라군은 힘을 합쳐 수십만명의 당나라군을 여러차례의 전투에서 격파함으로써 마침내 적군을 압록강이남지역에서 내몰았다.

압록강이북지역에서도 고구려의 과감한 항전이 계속되었다.

676년에는 평양에서 쫓겨난 《안동도호부》가 룡양에까지 쫓겨갔으며 항전군을 무마시키기위하여 고구려의 마지막왕인 보장왕(고징왕)을 《료동국도독 조선왕》으로 임명하여 룡동성에 가있게 하였으나 도리어 보장왕은 룡동에 온 이후 고구려사람들과의 연계밑에 고구려를 재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탄로되자 당나라는 그를 다시 붙잡아다 공주(사천성 공패현)에 귀양보내고 당나라에 있던 고구려사람들로서 그를 따라가게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하남, 통우(김숙성일대)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다른 한편 고구려사람들은 오늘이 평안북도 의주를 새로운 국내성(수도)으로 정하고 고구려귀족의 한 사람을 국왕으로 삼고 대동강이북과 룡동반도 동남부를 기본병역으로 하는 또 하나의 고구려국을 세웠다.

이 고구려국은 발해건국후 얼마 안되어 발해에 속하는 하나의 후국으로 되었다.

영주지방에 강제이주당한 고구려사람들은 거란족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다. 고구려유민들은 발갈부대와 함께 수개월 간에 걸쳐 영주의 동쪽과 동남쪽의 여러성들을 함락시켜 강점지들을 소멸하고 9월에는 룡서, 고성(영주 동남방 270리 지점, 대릉하하류지방)에 옮겨와있던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여 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거란군은 돌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각개 격파당

하였다. 고구려군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거란의 장수 리해고가 거느리는 당나라 추격군을 천문봉싸움에서 섬멸하였다.(698년초) 리해고는 겨우 자기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 [《조선전사》 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80(1990)년 제2판]

천문봉전투는 고구려유민들의 국가채건과 발해국의 창건에 직접적인 계기로 된 역사적인 전투였다. 역사적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구려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자 침략자인 당나라를 반대하는 무자비하고도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만약 《시문》의 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구려사람들이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다》면 《인동도호부》를 고구려땅에서 내쫓기 위한 투쟁에 떨기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나라를 반대하는 폭동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었다.

당나라 침략자들이 고구려사람들을 통우요, 사천이요 하면서 미개적 황야에 강제로 끌고간것은 그들이 가고파서 간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간것이며 그것도 노예로 사역하기 위한데 있었지 같은 동족을 위한 조치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제이주시킨 것이었다. 그것을 고구려사람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도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그런데 일부 문지들을 연남생, 고선지, 리정기 등이 전기에까지 올라있어 당나라의 《통일대업》에 공적을 세웠다고 취주었다. 그들은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당한것을 잘못된것으로 찬미까지 하고있는것이다. 연남생(연개소문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훈을 지키지 않고 침략자에게 투항변절한 인물로서 고구려와 전체 조선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적중의 특등역적으로 지탄받고있다. 연남생의 아들 현성은 중국에 귀화한 다음 죄물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여 교살당하였다. 이러한 역적 연남생과 그 밖의 몇몇 인물들을 놓고 전체 고구려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적들에게 투항변절한 역적 몇명이 중국력사기록의 전기에 올라 있다고 하여 고구려가 멸망한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고구려유민들이 당나라의

침략을 감수하였다고 단정하는것은 과학적논리가 없는 결론이다. 고선지는 틀
짜치고 리정기에 대하여 말한다 해도 그가 그렇게 당나라에 그닥 호의적이지
못하였다는것이 역사자료에 역력하다.

리정기(李正己)는 안록산의 란을 평정하는데서 큰 공을 세워 치창변진의
절도사가 되었다. 그는 치창변진이 있던 산동성일대를 완전히 자기의 세력권
으로 만들고 당나라와 별도로 제도와 법을 시행하고 독립왕국처럼 행세하였
다. 리정기의 위세는 전지를 진동할 정도였다. 리정기는 발해와는 해마다 사신
거배를 가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모름지기 리정기는 발해를 같은
고구려유민으로 인정하였기때문에 그랬던것이였다.

리정기사망후는 그의 아들 리납, 리납이후는 그 아들 리사고, 리사고가
죽은 다음에는 리사도가 산동성일대를 완전히 타고있었다.

리납은 산동일대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선포하고 나라이름을 재(齊)라고
하였고 문무백관까지 임명하였다. 이렇게 리정기와 그의 후손들이 치창변진의
절도사가 된 다음 55년동안 고구려유민의 후손들이 산동일대를 완전한 독립
국으로 만들고 당나라에 대항하면서 살았다. 물론 그들을 후고구려니 뭐니 할
수 없다해도 일부 문자들이 말하듯이 전기에 있다고 해서 자기나라의 《통일
위업》에 이바지한 인물로 볼수 없으며 당나라에 협조적이였다고 평가할수는
없는것이다.

13.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천문평싸움에서 승리한 고구려유민들은 동쪽으로 더 진격하여 부이평
산줄기의 동쪽기슭 동모산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였다. 그곳에는 오동성자리가
있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가의 창건에 대하여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모여 북으로 태백산아래에 의거하여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신라고기》에는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이 남은 군사들을 모아 백두산남쪽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고려사》(세가)에도 《당나라 측천무후때 고구려사람 대조영이 료동을 확보하고 발해국을 세워 부여, 속신 등 10여개국을 합쳤다.》고 하였고 리승휴도 《제왕운기》에서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 남성(오늘의 남작성)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발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였다. 중국의 정사 《구당서》에도 발해의 건국시조 대조영은 《본시 고려(고구려)의 별종이다.》 또는 《대조영은 날래고 용맹하여 군사를 잘 써서 말갈이나 고구려의 유민들을 점차 귀속하였다.》고 하였다. 11세기 송나라시기에 편찬된 《적부원기》에도 발해진국은 《본시 고려(고구려)》라고 밝혔고 신라말기의 대학자인 최치원도 당나라에 가서 쓴 자기의 글에서 발해를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료동을 굽어모아 북으로 태백산(백두산)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발해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자기를 의연 고구려사람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일본에 파견된 발해사신의 국서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발해왕들은 자기를 《고려(고구려)국왕 아무개》로 칭하였고 일본국왕은 답례국서에서 《고려국왕 ×××앞》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 발해에 파견되는 사신은 《건고려사》 즉 《고려(고구려)에 파견되는 사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륙국사》의 하나인 《속일본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있다.

특히 8세기 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20여년간 발해는 고려라는 국호를 즐겨 사용하면서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표방하였다.

만약 일부 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구려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다.》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며 저들을 고려(고구려)국가라고도 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발해국창건은 고구려사람들이 당나라 침략을 극도로 미워하면서 격렬하게 벌인 저항운동의 산물이며 발해사람들이 표방한 고려국의 호칭은 바로 저들이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수십만명의 발해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고려에 넘어온 것은 발해사람들이 고려사람들과 동족이었고 거란이나 송나라가 이질적인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사람들은 물론 리조시기에 와서도 벽대로 조선사람들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조선의 나라 조선의 땅으로 간주해왔다. 실례로 실학자의 한 사람인 류득공(1748년-?)은 규장각의 검서로 있으면서 규장각에 소장된 국내외의 많은 책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발해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입장을 발견하고 《발해고》를 집필하였다. 류득공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발해의 땅은 고구려의 땅이다...그런데 결국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서 도문강북쪽과 압록강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수 없게 되었다.》, 《고려가 남쪽으로 김씨(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땅을 전부 차지하였지만 북쪽으로 대씨(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전부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때 응당 시급히 발해사를 편찬하여 발해는 고구려의 땅이라고 하면서 수복하게 하였던다면 발해의 땅을 차지할수 있었을 것이었는데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게 되었고 고려가 약한 나라로 되게 된 것도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개탄하였다. 이렇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의 면모를 후세에까지 남기었던 것이다.

14.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일부 론자들은 고구려 역사를 조선 역사에서 빼내기 위하여 고구려를 계

승한 고려를 신라에서 나온것으로, 고씨고구려와 왕씨고려는 전혀 무관계한 나라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여러 《문거》를 내놓았다. 그들의 《문거》란 첫째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고려의 건국까지는 250여년간의 긴 시간적공간이 있었다는것, 둘째로, 고려는 《삼한》에서 나왔다는 여러 기록이 있다는것, 셋째로, 왕씨고려는 고씨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며 고려태조 왕건은 락랑군에 있던 한족의 후예라는것, 넷째로, 《송사》, 《료사》, 《금사》, 《원사》, 《명사》 등의 기록에 착오가 생겼는데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한 역사기록은 《착오》라는것 등이다. 이러한 《문거》란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으로서 일축하고도 남음이 있는것들이다. 일부 문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고조선도 한족이 세운 나라이고 고구려도 한족의 소수민족 국가이며 발해 역시 한족의 지방에속국가로 된다. 심지어 고려도 한족의 후예라고 하니 결국 조선이라 신탁만이 남는셈이다. 그나마 신탁에는 일본 아미또정권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하니 조선력사에는 리조만이 남게 된다. 대대손손 3대대첩의 첫 명장으로 일러온 을지문덕장군이 하루밤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둔갑하게 된것이다.

이래에 일부 문자들의 고려력사에 대한황당무계한 견해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하겠다.

일부 문자들은 고려가 고구려와의 계승관계가 없고 향자는 서로가 무관계한것으로 되어야 조선력사에서 고구려사를 빼낼수 있다고 보면서 고려의 정통성을 무시말살하기 위해 급급하면 나머지 고구려멸망이후 고려의 건국사이에 250여년이라는 시간공간적차이가 있는것을 하나의 《문거》로 들고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거》로도 될수 없다.

민족의 정통성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다 하더라도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고구려의 넘과 기상을 이은 고구려의 후손들이 고구려를 복구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일떠세운것은 뿔뿔하며 자랑스러운 일이 될뿐 외국력사자들이 오늘의

견지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문제로는 될수 없다. 고구려가 멸망한지 10년이 되어 복구되어야 그 나라의 민족정통이 살아나고 100년, 200년후에 복구되면 역사적계승성이 없어지고 그 나라를 계승하였다고 말할수 없다는것은 어부성설이다. 견원은 백제를 복구한다고 250년후에 후백제를 세웠고 궁에는 고구려를 복구한다고 하면서 고려-후고구려(마진 배봉)를 세웠는데 그러면 이들도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지 오래되었기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를 계승하였다고 말할수 없다는것으로 된다. 이 론거대로 한다면 세계 대다수나라 역사도 계승성이 없는것으로 된다.

중국력사만 놓고보아도 한족과 북방이민족들이 뒤범벅이 되면서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5호 16국, 5대 10국의 난장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 중국력사의 계승성이 없이 제멋대로 놀아난것이며 또한 왕조의 혈통이 다르기때문에 중국력사에 속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농고불 때 조선사람들이 자기 민족력사에 존재하였던 아무 나라를 계승하였다면 계승한것이지 거기에 250년간의 시간은 전혀 무관한것이다. 문제는 역사적계승성에 있는것이지 결코 왕조간의 성씨나 시간이 론거로 될수 없는것이다. 궁에는 명백히 처음 송악군(개성)에 수도를 옮긴 다음 901년 고려(고구려 또는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후 또다시 국호를 904년에 마진으로 고쳤던것이다. 궁에가 세운 나라는 《삼국유사》(왕력편)에 명문으로 후고구려라고 밝혀져있는 나라로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하여 고구려 또는 후고구려라고 한것이다. 왕건은 바로 궁에의 신하로서 고구려를 계승하였던것이다.

다음으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고 역사자료에 《삼한》을 계승하였다는 자료가 있기때문에 고려는 신라에서 일어났다고 한 궤변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것이다.

일부 론자들은 고려가 《삼한》을 이었다고 하면서 고려가 신라에서 나

왔다고 단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지들은 조선력사에서는 초보적인 상식으로 되어있는 《삼한》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 알고있으며 사료연구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빨리 결론부터 내린것이다.

《삼한》이라는 개념은 시기마다 다르다. 처음에는 한강이남의 고대국가인 진국태내에 발생하였던 마한, 변한, 진한의 세개의 소국을 가리키는 말이 중국력사책인 《삼국지》나 《한서》 등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삼국시기 구체적으로는 7세기에 이르러 《삼한》이라는 개념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전화되었다. 물론 삼국을 《삼한》이라고 부르는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더우기 거기에 그 어떤 정통성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보았다.

《삼한》이라는 말은 때와 장소, 시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쓰이였다. 어떤 때는 한강이남일대를 가리키는 지역적개념으로 쓰일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조선반도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었으며 또 어떤 경우는 고구려의 옛 땅을 포함한 옛 조선민족의 거류지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적개념으로도 쓰이였다. 이것을 고래태조왕건의 경우를 놓고보면 잘 알수 있다.

일부 문지들은 왕건이 《삼한》을 계승하였기때문에 고구려와 무관계하며 또 고려의 주민구성이 삼한(신라)이 위주가 되었기때문에 고구려와 무관계하다고 썼다. 이것 역시 고려건국의 역사적경위를 무시한 주장이며 《삼한》에 대한 옳바른 개념이 없이 함부로 결론을 내린 잘못된 판단이다.

왕건은 열가지 《훈요》중의 다섯번째로 《집이 삼한산천의 도움으로 대업을 이룩하였는데 서경(평양)은 수력이 고르롭고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며 대업판대의 땅이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간달에 (역대)국왕들은 평양에서 100일이상 머무름으로써 국가안녕을 도모할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삼한》은 전체 조선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속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왕건이 말하는 《삼한》은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판도를 넘두에 두고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일부 문자들의 밑대로 한다 면 《삼한》이란 어디까지나 한강이남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왕건은 이 다섯번째 《훈요》에서 평양을 이주 중시하였다. 즉 평양이 바로 우리 나라(고려)의 근본으로서 후손만대의 행복을 이루는 땅이라고 강조 하였다. 이것은 평양이 고구려의 옛 수도였고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신라의 왕족으로 태어나면서도 버림을 받은 애꾸 는 궁에는 고구려를 회복한다는 정치적구호를 들고 민심을 얻어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가 제정한 년호인 《수덕만세》란 평양을 수도로 삼았던 고 구려의 복구를 նւն하여 세운 년호였다.

수덕은 곧 평양의 《땅기운》을 가리킨다. 폭군으로 화한 궁예를 내쫓고 왕자리에 올랐은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려(고구려)라고 하였고 년호를 《천 수》라고 제정하였는데 그 뜻을 맡그대로 하늘이 준 나라라는것이였다.

왕건이 평양을 얼마나 중시하였고 고구려의 옛 강토를 회복하기 위해 어 렷게 관심을 돌리였는가를 살펴보면 이것을 더 잘 알수 있다.

왕건은 918년 6월 병진일에 포정전에서 즉위한 다음 얼마 못가서 9월 병진일에 사촌동생 왕식렴을 평양에 보내어 고구려의 옛 수도를 복구하도록 하였다. 고려정부는 황폐화되었던 평양을 대도호부로 승격시키고 황주, 봉산, 해주, 백주(배천), 엄주(연안)의 주민들을 평양으로 이주시키도록 하였다. 왕건 이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복구하기 위해 가장 신임하는 신하(사촌동생) 왕식렴을 평양에 파견한것은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개성으로 옮기기 전의 일이 었다. 여기서도 고려 태조 왕건의 고구려를 회복할 의지를 엿볼수 있다. 수도 를 개성으로 옮긴 그해(919년) 겨울에는 평양에 성을 쌓게 하였으며 922년(태 조 5년)에는 여러 군, 현의 양반자제들과 인민들을 옮겨 평양을 강화하였다.

왕건은 평양을 복구하는 조치를 여러모로 취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평양

에 행차하여 북방변경을 순행하면서 고구려 옛 강토를 회복할 의지를 가다듬었다. 왕건은 직접 평양에 행차하여 관청과 관리들을 임명한데 기초하여 이미 있던 성들을 더 축성보강하였다. (6년후에 완성) 925년(태조 8년)이후 926년, 928년, 930년, 932년, 934년, 935년 등 거의 해마다 평양에 행차하여 북쪽변경을 돌아보면서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등 여러 행사를 벌리었다. 932년에는 장차 평양에 수도를 완전히 옮길 뜻을 군신들에게 내비치기까지 하였다. 938년에는 평양에 라성을 축성하였는데 947년에 태조의 뜻을 이은 정종은 왕성을 평양에 쌓는데 이어 아예 수도를 완전히 평양으로 옮길 집도리를 하면서 궁궐짓는 역사를 벌리기까지 하였다. (《고려사》 권2 정종 2년, 4년) 그후 광종은 960년에 개성을 황도로, 평양을 서도(西都)로 삼았다.

이렇듯 고려태조 왕건은 단순히 한강이남의 신라땅만을 병유할 쪼물썩한 생각을 한것이 아니라 옛 고구려땅까지도 회복할 큰 포부를 안고있었다. 그 령기때문에 그토록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고 왕성과 라성도 축성한것이며 자주 찾아가 원대한 포부를 실현코저 한것이다.

고려시기의 대판료(우정승)이며 문호였던 익재 리제현(1287년-1367년)은 자기의 글에서 충선왕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있다. 충선왕은 왕건의 포부에 대하여 《태조가 자주 서경(평양)을 순행하고 북쪽변경을 순찰한 그 뜻이 동평양(고구려)의 옛 땅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이를 차지하려고 한것이다. 결코 닭(신라)이나 오리(후백제)를 잡는데만 머무르는것이 아니었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밑하자면 고려 사람인 충선왕과 리제현은 고려태조 왕건을 신라땅이나 넘겨다볼 꺾죄한 인물이 아니라 애당초 고구려의 옛 땅까지도 포함한 옛 삼국시기의 조선땅전체를 차지할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언한것이다.

15. 고려태조 왕건은 고구려유민의 후에

일부 론자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고려의 시조왕인 왕건을 터무니없이 한족의 후예로 날조하였다. 그들은 왕건이 《한4군》의 하나인 평양 락랑군의 한족후에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론리》를 전개해나갔다.

《한4군》은 압록강이남지역에 화본적도 없고 멀리 료동땅에 있었다. 그나마도 오래 존재하지 못하였다.

왕건이 한족의 후예라고 하는것은 왕건에 관한 조보적인 사료마저도 보지 않고 내린 억측으로서 과오가운데서도 가장 큰 과오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왕건의 조상은 백두산에서 왔다고 하였다.

《고려사》에 실린 김판의의 《편년통목》에 의하면 《성골장군》이라고 자처하던 호경이라는 장수가 백두산을 두루 편렵하다가 부소산(송악-개성)에 이르러 터를 잡았다고 하였다. 당시 백두산은 고구려를 상징하는 팔이었다. 최치원 등의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백두산아래에 모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것이나 묘청이 평양의 팔성당에 《백두구태선인》 등을 받든것은 다 백두산(태백산)이 고구려를 상징하는 팔이었기때문이다.

백두산은 한반도 신라의 영역이 되어본적이 없다. 백두산으로 상징되는 고구려의 장수 한명이 고구려멸망이후 남하하여 개성일대에 자리를 옮기고 그곳 토배기녀자에게 장기들어 토호가 되었다. 이것이 《고려사》에 실린 고려의 창시자 왕건의 조상계보이야기이다.

일부 론자들은 왕건이 《훈요》에서 자기가 고씨의 후손이라고 찍어 팔하지 않았기때문에 고려왕씨는 고구려의 계승자가 될수 없다는 괴이한 론리를 내뿜두르는데 왕건의 조상이 고구려왕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구려의 장군 또는 귀족이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들은 고구려를 계승할수 있는것이다.

왕씨를 한족가운데서 찾지 않아도 고구려에는 왕산악과 같은 고구려의 고위귀족들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올라있다.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고 보통 평백성의 출신이라 해도 고구려사람의 후손이면 고구려를 계승할수 있는것이다. 궁예처럼 신라왕족출신이라도 같은 조선사람이었기때문에 고구려를 회복(계승)한다고 했거늘 《백두산에서 온 인물》이 고구려사람이 될수 없다는 리 유로는 될수 없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호경과 그의 후손들이 백발백중의 활쏘기 솜씨를 가졌다고 한것도 고구려사람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주고있다. 왕건의 조상인 호경을 《성골장군》으로 부른것도 왕건의 조상에 대하여 기록한 신라사람들이 저들의 판습에 따라 높은 문벌출신이라는것을 《성골》(신라골품제에서 맨 옷자락)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건이 고구려사람의 후예였음을 왕건의 아버지 세조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조는 궁예에게 《대왕이 만약 조선과 속신, 변한땅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먼저 송악(개성)에 성을 쌓고 나의 말아들로 하여금 그 성주로 삼아야 합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이란 료동반도를 포함한 북부조선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며 속신은 동북부만주일대, 변한은 한강이남의 고대국가시기의 삼한땅을 상징적으로 부른 말이다. 말하자면 옛 삼국시기의 전체 조선땅을 가리킨것이였다. 여기서도 명백한것처럼 세조와 왕건부자는 애당초 고구려 옛 땅까지도 포함한 삼국시기의 옛 조선땅 전체를 통합할 포부를 안고있었던것이다.

왕건부자가 안고있던 포부는 벽대로 내려온 희망이며 숙원이었다고 보아진다. 그렇기때문에 왕건은 임금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복구하고 자신도 직접 행차하면서 북쪽변경을 순행한것이다. 그가 거기서 산천에 자주 제사를 지낸것은 고구려조상들의 망령을 위로하고 옛 땅을 찾기를 념원해서였던것이다. 하지만 호경이태로 왕건부자가 념원하던 고구려 옛 땅의 회복은 거란에 의한 발해의 멸망과 그 일대를 타고앉은 거란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갓 건국한 고려는 남으로 후백제와 신라가 있는 조건에서 대규모군사를 일으킬수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거례의 나라 발해의 멸망을 막을수 없었다. 그 대신 수십만명이 발해유민들을 동족으로 맞이하여 받아들였다.

왕건의 《10훈요》에 거란의 풍속과 의관제도를 일체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난것이다.

이에 앞서 942년 거란사신이 락타 50필을 보내왔을 때 사신 30명은 첨에 귀양보내고 락타는 만부교야락에서 굶겨 죽이게 함으로써 만부교가 락타교로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명백히 왕건은 고구려사람의 후손이었다. 그것은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원력대왕)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고려(고구려)사람》이라고 명백히 짚어 말한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사》 고려세계) 그밖에도 《고려사》 왕세계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것은 여러 연구자료에 탄탄하다. 왕건이 고구려의 후손이었기때문에 후당의 통치배들도 왕건을 두고 정식 국서에서 《상서로운 고주몽의 국가창건의 모범을 계승하여 저(고려땅)의 군장(국왕)이 되었다.》(《고려사》 권2 태조 16년 3월 신사)라고 하였던것이다.

16. 고려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주민집단들로 구성된 나라

일부 문자들은 왕씨 고려의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라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고구려사람들은 멸망(668년)이후 대부분 다른 나라에 동화되었다고 횡설수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억측은 전혀 성립될수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고구려유민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백제와 신라사람들과 손을 잡고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반침략투쟁에 꺾기하였다. 신라사람들은 대동

강이남평을 저들에게 준다는 비밀협정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신라마저도 병합 하려는 당나라의 침략기도가 표면화되자 대경실색하여 늦게나마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손잡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 겹모잠은 안승을 내세워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다. 그후 더 남쪽으로 내려가 금마저에서 《보덕국》을 세워 보덕왕이 되었다. 겹모잠이 지휘하는 군사는 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규모가 컸다.

여기서 신라에 반입된 고구려사람들의 인구수에 대하여 따져본다면 후기신라시기의 신라장적에 올라있는 1호당 평균 가족수를 10명으로 본다면 안승이 거느리고 간 인원수는 4만명이 넘는다. 겹모잠이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그들의 가족들 또한 겹모잠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동강을 계선으로 그이배를 후기신라가 차지하였는데 한강과 대동강의 넓은 평양지대는 농업생산이 매우 발달한 지대로서 평활한 만주벌판 보다는 인구밀도가 썩 높았다. 이들도 신라의 판도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문자들이 추론하는 1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고구려사람들이 신라의 판도에 들어와 있었는셈이다. 하물며 대동강이남 한강이북의 넓은 농업지대공간에 정착해 살던 농민들은 전란이 끝나는대로 본고장에 돌아와 생업을 유지한 것만큼 그 인구수는 그리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막대한 인구가 대동강이남평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안승이 평양(대동강)과 한강 사이에 있는 재령(신원)에 고구려국을 재건한것은 이와 같은 고구려토착세력의 도움을 받은 데 기초하고있다.

다음으로 고려가 신라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다는것은 발해사람들의 대대적인 인구투입을 고려하지 않은그릇된 계산이다.

《고려사》에는 발해사람들의 대대적인 이주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권1 세가 태조 8년 9월조)에는 고구려사람 대조영이 발해국

을 세웠다고 하면서 발해국에는 《문자와 벼악, 관부제도가 있고 5경 15부 62주에 평역은 5천여리에 수십만의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대조영이 40만의 무리를 거느렸다고 하였다. 대조영의 둘째 아들 대문에는 형인 무왕 대무예의 지시로 흑수팔길을 치게 되자 《옛날 고구려는 강성할 때 강병 30만을 가지고 당나라와 대항하였는데..지금 우리 무리는 고구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의 지시를 거역하여 반역자가 되었다. 이 말은 발해의 군사가 고구려의 군사에 비하면 3분의 1 즉 10만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서 인구수 역시 고구려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발해사람들의 고려어로의 대대적인 이주는 크게 두 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1단계는 발해가 멸망한 다음 몇 년어간이며 2단계는 홍료국의 멸망과 관계된다.

먼저 발해사람들의 고려어로의 이주형편을 《고려사》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925년(태조 8년)

3월 발해장군 신력 등 500명이 들어왔다.

발해 배부경 대화군, 군로사정 대원군, 공부경 대복모, 좌우위장군 대심리 등이 백성 100호를 거느리고 왔다.

12월 발해 좌수위 소장 모두간, 검교개국납 박어 등이 백성 1,000호를 거느리고 왔다.

- 927년(태조 10년)

3월 발해 공부경 오홍 등 50명과 중 재응 등 60명이 왔다.

- 928년(태조 11년)

3월 발해사람 김신 등 60호가 들어왔다.

7월 발해사람 대유범이 백성을 거느리고 왔다.

9월 발해사람 은계종 등이 왔으므로 천덕전에서 만났다.

- 929년(태조 12년)

6월 발해사람 홍건 등이 20척의 배에 사람과 물건을 싣고 왔다.

9월 발해의 정근 등 300여명이 들어왔다.

- 934년(태조 17년)

7월 발해국의 세자 대평현이 수만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고려왕은 그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주고 왕실족보에 등록하였으며 원보의 벼슬 등급을 주고 백주(배천)를 식읍으로 정하였으며 또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가 데리고 온 관료들에게는 각각 해당하는 작위(벼슬과 벼슬등급)를 주고 군사들에게도 토지와 주박을 마련하여주었다.

12월 발해의 진림 등 160명이 들어왔다.

- 938년(태조 21년)

이해에 발해사람 박승이 3,000여호를 데리고 들어왔다.

2단계

- 979년(경종 4년)

이해에 발해사람 수만명이 들어왔다.

- 1030년(현종 21년)

5월 거란수군지휘사 호기위 대도 리경 등 6명이 들어왔다. 이때로부터 거란 발해사람들이 들어오는것이 심히 많이졌다.

10월 거란 해가, 발해백성 500여명이 들어왔다.

- 1031년(현종 22년)

3월 거란 발해백성 40여명이 들어왔다.

- 1031년(적종즉위년)

7월 발해 갑문군 대도 행랑 등 14명이 들어왔다.

발해 세군판관 고진상, 공목, 왕광록 등이 거란으로부터 직접(벼슬 임명장)을 가지고 왔다.

- 1032년(격종 1년)

1월 발해 사지, 명동 등 29명이 들어왔다.

이후 이듬해 12월까지 11번에 걸쳐 149명의 발해사람들이 들어왔다.

그후 문종 4년(1050년) 《발해의 개호 등이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나온 다음 발해사람들은 크게 눈에 띄우는 것이 없다.

제2단계에 발해사람들이 고려에 오게 된 것은 홍료국의 거사와 관계된다. 1029년(현종 20년) 9월 거란의 동경(요양)에서 발해국의 시조왕 대조영의 7대손인 장군 대연림이 거란의 폭압과 수탈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대연림은 발해유민들을 모아 홍료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대부승 고길력을 고려에 보내오면서 군사적지원을 요구해왔다. 홍료국의 거듭되는 군사적지원에 대한 요구는 그해 9월과 이듬해 1월에도 계속되었는데 고려는 여러가지 정치군사적정세를 타산하여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에서 본비와 같이 1030년 5월이후 발해사람들 가운데서 고려에 들어오는 사람이 급속히 많아지게 된 것이다. 발해유민들은 홍료국을 세워 발해국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하자 동쪽의 나라인 고려에로 넘어왔는데 그때 행동을 같이한 거란 사람들도 일부 오게 된 것이다.

979년 발해사람 수만명이 고려에로 오게 된 원인은 잘 알수 없다.

여기서 보는비와 같이 고려로 들어온 발해유민들은 발해왕조의 왕비자 대평현을 비롯하여 대귀족과 대신, 관료, 중, 군사, 백성 등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 있었다. 《고려사》의 세기에 기록된것은 한한것이고 분산적으로 이주해온 신분이 낮은 백성들을 별반 기록에 오를 수 없었다.

《고려실록》에 자세히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979년(경종 4년) 기사처럼

15세기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이하에 발해사람 수만명이 들어왔다.》고 적당하게 몰궂어 적을 때도 있었던것이다.

고려태조 왕건은 발해유민들을 말그대로 《진척》으로 맞이하였다. 발해국의 왕태자 대평현을 고려왕실족보에 등록한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이름도 고려라고 하고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을 수도로 삼으려한 왕건에게 있어서 자기들과 똑같이 고구려를 칭하던 발해를 한겨레로 맞이하지 못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발하는 말그대로 한겨레의 나라였기때문에 왕건은 발해의 원수도 깊은 겹 옛 고구려강토를 영유할 작전을 폈다. 안정복이 쓴 《동사강목》(6, 상)에는 송나라의 《속통전》에 실린 글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서역 중 말라카 천복 4년(939년)에 진나라의 소개로 고려에 왔는데 왕건은 벼를 갖추어 그를 마중하였다. 이때 태조 왕건은 중에게 말하기를 《발하는 본시 나의 친척나라이다. 그 나라 왕이 거란에 의해 포로가 되었으니 내가 공격하여 가지려고 한다. 스님은 돌아가서(진나라) 이 말을 진나라국왕(고조)에게 전달하여 때를 정하여 (협공하여 거란을) 쳐없애자.》고 하였다.

말라는 돌아가서 왕건의 말을 그 나라 임금에게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자치통감》[권285후진기 6, 제왕 하개운2년(945년)10월, 11월조 송백의 세주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왕건의 이 말에는 자기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것을 내외에 강하게 시사해준것이다.

발해사람들의 고려에로의 이동은 말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이었다.

《제왕운기》의 저자 리승휴는 발해유민의 고려이주를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고려에로 찾아왔다.》(舉國相率朝王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과장도 거짓말도 아니었다. 말그대로 온 나라가 고려에 찾아 온것이었는데 그 수자는 수십만명에 달하였다.

우에서 본 《고려사》의 자료에 오른것만 보어도 10여만명은 실히 된다.

고려의 제왕 최승로(927년-989년)는 발해의 멸망과 더불어 발해사람들이 수만호씩이나 고려에 넘어온데 대하여 밝혔다.(《고려사》 권93 최승로 열전)

안정복(1712년-1791년)도 자기가 쓴 글인 《동사강목》(5, 하)에서 고려에 넘어온 발해유민들을 《수만호》라고 하였다.

여기서 명백히 하고 넘어갈것은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발해사람들을 녀진사람 및 말갈사람과 명백히 구분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고려사》에는 발해사람들뿐 아니라 말갈사람과 거란사람, 해사람 그리고 녀진사람들의 《귀화》까지도 적었는데 이때에도 동녀진과 서녀진까지 확연히 구분하면서 발해사람을 따로 명백히 밝혀놓았다. 이 발해사람이란 본래는 고구려사람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다시말하여 민족별로는 거란이나 녀진, 해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수십만의 발해유민들은 대부분 서북지방, 오늘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일대, 황해도일대에 정착하였다.

거란에 대한 중오심이 강하였던 발해유민들이 반거란투쟁에서 한몫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중령장 대도수는 발해왕족의 후손으로서 993년 거란의 제1차침입때 청천강계선의 안용진에서 적을 격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1010년 거란의 2차침입시 곡주(곡산방어전투때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대장군 대희덕 역시 발해유민이었다.

발해국을 일떠세운 고구려유민들의 수가 수십만(40만명-《고려도경》)이었고 발해가 망하면서 많은 발해사람들이 고려에 넘어왔으며 또 일부 대연령과 같이 거란(료)을 협조하면 발해유민들도 흥료국의 거사를 전후한 시기에 고려에로의 또 한차례의 대규모이동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발해를 건국한 대부분의 고구려 사람들과 그 후예들은 고려사람이 되었다. 고구려멸망시 수

십만명의 주민들이 신라의 영역에 이주하였거나 그 일대에 살았다. 따라서 주민구성으로 본다면 고려가 신라사람들로만 구성되어있었다거나 고구려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자료를 무시한 잘못된 견해이다.

대동강이남지역에 살한 고구려유민들이 정착해있었기 때문에 후기신라 말기에 신라왕족출신인 궁예가 《고구려의 복수》를 위한다는 정치적구호를 들고 《수력만세》니 뭐니 하는 년호를 제정하자 그곳 주민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게 된것이다. 궁예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태봉》, 《후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세울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대동강과 한강이북사이에 고구려유민들이 대량적으로 살지 않았다더라면, 다시말하여 신라사람들만 있었다라면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는 정치적구호가 환영을 받을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고려중엽에 《묘청의 란》이라고 하는 폭동이 평양에서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자강도일대까지를 휩쓰는 대규모 농민전쟁으로까지 번졌는데 여기서 기본은 고구려의 전통을 고수하며 사대주의를 하지 말고 고려왕을 황제로 칭하며 수도를 완전히 평양에 옮기자는것이였다. 고려의 서북지방에 고구려사람들의 전통을 계승한 고구려유민들의 후손들이 하나의 큰 주민세력을 이루었기때문에 신라왕족출신의 김부식형제들을 반대하는 대규모폭동을 일으킬수 있었던것이다.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평안도는 오래동안 고구려유습을 이어받아 상무기풍이 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고구려유민들의 자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기풍이였다. 역사적사실은 고려는 주민구성상에서 볼 때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야포함)를 포함한 나라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신라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렇듯 고려령내 특히 중부조선일대에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수많이 살고있었기때문에 고려는 존재 전기간 신라적인 요소들이나 지향보다도 고구려

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였다. 단적인 실례로 태조왕건의 지향대로 고려는 마지막 때까지도 고구려 옛 땅을 찾으려는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러차례에 룡동공격군의 룡동진출이 그것을 입증해주고있다. 1370년 11월 상원수 지룡수는 의주에 배다리를 놓고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의 잔여세력들을 구축하면서 룡성을 함락시켰다.

그때 고려군은 룡심지역 사람들에게 포고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료심은 본서 우리 나라(고려)의 지경으로서 이곳 백성은 우리 백성이다. 이제 의로운 군사들이 들어닥쳐 안무하려고 한다.》고 밝혀져 있다.(《고려사》 권114 별전 지룡수) 그리고 같은해에 도평의사사(내각)와 강계만호부에서는 각각 방을 붙여 《료심지역은 원래 본국(고려)지경》이라면서 이 지방 주민들에게 속히 고려에 귀속할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우리 나라》라고 하는것은 옛 고구려를 가리키며 또한 당시로서는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를 넘두에 둔 개념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명실공히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고려사람들이 고구려의 옛 강토를 찾을 생각을 한지도 잊지 않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리념상으로부터 아니라 주민구성에서도 고구려사람들의 후예들이 고려의 영역내에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객관적사실의 반영이다.

17. 고려는 내외사기들이 인정한 고구려의 계승국

고려사람들은 일관하게 자기들을 고구려사람들의 후손이며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가식도 허위도 아니었다. 역사연구의 필수불가결의 객관적조건은 사료이다. 사료가 없이는 역사를 과학적으로 논할수 없다. 해당 나라의 역사에서 그 나라의 사료를 첫번째로 꼽는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고려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나라인 고려를 어떻게 보고있었는가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93년 거란이 수십만 침략군을 내몰아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서희는 중군사로서 적 대군이 우글거리는 적진에 들어가 위풍당당하게 강화담판을 진행하였다.

그때 적장소손녕은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우리가 가졌는데 너희 고려가 우리 땅을 침착하고 있다.》고 지껄었다. 이에 대하여 서희는 《아니다! 우리 나라(고려)는 곧 고구려를 회복(계승)한 나라이다. 따라서 국호를 고려(고구려)라고 하였고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만약 지경을 가지고 논한다면 동경(표양)은 모두 우리의 지경인데 어찌 땅을 침착하였다고 하였는가.》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다. 적장소손녕은 서희의 사리정연한 대답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만 물러서고 말았다.

당시 서희는 내사시랑의 벼슬을 가진 고려정부의 재상이었다. 송나라에도 사신으로 가서 외교활동을 벌이는 중 고려국가를 대표하는 고위관료인 그가 한 발언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발언이었다. 그가 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한것은 고려의 공식적인 성명이나 다름이 없었다. 반대로 《고려가 신라에서 일어났다.》고 한 말은 침략자들이 꾸며 만든 궤변이며 침략적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침략자들이 아무때 어디서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한 적당한 구실을 꾸며 만든다는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일부 문자들이 서희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한것이 뭔가 착각을 하였고 《고려가 신라에서 나왔다.》고 한 침략괴수의 궤변을 옳다고 한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견해로밖에 될수 없다. 《고려사》와 같은 명명백백한 역사자료가 있는 조건에서 역사적사실 자체가 외곡될수는 없는것이다.

리규보 역시 고려가 고구려시조왕 동명왕의 후손이라는것을 긍지높여 노래하였다.

리규보(1168년-1241년)는 당대에 널리 알려진 문호이며 봉건정부의 수위에 있었던 대관료였다. 그는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그것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밝혔다. 즉 《세상에는 동명왕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오는데 지어 보통농부나 동네아녀저들도 자못 동명왕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말하곤 한다. 그래서 《위서》와 《통잔》 등의 기사를 읽었는데 소략해서 상세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리규보가 25살때인) 계축년(1193년) 4월 《구삼국사》를 얻어보고 동명왕본기를 보게 되었다. (리규보는) 그 신기한 대를 이어 전해오는 사적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괴이하고 이상한 도깨비이야기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삼복탐미를 거듭한 끝에 점점 그 심원한 근원을 알게 되니 도깨비나 환영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더니 하물며 국사(國史)직필의 책이니 어찌 망녕된 것을 전하겠는가.》고 하면서《동명왕의 력사는 신기한 일들이지만 실은 국가창건의 신성한 력사이니 이것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후대들은 장차 무엇을 본단 말인가. 때문에 시를 지어 새기는 것이니 그 까닭은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본시부터 정인의 나라였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고려의 대관료뿐 아니라 고려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명왕의 출생과 국가창건의 력사적사적을 다 알고있었다. 그것은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창건이야기가 저들의 조상이야기이고 바로 고려사람들이 너나 할것없이 상하일치하게 저들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진실은 부정할수도 외면할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사람들은 자기들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여기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신라사람들이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구삼국사》이래로 김부식의《삼국사기》와 일연의《삼국유사》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력사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만약 일부 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구려 력사가 다른 나라의 력사로 된

다면 고구려의 역사를 밝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한족이나 만족이 소유하고 전하였어야 할 것이다. 고려사람들은 고구려의 시조왕 고주몽(동명왕)을 저들의 조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단군과 함께 평양승인전과 승평전에 단군과 동명왕을 민족의 제사신으로 정성껏 제사를 지내왔고 단군릉과 함께 고주몽의 무덤인 동명왕릉도 사시절 제사를 지내고 잘 관리해온 것이다. 역사기록에 1017년(현종 8년) 12월 고려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왕의릉묘들을 각기 소재지의 주현들에서 잘 수축관리할데 대한 지시를 내리었는데 거기에는 이릉묘들 주변에서 벌초를 하거나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릉묘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상하인원을 막론하고 밭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고려사》권4세가 현종 8년 이것은 명실공히 고려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너들의 조상으로 알고있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로 된다. 나아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선역사의 주요한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그것을 자타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 구《오대사》를 비롯한 여러 역사책들에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명문으로 밝힌 것이다. 가령 《송사》(원나라 탈탈 등의 편찬는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권487 외국3 고려)라고 밝히었다.

송나라는 960년부터 1279년까지 300여년간 존재한 나라로서 당시 고려와의 분쟁은 별반없었고 두 나라는 서로 아주 가까운 나라로 사귀었다. 이 기간 고려가 송나라에 파견한 사신들의 회수는 30회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송나라에서 무역거래차로 상인들이 고려에 온 회수는 《고려사》에 밝혀진 것만 해도 160회나 된다. 그리고 1020년부터 1100년까지의 80년간에 고려에 찾아온 송나라 상인들의 인원수는 《고려사》의 기록에 보이는 것만 해도 80여차례에 근 4,000여명이나 된다.

고려는 송나라와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있었다. 특히 송나라는 북쪽에 거란 그리고 금(여진)과 대치한 조건

에서 고려와 편대하여 한때 거란과 금을 협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긴밀한 과정에 송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고려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 고려의 건국과정에 대한 건문을 얻어듣고 그것을 자기의 책들에 남기었다. 그러한 건문에 기초한 지식이 바로 《송사》(고려전)나 《전화봉사고려도경》등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고려도경》은 1123(고려 인종원년, 송나라 휘종 전화 5년) 송나라 사람 서공(1091년-1153년)이 국신사급사중 로윤적의 제할관으로서 고려에 왔을 때 보고듣고 느낀 건문과 소감을 적은 책이다. 서공은 책에서 고구려국가장건에 대하여 《이제 삼가 여러 역사책들을 참고하여(고려의) 역대 왕들을 서술하여 〈건국기〉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서공은 《건국기》에서 고려조상들의 역사를 기차로부터 고구려-발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로 개괄하였다. 여기서 서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한 것이 고구려역사였다. 서공은 《고려건국기》에서 백제, 신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고구려의 역사만을 많은 분량에 할당하여 서술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음을 강조하였다. 즉 서공은 고구려의 건국설화로서의 동명왕의 출생과 활동에 대하여 개괄한 다음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40만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계루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계루는 고구려의 계루부로서 고구려를 상징하였다. 이어 서공은 《왕씨》라는 항목에서 《왕씨의 조상은 대대로 고려(고구려)의 대족이다. 고씨의 정치가 쇠해지면서 나라사람들이 어진 사람을 내세워 드디어 군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구려에 왕산악과 같은 재상이 있었기때문에 왕건가문은 고구려의 왕씨가문의 후예일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서공의 필법과 《송사》(고려전)의 필법을 보면 서로 공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같은 하나의 나라 안에서 처음 고씨가 왕통을 계승하다가 나중에 왕씨가 선것처럼 되어있는 《구오대사》(권138 외국벌전고려전)의 내용

과도 비슷하다.

알려져있는것처럼 고구려와 고려는 존재한 역사적 시기가 서로 다르다.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고 고려는 918년에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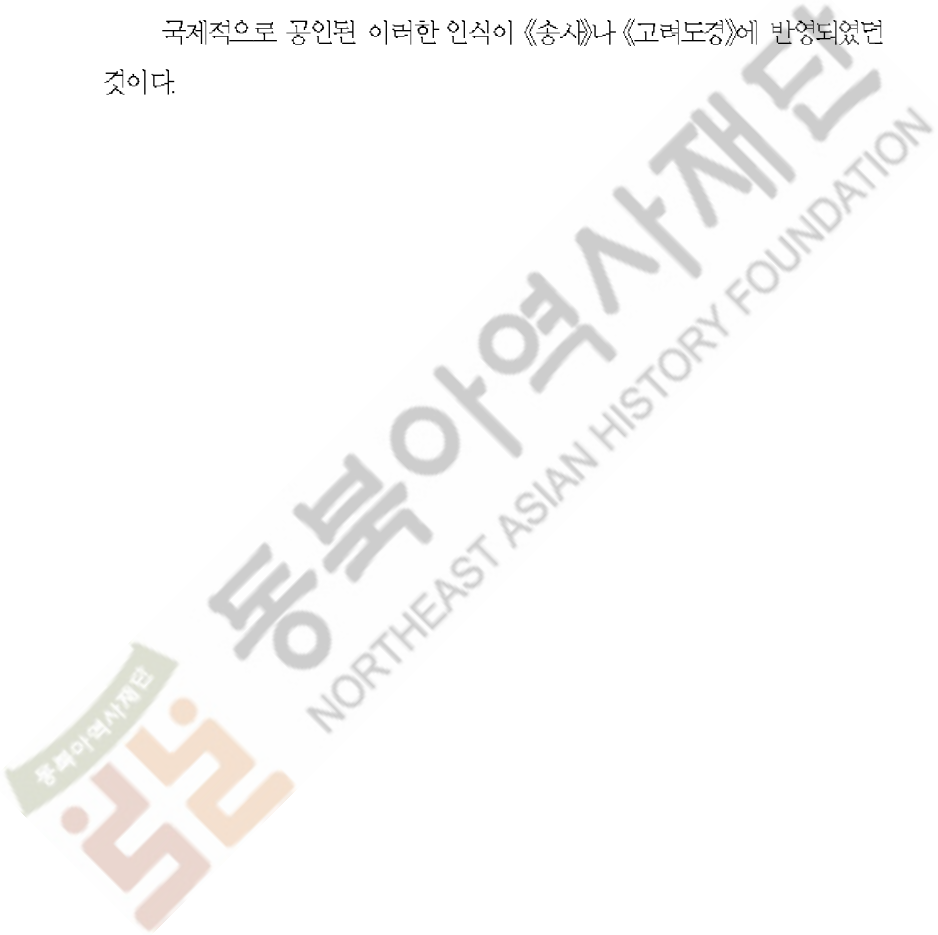
량은 250년간의 시공간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긍의 《고려도경》과 《송사》(고려전)는 하나의 같은 나라안에서 고씨와 왕씨가 교체된듯이 써놓았다. 이렇게 된것은 바로 고구려와 고려가 같은 나라로 인정되고있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외국사람들은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같은 한나라로 인정하고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름지기 그것은 고려사람들이 이웃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였기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서긍의《고려도경》을 비롯한 고씨와 왕씨에 관한 기사내용은 당시로서는 맞는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려사람들은 고려를 고구려의 국가로, 고구려의 연장선, 계승선에서 보았기때문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실을 놓고 이야기할수 있다. 《고려도경》이나 《송사》(고려전) 등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만 생각해서 시공간적차이를 밝혀놓지 않았다. 이런데로부터 일정한 혼란이 생긴것이다.

고려사람들은 자기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고구려사람으로 자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서화는 궁지높이 외국(거란)의 고위급관료(적장)앞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회복)한 나라라고 당당하게 선언한것이며 리규보 역시 동명왕 전설을 고를시에 담으면서 《우리 나라는 성인의 나라》라고 하였던것이다. 14세기말 고려의 최고관료직과 병권을 틀어쥐었던 최영은 《당 태종이 우리 나라(본국)를 칠적에 우리 나라(본국)는 승병3만을 동원시켜 격퇴하였다.》《고려사》(최영열전)고하였다. 최영의 이 말에는 고구려와 고려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있음을 알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여 고구려와 고려는 일체로서 시공간적차이를 초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사람들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인식이었다. 후날 원나라를 세운 구비라이

(세조)는 《백지출륙》으로 몽골을 찾아간 왕전(원종)을 만나보고는 《고려는 만리면밖에 있는 나라로서 당 태종이 친히 쳐들어갔으나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세자가 스스로 찾아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다.》(《고려사》세가원종 원년)라고 밀하였다. 여기서도 고구려와 고려는 하나의 나라로 취급되어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러한 인식이 《송사》나 《고려도경》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

강세원(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학사)

반만년에 걸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지난날 제일 강대한 나라는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의 침입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삼국의 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우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고구려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놓았으며 그 이후 조선역사발전에 큰 영향을 준 나라였다.

중세동방의 강대국으로서의 고구려의 역사는 여러역사책들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다른 역사적시대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관련한 역사 기록들가운데는 이러저러한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내포되어있고 지배계급과 그 어용사자들이 일정한 정치적목적밑에 역사적사실을 의도적으로 날조해놓은것도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 그자체를 완전히 거세할수는 없는것이다.

역사적사실들이 주로 문헌기록을 통하여 후세에 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역사자료 특히 문헌자료에 대한 고증을 잘하는것은 역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일부 연구자들속에서 지난 시기의 역사기록들에 대한 그릇된 분

적에 기초하여 고구려역사의 성격을 외곡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정사적가치를 가지는 내외의 역사기록들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을 기본으로 하여 고구려의 역사적지위를 밝혀보려고 한다.

문헌사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고구려의 역사적지위는 무엇보다도 고구려가조선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라는것이다.

우선 고구려의 역사발전과정을 전하고있는 문헌사료들은 모두 고구려를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그 지위를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헌기록은 《삼국사기》(1145년 편찬)이다.

고구려를 비롯하여 삼국시기의 역사를 담고있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인 《삼국사기》는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들가운데서 삼국시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하는 가장 오랜 책으로서 일종의 정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것처럼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서 그 저자인 김부식(1075년-1151년)은 자기의 계급적 및 사상적립장으로부터 세나라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옮겨놓은것이 적지 않으며 역사적사실을 사대주의적관점에서 분석평가한것도 많다. 더우기 그는 고구려를 깎아내리고 신라를 내세우면서 삼국시기의 우리 나라 역사를 신라중심으로 엮어놓았다.

그러한 그였지만 《삼국사기》의 앞부분에 본기를 설정하고 신라본기, 백제본기와 함께 고구려본기에 상당한 몫을 돌리고있다.¹⁾

1) 《삼국사기》는 당시의 전통적인 역사서술체계에 기전제를 받아들여 기, 표, 지, 전으로 분류되고있다. 전 50권으로 된 《삼국사기》의 권별구성을 보면 1~12권 신라본기, 13~22권 고구려본기, 23~28권 백제본기, 29~31권 년표, 32~40권 잡지, 41~50권 별전이다.

《삼국사기》권별구성체계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총28권으로 된 본기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부분은 10권으로서 신라본기에 비해서는 2권이 적고 백제본기에 비해서는 4권이 많다. 그 왕대수를 보면 고구려는 28대(실지는 33대), 백제는 31대, 신라는 56대로서 고구려와 신라의 왕대수는 2배나 차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본기에 전기와 후기를 다 합친 신라본기와 거의 맞먹는 권수를 할당했다는것은 삼국시기에 고구려가 차지하는 지위를 은연중 암시해주고있는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편 여기에는 《삼국사기》의 고구려건국년대(B. C. 37년)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것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²⁾

어쨌든 김부식이 《삼국사기》편찬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것은 고려사람들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가 사대주의사관에 밑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것을 고려할 때 설사 개별적인 사건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을수는 있어도 제멋대로 이른바 대국의 역사에 속하는 다른 민족의 역사를 통채로 《탈취》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위조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다른 나라의 문헌사료들을 보아도 고구려는 독자적인 나라로 취급되고있다.

고구려의 역사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하고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중국의 25사를 들수 있다. 25사는 중국의 역대 정통왕조들의 역사를 집대성하고있는 책으로서 여기에는 중국의 주요 정치들이 들어있다.

그가운데서 고구려가 존재할 당시 중국에 존재한 나라들의 역사기록들

2) 고구려의 건국년대에 대하여서는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79(1990)년, 46~57페이지, 《조선전사》(3) 주체80(1991)년, 23~31페이지, 《역사과학》 주체79(1990)년 1호, 39~45페이지

은 대부분이 멸전에 고구려전을 설정하고 그의 력사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³⁾

고구려전을 참고있는 25사를 일괄해서 보면 고구려전은 여러 나라와 지역 또는 종족과 함께 대체로 동이멸전부분에 위치하고있다.

《동이》는 고대중국인들이 동방의 여러 나라와 민족, 종족들을 가리켜 부르던 말로서 서용, 남만, 북적과 함께 중국과 구별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범칭이었다.

그것은 25사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고구려전을 실은 《삼국지》의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⁴⁾

《삼국지》(권30 위지 오환, 선비, 동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4이(고대중국의 주변에 있던 민족 및 종족에 대한 총칭)는 《모두 황복의 밖에 있어 중국이 관심할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동이는 《황역의 밖으로서 통역을 여러번 거쳐서야 이르며 사람의 발길과 수레가 미치는바가 못되어 그 나라 풍속의 차이를 이는것이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중국의 임금들은 《그곳이 너무 멀다고 하여 해외의 일로 맡겨버렸고 (공손연은) 동이를 가로막아 여러 중국나라들과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보이는 《황복》이나 《황역》이나 하는것은 중국의 변방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결국 《삼국지》에서는 고구려를 포함한 동이지역이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변방밖의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되고있다.

3) 《사기》로부터 《신당서》까지 17개의 25사 가운데서 《사기》와 《한서》는 조선전만 실고있는 반면에 《진(晉)서》, 《진(陣)서》, 《북제서》는 우리 나라 관계 멸전이 전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고구려전은 없다.

4) 력대 중국왕조들의 존립순서로 볼 때 고구려전을 실은 첫 25사는 《후한서》이지만 편찬년대로 보면 《후한서》는 남조시기 송나라의 범엽이 쓴것(5세기)이고 《삼국지》는 진나라의 진수가 쓴것(3세기)으로서 《삼국지》가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다.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책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삼국지》이래 25사편찬자들의 인식에 《동이》 구체적으로는 고구려를 비롯한 동방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는 관련이 없는 나라, 다시말하여 중국과 기원을 달리하는 다른 민족의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컨대 25사는 독자적인 나라로서의 고구려의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규정하고있다고 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인식을 명백히 하려는듯 당나라의 병호역분(583년-666년)은 《주서》에서 《동이》 대신에 《이역》 즉 《다른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있다.

이처럼 역대 중국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동방나라들을 중국의 병토로 인식한적이 없다. 있다면 고구려에 대한 침략시에 그 우두머리들이 《료동은 원배 중국것》이라고 표방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침략명분을 세우기 위해 내든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료동은 원배 중국것》이라고 표방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침략명분을 세우기 위해 내든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료동은 원배 중국것》이러는데 대하여 말하더라도 그것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일시 강점했던 사실을 정당화 하려는데서 나온 말이다.

고구려는그 성립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느 나라의 것이되어본적이 없다. 제반 사료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함께 명백히 우리 나라 삼국시기를 대표하는 조선민족의 독자적인 당당한 주권국가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성립과 주변지역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여러 문헌사료들의 기록들도 고구려가 다른 민족이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나 25사를 비롯한 많은 역사책들에 올라있는 고구려건국설화를 보면 고구려는 부여출신의 청년인 주몽이 동료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하여 남쪽의 졸본부여에 자리를 잡고 세운 나라였다.

전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성립의 터전으로 된 졸본부여는 일명 구려인데 이것은 부여, 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조선(전주선)에서 분리되어나간 우리 나라 고대국기들중의 하나였다.⁵⁾

고구려건국설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의 건국과정에서는 그 어떤 다른 민족에 의한 외부적요인을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주민의 이동이 있었다면 같은 민족내부에서 서로 다른 지방출신들의 배양과 결합이 있었을 따름이다.

일부 기록들에는 고구려의 기본주민을 두고 《백》 또는 《예백》 등으로 묘사되고있는데 여기에는 모순점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예》라거나 《백》이라거나 하는 따위의 명칭들은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것이라고 인정되고있다.⁶⁾

기록들에는 또한 성립초기 고구려주변의 주민들에 대하여 《부여》, 《옥저》, 《예》, 《한》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전하고있다.

그런데 《후한서》, 《삼국지》의 기록들은 이들이 모두 언어와 음식, 거처와 의복 등 법속이 대체로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고있다.

조선반도 중남부지역의 주민인 《한》에 대해 말한다면 백제, 신라가 고구려와 언어, 의복, 풍속 등이 대체로 같다고 한 《주서》, 《수서》 등 여러 문헌 및 고고학적자료들로 보아 역시 같은 겨레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겨레였기때문에 고구려출신의 온조세력이 마한지역으로 이동하여 쉽게 백제를 건국할수 있었고 조선유민들을 비롯한 북방의 이주민들이 진한지

5) 《고조선선력사개편》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8(1999)년, 58~72페이지

6)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79(1990)년, 57~60페이지

역에 정착하여 신리를 형성할수 있었던것이다. 《삼국사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세나라의 교섭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배는 그에 대한증시로 된다.

요컨대 그 명칭들이 어떠한지간에 그것은 다 고대조선족을 가리킨것임은 명백하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고구려가조선민족이 아닌 그 어느 이족국가의 외부적영향에 의하여 성립되었거나 그 제약을 받은 속국이 아니라 성립초기부터 독자성을 견지한 우리 민족의 주권국가로 역사무대에 등장하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역사에 출현한 고구려는 자기 존립의 전기간 천자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을 실시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발전로정을 새겨왔다.

그런데 지난 시기 고구려의 역사를 수록한 문헌자료들이 대부분 대국주의적 및 사대주의적사관에 물젖은 봉건사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다나니 강대한 고구려의 역사는 무참히 란도질당하였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감출수 없는법이다.

여러 자료들에서 엿볼수 있는 임금의 칭호, 년호의 제정과 사용, 제천의식의 거행 등 고구려임금의 황제적지위라든가 수백만에 달하는 이른바 대국의 군사적침공을 성과적으로 물리쳐 중세전쟁사에서 특기할 자리를 차지하는 고구려의 반침략조국방위투쟁은 고구려의 강대성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근 천년에 달하는 존립기간에 있어서 그리고 강대한 국력, 군사력에 있어서 중세 그 어느 나라도 견주기 어려운 수준에 있던 고구려가 존재기간도 얼마 안되는 나라에 종속된 《속국》, 《지방정권》이 될수 없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보이도 당연한것이다. 더우기 그런 나라가 《소수민족정권》이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세기에 세기를 이어 거듭된 고구려의 반침략투쟁은 고구려가 대외관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신속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고구려로 하여금 《기어이 신하로 칭하게 해서 스스로 존대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한 당 고조의 실토(《구당서》 고구려전)가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고구려가 조선민족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문헌사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고구려의 역사적지위는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정통국가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되어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반영하고있는 문헌자료로는 《송사》를 전후한 중국의 25사를 들수 있다. 그 가운데서 고구려-고려관계를 직접적으로 전한것은 《송사》로서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고 한것이 바로 그것이다.

《송사》는 고려전에서 《고려는 본래 고구려라고 한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고구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 다음 고려에 대한 기록을 이어나갔다. 이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고려는 마치 한개 나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그 중간부분에 서술된 기사의 내용이다. 그에 의하면 《당나라 말년에 중원에 사변이 많아지자 드디어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후당, 동광, 천성년간에 그 임금 고씨가 여러번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 그러면서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한 시기를 장흥년간(930~933년)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송사》의 기록대로 한다면 중국에서 내란이 많이 일어나던 당나라 말기 즉 9세기말~10세기초에 고려에서는 고씨성을 가진 입금이 나와서 920~930년에 후당과 여러차례 외교관계를 맺어오다가 930년대초에 이르러

왕건이 그뒤를 이은것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고려의 건국과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왕건이 918년에 후삼국의 분열상태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되는 통일국가인 고려를 세웠다는것은 《삼국사기》, 《고려사》와 같은 우리 나라의 정사들에 의해 확인되는 엄연한 역사적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사》의 저자는 고려의 건국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고씨입금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끼워넣음으로써 고려의 역사서술에서 착오를 범하였다.

《송사》 고려전의 이러한 착오는 후세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일정한 혼란을 가져오고있다. 심지어 그것은 당나라 말년에 고씨가 고려정권을 세웠다는 기록이 다른 역사책들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결부되어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는 기사도 무근거한것으로 밀어붙이면서 문제를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부정하는데로 끌여가는 견해까지 산생시켜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를 외면한 지나친 편견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

《송사》의 기록이 오류를 범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와 관련된 이외의 기사까지도 전면부정하는것은 사료에 대한 옳바른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문제는 역사기록들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오류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거기에서 역사적사실을 옳게 찾아내는데 있다.

《송사》 고려전에 고씨입금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실리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그 편찬자가 전시대외의 기록, 구체적으로는 《구오대사》의 기록을 부정확하게 옮겨놓은데 있다고 본다.⁷⁾

7) 고려전을 전하고있는 25사 가운데서 《송사》이전의것으로는 《구오대사》와 《

고려전에 고씨입금의 내용을 제일 먼저 기록한것은 《구오대사》이다.

《구오대사》(권138 외국열전) 고려전에서는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나라의 도읍은 평양성이다.》라는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의 지리적위치와 정치제도 등을 간단히 서술한 다음 이런 기사를 실고있다.

《당나라 말년에 이르러 중원에 사변이 많아지자 그 나라가 드디어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전왕의 성은 고씨이다. (후)당 동광, 천성년간에 여러번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열필 보면 이 기사는 《송사》에 실린 기사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쳐지날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구오대사》의 기사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명백히 《전왕의 성은 고씨이다.》로 기록되어있다. 이 기사내용을 음미해보면 당나라 말년 중국에서 내란이 많아지던 시기에 고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전의 왕은 고씨였다는것이다.

그러면 《구오대사》가 말한 그 이전 고씨성을 가진 입금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겠는가.

우에서 보았지만 《구오대사》 고려전의 앞부분은 고구려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것을 넘두에 들 때 고씨성을 가진 입금은 분명히 고구려의 입금을 가리킨것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그 편찬자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전 나라이지만 그 왕성은 서로 다르다는것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가설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다.

《구오대사》는 북송초기인 973년경에 설거정이 편찬한 책으로서 그 전시기 고려와 북송사이에는 여러차례의 사신교환이 있었다.⁸⁾ 그런데 《구오

신오대사》를 들수 있는데 기사의 내용상 《송사》는 《구오대사》의 고려전에 많이 의거했다고 볼수 있다.

8)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3년(962년), 14년(963년), 16년(965년), 23년(972년)

대사》가 편찬되기 바로 한해전인 972년에 고려에서는 내의시랑 서희를 송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서희로 말하면 그로부터 20년후인 993년에 거란군이 침입해왔을 때 능란한 언변으로 적장의 궤변을 꺾어버린 유명한 장군이다. 그때도 그는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성을 정당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하였다.⁹⁾

이렇게 놓고볼 때 결국 《구오대사》 고려전의 고씨 임금관련기사의 자료원천은 바로 서희를 비롯한 고려사신들의 왕태과정에 마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기사는 설거정이 자의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송사》의 편찬자는 《구오대사》의 고씨임금관련기사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다니 《전왕의 성은 고씨》라고 된 문구를 《그 임금 고씨》로 바꾸어놓고 그 위치를 후당 동광, 천성년간의 뒤로 가져감으로써 기사내용의 해석에서 큰 혼란을 가져왔다.

물론 《송사》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전제는 《신오대사》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 고려전에는 당나라 말년의 사건기사가 함축되고 《구오대사》의 《전왕의 성은 고씨》가 《그 왕의 성은 고씨》로 바뀌었다.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그것은 《신오대사》의 편찬자인 구양수가 고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게 된다.

《신오대사》 고려전을 보면 《그 나라의 평과 임금의 계보는 당서에 보인다.》고 했는가 하면 동광 원년(923년)의 사신판건기사뒤에 가서는 《그 나라 임금의 성과 이름은 력사에서 잃어버려 기록하지 못했다.》는 등 서로 모순되는 소리를 하고있다. 그러면서 장흥 3년(932년)에 왕건이 사신을 보내온데 대하여 전하고 있다.

9) 우와 같은 책 권94 별전 서희

한편 고구려전이 비교적 상세히 들어간 《신당서》도 구양수에 의해 편찬되었다고는 하지만 고구려전을 포함한 별전부분은 북송사람 송기가 쓴 것이다.

《신오대사》가 편찬되면 11세기 중엽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고 주로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많이 온 사실이 《고려사》에 반영되어 있다. 더우기 고려사신이 송나라에 간 것은 1030~1071년 기간에 단 한번도 없었다. 결국 《신오대사》 고려전의 편찬에는 고려사람들 자신의 견해가 직접 반영될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구양수는 고려뿐 아니라 고구려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오대사》 고려전편찬에 힘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로부터 《당나라 말년에 이르러 그 왕의 성은 고씨이다.》는 불완전한 기사를 남기고있고 또 고려와의 관계서술에 가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있는 것이다.¹⁰⁾

고씨임금과 관련하여 《신오대사》나 《송사》의 편찬자들이 정확치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기록을 남기고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는 제대로 전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오대사》 고려전의 이 부분기사는 고려사신들의 전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송사》의 편찬자인 탈탈은 원나라의 승상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영을 비롯한 고려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았다. 그런즉 《송사》에 나타나는 그의 고구려-고려관은 전혀 부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려사람들은 자신들을 고구려의 후

10) 《당서》이후의 25사카운데서 《신오대사》만은 구양수의 개인편찬으로서 비록 설거정의 《구오대사》에 의거했지만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에로 자처하고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기록에 의한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역사발전과정에 굳어진 관념이었다.

고려를 건국한 후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서경으로 고친 왕건은 말년에 남긴 《10훈요》의 다섯번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삼한산천의 신령스러운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 렷이 순조로와 우리 나라 지백의 근본이요 대업만대의 땅이다. 그러나 마땅히 사계절의 중간에 그곳으로 가서 백날이상 머무름으로써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¹¹⁾

여기서 왕건은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경(평양)을 《우리 나라지백의 근본》으로 《대업만대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왕건이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지위를 계승했다는것을 표명한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왕건이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하등의 근거도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화는 《우리 나라(고려-인용자)는 곧 고구려의 후예이다.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도읍을 평양으로 했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고려시기의 이름으로 학자이며 관료인 리제현(1287년-1367년)도 《우리 태조가 즉위한 후...지주 서도(평양-인용자)에 행차하여 친히 북쪽변방을 순찰하였는데 그 뜻은 역시 동평(양)의 옛 땅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1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4월

여기에 보이는 《삼한》은 원래 고대 조선반도중부이남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명칭이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차 백제, 신라뿐아니라 고구려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반드시 이를 소유하려는 것이었다.》고 썼다.¹²⁾

당시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였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933년 3월 후당은 고려에 파견한 사신을 통하여 왕건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전통을 이어 그곳의 임금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¹³⁾

결국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송사》고려전의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는 기사로 고착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구오대사》이후의 25사들은 고려를 외국벌전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 편찬자들이 고려의 전신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 등도 중국밖의 다른 나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고구려의 지위는 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비록 668년에 내부분열과 이에 뒤따른 신라-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지만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발해에 의해 그 지위가 계승되고 그것이 다시 고려로 이어짐으로써 조선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이처럼 고구려가 조선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이며 그 후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에 의해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는 것은 문헌사적으로도 뚜렷이 입증된다.

12) 《익재집》 권7 국사찬서

13) 《고려사》 권2 세기2 태조 16년 3월

기와를 통하여 본 삼국문화의 공통성

윤광수(사화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연구사, 학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인류 역사 발전의 려명기로부터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조선민족과 같이 일찍부터 한강토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민족은 없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 활동으로 이룩한 훌륭한 물질 문화적 부들가운데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것이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건축부재의 하나인 기와도 있다.

기와는 건물의 지붕우에 이어져 눈과 비물의 침수를 막고 바람과 추위, 더위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물을 치장하여 그 장식미와 위용을 높여주는 건축부재의 하나이다.

기와는 짐승기죽이나 나무껍질 그리고 짚이나 새초, 나무판자 같은 것들보다 훨씬 굳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잘 부식되지 않고 보수주기도 길어 여러 모로 편리한 점이 많았다. 기와의 사용은 오랜 기간 집을 짓고 지붕을 얹는 과정에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이룩되었다.

우리 민족이 기와를 사용한 역사는 비교적 오래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집에 기와를 이었다. 고조선의 기와는 룡동반도

끝의 윤가촌 남하유적, 룡녕성 러대시 목양정터, 평안북도 박천군 단산리유적,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토성,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토성 등에서 발견되었다.

남하유적에서는 암기와만 나오고 성현리토성에서는 노끈무늬가 찍혀진 기와들이 알려졌으며 그밖의 유적들에서는 암기와, 수기와, 수기와파쇄가 알려졌다.

수기와파쇄에는 여러 가지 무늬들이 형성되어 있다.

단산리유적¹⁾, 운성리토성²⁾에서 나온 수기와파쇄에는 고사리무늬가 새겨져있고 목양정터³⁾에서 알려진 수기와파쇄에는 글자와 무늬를 새긴것과 짐승을 형상한 것도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건국초기부터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는 자강도 조선군 운평리의 무기단돌곽 무렵(초기돌각담무렵)들인 2지구 35호무덤과 4지구 6호무덤에서 알려졌다.

운평리 2지구 35호무덤에서 나온 기와는 모두 암기와들인데 무덤의 바닥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아 관대로 쓰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와의 색깔은 청회색이며 진흙질로서 매우 굵다. 기와의 두께는 2cm이며 겉면(등면)에는 지문이 찍혀 있다.⁴⁾

운평리 4지구 6호무덤에서 나온 기와도 역시 청회색이며 두께는 2~2.5cm이다. 기와의 겉면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다.⁵⁾

기와가 나온 이 무덤들의 년대는 B. C. 3~2세기로 추정되고있다.⁶⁾ 그

-
- 1) 《고고민속》주체57(1968)년 1호, 26페이지
 - 2) 《조선유적유물도감》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주체78(1989)년, 172페이지
 - 3) 《목양정》(일문)
 - 4) 《고구려적석무덤에 관한 연구》주체80(1991)년, 30페이지
 - 5) 《조선고고연구》주체87(1998)년 1호, 37페이지
 - 6) 《고구려적석무덤에 관한 연구》주체80(1991)년, 44페이지, 99페이지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고구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80(1991)년, 65페이지

러므로 이 무덤들에게서 나온 기와의 년대를 B.C 3~2세기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것은 고구려에서 건국초기부터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다.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의 한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풍납동토성은 백제 초기궁성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이 토성의 지표면 2.8m정도 깊이의 토성 축조시기 집자리 문화층에서는 여러종의 질그릇들과 압기와, 가공한 주주들이 나왔다.⁷⁾

이것은 토성축조시기에 이미 기와를 이은 가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성축조시기의 구체적인 년대에 대해서는 B.C. 3~2세기로 보는 견해와 기원전후 시기로 보는 견해들이 있지만 이렇듯저렇듯간에 여기에서 나온 기와를 백제의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로 볼 수 있다.

신라에서도 지마나사금 11년(122년)과 조분나사금 4년(233년)에 큰 바람에 기와가 날려갔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2~3세기경에 이미 기와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나라의 기와는 많은 측면에서 공통점을 띠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도 삼국문화의 공통성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 기와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나라의 기와가 대체로 비슷한종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세나라의 기와는 그 용도와 형태에 따라 일반기와, 기와파쇄, 마루기와, 서까래기와, 지붕장식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기와는 지붕의 넓은 면적을 덮는 기와로서 여기에는 압기와와 수기화가 있다. 이 기와들은 지붕우에 이어져 기와골을 형성하며 눈과 빗물의 침수

7) 《일한고대국가의 기원》(일문) 류꼬출판사, 1980년, 173~174페이지

《풍납토성(백제왕성)연구문헌집》동양고고학연구소, 2000년, 46페이지

8)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지마나사금 11년 4월, 조분나사금 4년 4월

도 막고 온습도의 변화에도 오래 견딜수 있다.

암기화에는 기와의 앞, 뒤너비가 거의 같은 것과 기와의 뒤부분이 좁은 것이 있다.

수기화에도 기와의 뒤부분이 좁아져 그위에 다른 기와를 겹쳐 놓을 수 있게 된것과 기와의 뒤부분에 짧은 연결부가 달려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와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부분 유적들에서 가장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집안부근과 평양일대, 서울부근, 공주지방, 부여일대, 경주부근 등 세나라시기의 도읍지들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구당서》(권199 상 고려전)에는 고구려에서 기와를 이은 건축물은 절간, 신묘와 왕궁, 관차에만 해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최근의 고고학적발굴은 고구려에서 기와의 사용범위가 그보다 훨씬 넓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와막새는 일반암기와 수기와의 앞끝에 드립새를 붙인것으로서 지붕의 제일 앞끝(처미끝)에 놓이여 건물을 치장하고 그 위용을 돋보여주기 위한 장식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고구려의 암기와막새는 안학궁터, 장수산성, 평양성, 청암동토성 등 여러곳에서 알려졌다. 암기와막새의 약간 위로 흰 듯 한장방형의 앞면에는 넣쿨타래무늬(당초문), 연꽃무늬, 연꽃넣쿨타래무늬(연화당초문), 괴면무늬 등의 무늬들이 형성되어있다.

백제의 암기와막새는 군수리절터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턱이 없는 것으로 기와의 앞끝 앞면에 활동선무늬(줄무늬)와 손끝누름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전기신라의 월성에서도 당초무늬가 새겨진 턱이 없는 암기와 막새가 알려졌다. 신라에서 암기와막새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후기신라때부터였다.

수기와막새는 그 형태에 따라 원형의 막새와 반원형의 막새로 나누어진다. 반원형의 막새는 원형을 절반 나눈 반달형으로 생겼는데 이런 막새는

고구려에서만 알려졌다.

원형의 수기와파쇄는 고구려, 백제, 전기신라에서 널리 제작·이용된 것이다. 세나라에서 쓰인 초기수기와파쇄의 배두리는 매우 높아서 마치 원통형 그릇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파쇄에는 고사리무늬, 편꽃무늬, 인동무늬 등의 식물무늬와 괴면무늬, 기하무늬등 다종다양한 무늬들이 형성되어 있다. 수기와파쇄들이 나온 세나라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보면 고구려의 배왕무덤, 천주무덤, 장군무덤, 동대자유적, 리수원자남유적, 정릉사터, 금강사터, 청암동토성, 대성산성, 안화궁터, 평양성 등이며 백제의 유적으로는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아차산성, 대통사터, 서현사터, 금강사터, 군수리절터 등을 들 수 있다. 전기신라에서는 월성, 안압지, 황룡사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세나라에서는 또한 마루기와와 서까래기회를 따로 만들어 썼다.

목조건물의 마루는 지붕의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건물의 위용과 그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마루의 치장과 반전은 처마의 곡선과 함께 우리 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마루기와는 통마루, 박공마루, 추녀마루, 귀마루 등 지붕의 마루를 덮는 기와이다. 마루를 쌓아올리는데 사용되는 마루기와에는 착고(마루밑막음기와), 부고(마루수기와), 적새(마루암기와)가 있었다.

고구려, 백제, 전기신라에서는 각 마루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기와들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었다.

착고는 마루의 밑부분인 기와골상단의 공간을 막는데 쓰인 기와였다. 착고는 고구려의 안화궁터, 정릉사터, 평양성, 락랑구역 토성동과 락사터에서 알려졌다. 백제의 것은 금강사터에서 나왔다.

고구려의 착고는 형태에 따라 크게 고물개형(5각형기와), 반달형, 거꿀사다리형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형태는 고구려착고는 그 변천과정을 잘 보여 준다.

안학궁터에서 나온 고물개형착고는 옷면이 수평으로 되어있고 양측면이 매우 짧은데 밑부분이 삼각형으로 된 것과 삼각형으로 좁아져 내려오다가 납작하게 된 것, 밑부분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과 가운데에 있는 것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밑에 쓰인 것이고 중심이 한쪽에 치우쳐있는 것은 박공마루, 추녀마루와 같은 경사진 마루의 밑에 놓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달형의 착고는 안학궁터와 정릉사터에서 알려졌는데 정릉사터에서 나온 착고에는 사람의 얼굴이 형성되어 있다.

거꿀사다리형착고는 그 생김새가계의 형태와 류사하다고 하여 《계면호》라고 불리운다. 이런 형태의 착고에는 섬세하게 형성된 귀면이 새겨져 있다.

부고는 착고우에 잇대어 옆으로 얹혀지는 기와로 수기화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적새는 각 마루를 짙아올리는 기와로서 임기화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세로 절반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루기와는 이밖에도 안학궁터에서 나온 것처럼 마루끝부분의 기와를 올려받쳐주기 위하여 놓았던 마루끝받침기와도 있었다.

서까래기와는 서까래의 부식을 방지하고 치장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데 연목기와의와 사래기와의로 구분된다.

연목기와는 둥글고 긴 서까래에 사용되는 원형의 기와로서 중심부에 못구멍이 뚫려 있다. 이 기와에는 모두 편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연목기와는 백제의 군수리질터, 구이리질터, 금강사터 등에서 알려졌다.

사래기와는 추녀끝에 잇대어 먼 네모난 사래끝에 사용된 기와인데 부연기와보다 크기가 비교적 크며 우가 둥글고 밑부분이 수평으로 되어있다.

사래기와는 고구려의 안학궁터와 전기신라의 황룡사터에서 나왔다.

안학궁터에서 나온 것은 귀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귀면의 두눈섭사이 혹은 이마에 못구멍이 뚫어져 있다.

신라의 사백기화는 편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인데 문양면 중앙과 상하부의 좌우에 각각 5개의 못구멍이 뚫려 있다.

세나라에서는 치미와 귀면판과 같은 지붕장식물도 제작·이용되었다.

치미는 건물의 툇마루(마루)끝에 올려놓는 새모양의 지붕장식물이다.

치미는 몸체와 장식띠(중띠), 나뉘(지느러미), 꼬리(부리)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의 치미는 집안의 동대자유적, 원오리절터, 안학궁터, 정릉사터, 평양성 등에서 나왔는데 몸체에 폭이 좁은 계단형띠를 거듭 배치한 것, 새날개 깃모양의 무늬가 돌쳐있는 것, 비늘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있는 것, 새는 비슷한 무늬가 놓여 있는 것 등이 있다.

백제의 치미는 부소산과 금성사, 금장사터, 군수리절터 등에서 알려졌고 신라의 치미는 안압지, 천군리절터, 황룡사터 등에서 나왔다.

귀면판은 삼국사기에 약간씩 제작되었다

귀면판은 추녀마루(마루)끝에 달았던 장식물인데 윗부분은 둥글고 밑면의 중심부는 반월형으로 패워져 있다.

귀면판을 건물에 단 것은 마루끝을 보호하며 건물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비로운 힘》을 가진 《괴물》의 얼굴을 형상함으로써 그 어떤 《아귀》도 감히 범할 수 없게 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귀면판에는 부릅뜬 눈과 들창코, 길게 찢어진 입과 날카로운 송곳이로 매우 험상궂게 형성된 괴수와 같은 귀신의 얼굴이 립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세나라의 기와는 그 종류에서 거의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통성을 이루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삼국사기 세나라 기와는 그 종류에서 일정한 차이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은 공통성에 비하면 극히 부차적인 것이다.

삼국사기와의 공통점은 다음으로 기와(기와)막새에 형성된 무늬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기와(기와) 막새의 무늬에는 세나라 사람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풍

만한 정서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공통점은 수기와파새의 무늬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의 수기와파새무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구려는 삼국가운데서 제일 먼저 봉건국기로 성립되었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기초로 하여 광활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각지에 산성과 평지성들을 쌓고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다. 고구려사람들은 규모가 방대하고 웅장화려한 건축물에 어울리는 다종다양한 기와들을 훌륭히 만들어 리용하였고 고구려의 기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늬가 형성된 기와파새들로 지붕을 장식하였다.

고구려수기와파새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작리용된 것만큼 거기에 형성된 무늬의 종류와 표현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무늬는 주로 연꽃무늬, 넝쿨무늬, 기하무늬, 고사리무늬 등으로서 그 다양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며 파새의 테두리조성, 꽃잎구성과 꽃잎의 형상, 꽃술형태, 서로 다른 무늬의 능란한 배합등 무늬표현수법도 참으로 다종다양하다.

수기와파새는 무늬선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힘차고 굵센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으며 메마르거나 고요한 풍조를 느낄 수 없다.

하나의 선, 하나의 무늬와 형태에도 패기로 충만되어 있고 힘있는 것이 고구려수기와파새무늬의 특징의 하나이다.

고구려초기의 수기와파새는 주로 집안지역과 평양일대에서 많이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방사선으로 수기와파새를 여러 등분하고 그안에 고사리무늬를 새겨 넣은 것이다.

4세기 중엽이후 불교의 전파와 함께 연꽃무늬파새가 다량 제작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꽃잎수가 4잎에서 6잎으로, 다시 8잎으로 많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끝이 날카롭고 량감이 있는 연꽃잎우에는 튕선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비교적 많고 파새테두리는 대체로 두껍고 높다.

평양전도후 련꽃무늬 이외에 인동무늬, 기하무늬, 꽃화전무늬 등 무늬의 종류가 더욱 확대된다. 련꽃잎은 4잎에서 12잎까지 다양하며 꽃잎을 방사선의 칸막이로 구분하지 않고 고사리무늬, 넝쿨무늬, 망치모양의 무늬, 꽃망울무늬, 괴면무늬 등으로 구분한 새로운 양식이 출현한다.

기화파새무늬의 간결성, 서로 다른 무늬의 대조로 하여 얻은 활기있고 변화있는 조화미와 료동미 등은 그후 우리 나라 기화파새무늬장식구성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며 원형을 이룬다. 한마디로 수기화파새(화당) 예술의 시원은 고구려하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제사람들도 기화파새를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다.

백제에는 기화를 전문으로 만드는 《화박사》가 따로 있었다. 《화박사》가 있었다는 것은 기화제작이 국가적인 관심속에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백제에서는 초기에 기화를 왕궁과 왕릉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츰 각지에 관청과 절간이 건설되면서 기화의 사용범위도 넓어졌다.

한성시기의 유적들인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 삼성동토성, 왕릉인 석촌동 4호분을 비롯한 무덤들에서 기화가 알려지고 있다. 무덤에 기화가 사용된 것은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⁹⁾

이 시기의 수기화파새에는 풀무늬, 원무늬, 십자무늬 그리고 련꽃무늬가 형성되어있고 파새테두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웅진도읍시기 수기화파새의 련꽃무늬는 얇고 끝은 돌기상으로 살짝 반전되어 있으며 꽃잎사이에 표현된 장식이 뚜렷하게 돌출되는 등 전체적인 도안이 매우 정교한 특징이 있다.

9) 《신태화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년, 239페이지

꽃잎의 반전수법으로 여러 가지 형식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비도읍시기 수기와파새무늬는 다양하고 화려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우아한 백제수기와 파새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한마디로 백제수기와파새무늬의 특징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우아한 감을 주고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수기와파새무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꽃잎의 형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초기기와파새는 1~5줄의 방사선에 의하여 4등분, 6등분 또는 8등분된 대 구간에 한개의 꽃잎을 배치하고 꽃잎의 양쪽에는 구슬무늬를 한개씩 둔 후 새긴 것이다. 꽃잎은 양감이 두드러지게 강하여 밖으로 터질 것 같은 팽만감이 있으며 잎끝은 뾰족하게 처러되고 꽃잎우에는 릉선이 새겨져 있다. 부여군 쌍북리에서 알려진 백제의 초기수기와파새는 2줄의 방사선으로 파새를 4등분하고 구분된 대 구간에 꽃잎을 한개씩 배치한 것인데 꽃잎의 생김새는 고구려의 것과 꼭같은 살구씨형이다. 꽃잎은 높이 도드라져 양감이 뚜렷하고 잎끝은 뾰족하며 예각을 이루고 있는데 매우 힘찬 느낌을 주고 있다. 잎우에는 세로 뺨은 릉선이 새겨져 있고 잎의 양쪽에는 삼각무늬가 놓여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청암동토성, 대성산성, 평양성, 락랑구역 토성동 등에서 알려진 수기와파새들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몽촌토성에서 나온 릉형모양으로 형성된 꽃무늬파새와 류사한 것은 안학궁터에서도 알려진바가 있다.

서울시 성동구 삼정동에서는 반구형꽃술주위에 좁고 길쭉하며 잎끝이 둥근 8개의 꽃잎이 배치되어 있는 수기와파새가 나왔다. 잎끝사이에는 구슬모양의 무늬가 한개씩 놓여 있고 꽃술에도 구슬모양의 무늬들이 놓여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고구려의 수기와파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나라 수기와파새무늬의 공통점은 연꽃무늬의 꽃잎수를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다.

고구려수기와파새에 형성된 꽃잎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여기에서 6월의 연꽃무늬파새는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6월 연꽃무늬파새는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 6월 연꽃무늬파새는 태왕무렵, 천추무렵, 국내성, 리수원자남유적을 비롯한 집안부근과 청암동토성, 금강사터, 대성산성, 안학궁터, 평양성, 정릉사터 등 평양일대의 고구려유적들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6월 연꽃무늬파새는 백제의 몽촌토성, 천왕사터, 동남리절터, 부여군 구아리 등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 6월 연꽃무늬는 8월과 함께 파새제작의 전기간에 쓰인 무늬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도 고구려에 줄을 달고 있다.

이와 같은 6월의 연꽃무늬는 세나라의 기와파새무늬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당시 이웃 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공통점은 또한 수기와파새의 사이무늬에서도 잘 나타난다.

초기 고구려수기와파새의 사이무늬는 1~5줄의 방사선으로 파새를 여러 개의 등분으로 구획하는 단순한 것이었으며 평양천도후 그것은 1줄의 방사선 끝에 망치모양의 무늬, 버섯모양의 무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후 사이무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꽃잎무늬, 인동무늬, 꽃봉오리무늬, 고리모양의 무늬, 괴면무늬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의 풍부한 무늬구사력과 창발성, 풍부한 예술적감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무늬는 당시 동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고유의 독특한 것이었다.

백제수기파새의 사이무늬는 고구려의 것처럼 다종 다양하지 못하지만 초기에는 쌍북리의 파새와 같이 2줄의 방사선으로 4등분한 것이 보이며 중기에 이르면 대통사터 정지산유적의 파새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꽃잎사이에 구획선 역할을 하는 돌기띠를 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돌기띠는 연꽃잎사이에 놓여

있는 부채모양의 사이잎과 편결되어 새로운 형식을 보이며 이런 사이무늬는 후기에까지 계속된다.

련꽃무늬밖에도 집안과 평양에서 알려진 고구려의 꽃회전무늬박새와 부여군 부소산에서 나온 백제의 소용돌이모양무늬박새의 양상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수기와박새무늬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신라의 수기와박새무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신라의 기와는 그 성립과정에 고구려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전기신라의 수기와박새무늬에는 고구려, 백제수기와박새무늬와 공통점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서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먼저 고구려와 전기신라수기와박새무늬의 공통점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전기신라에 미친 고구려의 문화적영향을 백제보다 더 빠르고 더 널리 파급되었다. 전기신라의 련꽃무늬수기와박새는 6세기 초경부터 파급적으로 제작되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전기신라의 수기와박새는 황룡사터, 안압지, 동궁 그리고 월성해자화 재대장터 등 여러 유적들에서 알려졌다. 수기와박새에 형성된 련꽃무늬는 량감이 두드러지고 잎끝이 매우 날카롭게 처리된 전형적인 고구려식이다. 잎끝이 뾰족한 것으로 하여 두 련꽃무늬사이에 생기는 넓은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삼각형모양의 사이잎을 크게 만들어 배치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사이잎이 없이 련꽃무늬만 놓여 있는 것도 있다. 련꽃잎은 폭이 좁은 것으로 대체로 6~8잎이 배치되어 있다.

전기신라의 수기와박새에는 꽃잎우에 룡선이 새겨져 있는 것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처럼 꽃잎우에 룡선이 새겨져있는 박새는 천추무렵, 장군무렵,

경신리1호부럼(한왕묘), 락랑구역 토성동 등 고구려시기의 유적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경주시 교동에 자리잡고 있는 재매정터에서 나온 수기와파새의 꽃잎우에는 Y자형의 룡선이 새겨져있다. 꽃잎우에 Y자형의 룡선이 새겨진 파새는 고구려의 태왕무덤에서 알려진 바가 있다.

또한 황룡사터, 안압지에서 알려진 수기와파새의 뽕꽃잎안에는 잎맥(잎줄)으로 보이는 특이한 음각선이 표시되어 이채로운데 잎안에 잎맥이 형성된 것은 안화궁터에서 나온 수기와파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뿐만아니라 고구려와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무늬의 공통점은 뽕꽃무늬의 꽃잎수에서도 나타난다.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에는 6잎의 뽕꽃무늬수기와파새가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6잎의 뽕꽃무늬수기와파새가 나온 대표적인 유적들로는 월성, 안압지, 재매정터, 삼타사터, 병묘사터, 황룡사터 등을 들 수 있다. 6잎뽕꽃무늬파새를 통해서도 고구려가 전기신라의 기와에 준 직접적인 영향을 찾아 볼 수 있고 두 나라 기와의 공통점을 잘 알 수 있다.

전기신라기와는 또한 백제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으며 따라서 두 나라의 수기와파새무늬에서는 서로의 공통점이 잘 나타난다.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에는 안압지, 동궁에서 나온것처럼 두꺼운 뽕꽃잎의 끝이 돌기상으로 반전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와 같은 것은 백제에서 응진도읍시기인 5세기말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에는 잎끝이 솟아오르면서 그끝에 원형돌기나 삼각형돌기가 장식되어 있는 것(잎끝장식형)이 적지 않다.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무늬에서 대부분을 이루는 원형돌기식은 그 제작시기가 6세기 초엽까지 소급된다. 백제수기와파새에서 잎끝에 원형돌기가 장식되어 있는 것은 응진도읍시기부터 나타나며 삼각형의 돌기가 달려있는 것은 6세기 중엽이후부터 제작되었다.

뿐만아니라 전기신라의 수기와파새에는 꽃잎이 앞쪽에 이르러 각을 이루며 꺾이면서 그끝이 작은 앞형태로 반전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전기신라와 백제의 수기와파새는 구체적인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파새는 백제에서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지만 전기신라에서는 7세기 중엽경부터 제작되었다.

삼국사기 기와의 공통점은 암기와파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암기와파새는 크게 턱이 있는것과 턱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턱이 달려있는 암기와파새는 고구려의 안학궁터에서 알려졌으며 턱이 없는 암기와파새는 고구려, 백제, 전기신라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졌다.

암기와파새의 앞면에는 손끝누름무늬, 냉물타래무늬, 꺾임무늬 등이 형성되어있다.

손끝누름무늬가 새겨진 암기와파새는 고구려의 정릉사터와 장군부림, 태왕부림 등에서 알려졌고 백제에서는 군수리절터에서 나왔다.

정릉사터에서는 암기와와 앞면에 줄무늬만 새겨져 있는것, 앞면에 줄무늬가 새겨져있고 앞끝겉면에 손끝누름무늬가 찍혀있는 것, 암기와와 앞끝 앞면과 겉면에 손끝누름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알려졌다.

백제의 군수리절터에서 나온 것은 암기와와 앞면에 줄무늬와 손끝누름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고구려의 것과 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냉물무늬가 형성된 암기와파새는 고구려의 안학궁터와 전기신라의 월성, 안압지, 황룡사터, 사천왕사터 등에서 나왔다.

이처럼 삼국사기의 기와에는 서로의 공통점이 질게 나타나며 세나라의 기와를 통해서도 삼국문화의 공통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성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삼국문화의 공통성은 그에 선행한 고대문화의 공통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을 삼국이 직접 계승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문화갯춤새에서 이웃한 지역의 신석기시대문화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여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고조선, 부여, 진국, 고구려등 고대국가가 세워진 때의 고대문화는 많은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B. C. 1000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고조선에서는 좁은 늦단검문화가 형성되었다. 즉 좁은늦단검문화는 이시기 고조선후기문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진국도 베성강이남지역을 차지하고 고조선과 같은 좁은 늦단검문화를 발전시켰다. 결과 B. C. 1000년기 후반기의 고조선과 진국의 문화는 다 같이 좁은 늦단검문화로서 서로 공통하였다.

고조선, 진국과 같은 거례의 나라였던 부여는 송화강류역에 위치하였던 나라로서 그 문화역시 고조선이나 진국의 문화와 같은 것이었다. 부여의 병역이었던 길림지방에서 나온 좁은 늦단검, 좁은 늦창끝 등은 그 형태가 고조선이나 진국의 것과 비슷하다.

삼국문화의 공통성은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인민들이 하나의 피줄과 언어, 같은 풍습을 가진 한 거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여러 역사 기록자료들과 삼국사기의 각종 유적유물들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에는 백제시조 온조왕의 아버지가 추모(주몽)이며 비류와 온조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강류역에 와서 백제(당시 백제소국)를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백제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다가 실패하였을 때나 가혹한 수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구려나 신라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는 사실¹⁰⁾과 고구려중 혜랑법사가 신라의 《국통》이라는 편찬에 입당된 사실¹¹⁾, 백제의 이름있는 건축가인

아버지가 신라의 초청을 받아 경주에 가서 유명한 황룡사탑의 건설공사를 지도한 사실¹⁰⁾ 등은 고구려, 백제, 신라사람들이 이리저리한 계기를 통하여 접촉이 잦았으며 그 과정에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고 친연적인 유대를 두터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사람들의 생활풍습은 거의 모든 면에서 공통하였다.

중국사서들인 《위서》 권100백제전에는 《그 의복과 음식이 고구려와 같다》고 하였으며 《신당서》 권200백제전에는 《그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고 하였다. 또한 《구당서》 권199 신라전에는 《그 풍속, 형법, 의복이 고구려, 백제와 대략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책 백제전에는 《무릇 여러 부세와 풍토, 물산은 고구려와 같다》고 씌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삼국시기 성곽조형식과 무덤형식, 건축형식 등에 보이는 공통점과 무기무장과 마구류, 질그릇류들과 몸치레거리, 불상조각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세나라 인민들이 하나의 혈통과 언어를 가진 단일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삼국문화가 강한 공통성을 가지게 된 기본요인은 고구려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에 있었다.

고구려는 넓은 영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삼국사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놀았을 뿐만아니라 그 이후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의 발전과 축성술, 건축술, 회화술 등은 고구려문화의 높은 수준을 과시하고 있었다.

1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37년 3월, 권26백제본기 동성왕 21년, 권48 도미전

11) 《삼국사기》 권40 잡지 편지

12) 《삼국사기》 권3 탑상, 황룡사9층탑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는 이웃나라들에 보급되어 그 나라들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백제, 신라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고구려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것은 세나라 기와의 전후편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삼국시기 기와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서로 다르다.

세나라 기와의 초기년대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B. C. 3~2세기경에, 백제에서는 기원전후시기 또는 그 이전시기에, 신라에서는 2~3세기경에 기와가 제작되고 있었으며 수기와파쇄는 고구려에서 4세기초에 나타나지만 백제에서는 4세기 중엽이후, 신라에서는 6세기초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루기와는 천추무덤, 장군무덤, 정릉사터, 장수산성부근, 안학궁터 등 고구려시기의 여러 유적들에서 알려지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 4세기 말, 5세기초부터 광범히 쓰이었는데 백제와 전기신라에서는 그것이 후기에 와서는 비로소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서까래기와의 한 종류인 사래기와는 고구려에서 5세기에 사용되었지만 신라에서는 6세기 후반경에야 보이며 치미 또한 고구려에서 5세기초를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데 비하여 백제, 전기신라에서는 팔기경에 쓰이었다.

세나라 기와의 전후편계는 파쇄에 형성된 무늬에서도 나타난다.

세나라의 기와파쇄무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련꽃무늬이다. 물론 고구려나 백제의 초기수기와파쇄에서는 고사리무늬라든가 원모양의 무늬 등이 쓰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련꽃무늬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삼국시기 수기와파쇄무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고구려의 것이 년대적으로 백제나 신라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세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고로봉식산형이라든가 돌칸흙무덤,

절간을 비롯한 건축물들, 무기무장 및 마구류, 질그릇들과 장식품들, 불상 등의 유적 유물을 보이든 어느 것이나 고구려의 것이 시기적으로 제일 앞선다.

세나라의 기회를 비롯한 유적유물들이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적차이가 나타나는 것은년대상으로 가장 앞선 고구려의 것이 원형으로 되고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선진적인 문화를 적극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세나라 문화의 공통성을 이룩함에 있어서 고구려문화가 큰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처럼 선진적인 고구려문화는 같은 거리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결국 삼국문화는 고구려문화를 중심으로 공통성이 강한 문화로 되었다.

삼국문화의 공통성은 우리 나라의 단일한 민족문화형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천년의 오랜 역사적기간에 같은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발전한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공통성은 삼국시기에 와서 더욱 공고한 것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발해와 후기신라에 계승되어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발해는 삼국문화의 공통성을 이룩하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논 고구려 문화를 직접 계승하였고 후기신라는 고구려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기신라 문화를 직접 계승하였거나 고구려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다시 말하여 발해문화는 고구려문화를 직접 계승한 것이고 후기신라문화는 고구려문화가 전기신라를 거쳐 그대로 후기신라에 전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창조한 문화인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식상에서는 발해문화가 고구려문화를 직접 계승하고 후기신라문화가 전기신라문화를 직접 계승한 것으로서 갈래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내용상에서는 발해문화나 후기신라문화나 다같이 고구려문화를 계승한 것

으로서 그 연원은 하나인 것이다.

고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서 그 이전시기 우리 나라에서 꽃핀 우수한 문화전통을 종합적으로 이어받아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보다 완전한 단일문화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적인 고구려 문화의 커다란 영향에 의하여 이미 삼국시기에 문화의 공통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 발해와 후기신라시대에 와서도 두 나라문화의 공통성이 이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과 함께 인차 단일민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민족문화의 통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처럼 삼국문화의 공통성은 우리 나라의 단일한 민족문화형성과 발전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 조국방위항전

전동철(중합대학력사학부력사연구실실장, 학사)

고구려때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고 일상적으로 무술을 편마하였기 때문에 수백만의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와도 성과적으로 쳐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빛나게 고수하였다.

고구려인민들이 진행한 반침략투쟁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투쟁은 지난날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 더욱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에서는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전이였다는데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전이였다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수, 당나라의 내정간섭행위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이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증된다.

고구려에 대한 위협과 내정간섭행위는 수, 당나라 통치배들이 침략에 앞서 쓰는 상투적수법이었다.

590년 수고조가, 607년 수 양제가 고구려국왕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벌하겠다고 위협을 한 사실¹⁾, 또 당 태종이 사농승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신라와 싸우지 말라고 강요해 나서면서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해에 고구려를 치겠다고 위협해나섰을 뿐 아니라 그것이 파탄되자 자기의 명령을 《위반》하였으나 치지 않을 수 없다²⁾고 한 사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성립이후 수십년 사이에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큰 나라로 성장하였으며 4세기 70년대까지는 고조선의 옛 땅을 완전히 수복하였고 6세기에 들어서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것만 큼 수, 당나라의 이러한 위협과 공갈, 내정간섭행위가 강대국인 고구려에 통할 리 만무하였다.

고구려집권자들이 저들의 나라를 《방문》하라는 수, 당나라 통치배들의 여러차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사죄》하라고 할 때에도 끄떡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실증해 준다.

때문에 당나라의 고조 리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명목과 실제사이에서는 리치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려(고구려-인용자)가 수나라에 칭신 하였지만 종당에는 양제에서 항거하였으니 또한 무슨 신하로 삼았다고 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데 힘쓰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로 하여금 신하로 자칭하게 해서 스스로 존대하게 하라고 하였는가.》³⁾라고 말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수, 당나라 통치배들의 위협과 공갈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받아 자체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당당히 맞서나

1)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32년,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2) 《신당서》권220 고(구)려전

3) 《구당서》권199 상고(구)려전

갔다.

고구려는 토곡촌, 돌궐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진나라를 정복한 수나라의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하여 예견성있게 군사를 강화하고 식량을 저축하는 등 국방강화대책을 세웠으며⁴⁾ 또 입금이 직접 1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나라의 고구려침략의 본거지인 료서지방의 영주를 들이치⁵⁾는 자위적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후 수 양제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군사들을 굶어보으며 전쟁준비에 미쳐날뛴 때에도 그에 대응하여 방비대책을 세우는 한편 돌궐, 백제 등과의 관계를 깊이하면서 수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주동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당나라와 대치한 시기에도 고구려는 당나라의 로골화되는 내정간섭과 침략위협을 느끼고 예견성있게 전국의 성방어시설들을 정비보강하였으며 천리장성을 새로 쌓음으로써 싸움준비를 갖추어나갔다. 뿐만아니라 고구려는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간첩입무를 받고 들어온 수나라의 사신들을 지정된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경계를 강화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으며⁶⁾ 당나라의 사신 징엄이 기어들어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6년동안이나 굴실에 갇금해 두는⁷⁾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조치들은 당당한 주권국가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구려는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내정에 간섭해 온 수, 당나라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당당히 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 당나라의 위협과 공격에 대처하여 고구려는 자기의 존엄을

4)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32년

5) 《수서》권81 고(구)려전

6) 《수서》권81 고(구)려전

7) 《구당서》권185 상장열전, 권191 장경장전

지어나갔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 조국방위항전이었다는 것은 둘째로, 고구려가 주권국가의 신성한 영토를 강점하고 인민들을 예속시키는 수, 당나라 침략자들의 침공을 결자적으로 물리친 사실을 통하여서도 확증된다.

《수서》(권67 배구전)에는 607년 수 양제를 수행하여 돌궐에 간 황문시랑 배구가 양제에게 《고구려의 땅은 원래 고죽국이다. 주나라시기에 〈기차〉를 그곳에 보내어 봉하였고 한나라시기에 〈3군〉으로 나누었으며 진나라시기에 는 역시 룡동을 통치하였다.》라고 말한 자료가 실려있고 《구당서》(권61 온대 아연박 포함전)에도 당나라 중서시랑 온연박이 당입금에게 말한 그와 비슷한 자료가 있다.

《수서》와 《구당서》에 보이는 배구, 온연박의 말은 사실 대국주의적관점에서 고구려침략에 환장이 된 나머지 제나름대로 꾸며낸 것이었다.

수, 당나라가 침공해온 고구려의 영토는 이득히 먼 옛적부터 조선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신석기시대이래로 오늘의 조선반도와 룡하이동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의 문화깃춤새가 같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그에 뒤이어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고대문화가 같고 고대이래 이 지역 주민들의 언어, 풍속이 같다는 것도 유적유물과 옛 기록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물론 룡동평의 일부가 고조선이 무너진 B.C. 2세기말에 한나라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으며 고구려인민들의 주동적인 투쟁에 의해 얼마안되어 그 지역이 고구려에 귀속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몇세기후에는 다시 회복된 곳이었다. 6~7세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서쪽으로 대흥안령산줄기이동 가까이까지, 남쪽은 조선반도 중 남부지방, 북쪽은 흑수팔갈의 북부 즉 오늘의 흑룡강류역까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동서 6,000리, 남북 4,000여리의 영토를 차지한 나라로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사실들에 대하여 당시 수, 당나라 통치배들 자신이 모를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구려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고구려의 평토가 마치도 원태부터 저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겨냈다. 실지 수, 당나라 통치배들의 고구려침략목적은 고구려의 평토를 차지하고 인민들을 예속시키며 고구려지역의 재부를 빼앗으려는데 있었다.

그것은 607년 수 양제가 돌궐에 온 고구려사신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지역을 순행》⁸⁾할 것이라고 한 사실과 645년 고구려침략의 길에 오른 당 태종이 신하들앞에서 《지금 사방이 대체로 평정되었는데 오직 고구려만이 평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늦기 전에 여러 사대부들의 힘을 빌어 그 나라를 빼앗으려는 것이다.》⁹⁾라고 말한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침략목적밑에 수, 당나라는 고구려를 전제 공격하였다.

고구려평토에 쳐들어온 수, 당나라 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육과 약탈, 방화를 일삼았다.

이에 대하여 645년 고구려-당나라 전쟁당시 룡동도행군총관으로 침략군을 끌고 들어왔던 리세적은 《사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은 로략질에 탐을 내기때문》¹⁰⁾ 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수, 당나라 침략자들은 전쟁전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의 나라로 끌어들였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이 고구려의 신성한 평토를 강점하고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자 고구려인민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항전에 용감히 펼쳐일어나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안기었다.

8) 《삼국사기》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9)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자치통감》권197 정관 19년 3월 정해

10)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그것은 고구려인민들이 598년에 수나라 한왕 량이 거느린 100만의 수륙군 가운데서 《십중팔구》를 전멸시킨 사실¹¹⁾ 그리고 612년 수 양제가 3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료하계천과 료동성, 봉황성 등 여러 성들에서 침략자들에게 된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우중문, 후문술이 거느린 9개 군단-30만 대군을 살수(대양하의 상류 소자하)에서 중세 세계전쟁사상 보기드문 타격을 안긴 사실¹²⁾, 그후 3, 4차 수나라 침략때에도 료동성과 비사성 등에서 적들을 크게 소멸한 사실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당한 침패로 말미암아 수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645년 당나라와의 전쟁시기에도 고구려인민들은 당 태종이 거느린 100만의 침략자들에게 전방방어선들인 신성, 건안성, 비사성, 료동성에서 심대한 타격을 안기었으며 적들이 안시성을 포위공격할 때에도 88일간이나 굴힘없이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인민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면서 신성한 자기의 병토에 쳐들어온 수백만의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그때마다 성과적으로 쳐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전이었다는 것은 셋째로, 이 투쟁이 고구려만이 아니라 동쪽나라들인 백제, 신라의 안전까지도 지켜낸 전민족적성격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증된다.

수, 당나라 침략자들의 고구려침략은 단순히 고구려 하나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먼저 강대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 기세로 동쪽의 국가들인 백제와 신라까지도 침략하여 완전히 예속시키려 하였다.

그것은 당 태종의 밑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11) 《자치통감》 권178 개황 18년 9월 기축

12)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

643년 신라사신이 당나라에 찾아가 구원을 요청할 때 그는 《수십수백척의 배에 무장한 군사를 싣고 소리없이 바다를 건너가 바로 그 나라(백제-인용자를 습격할 것이며) 또 신라에는 《나의 친척 한사람을 보내어 너희 나라(신라-인용자)의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말하였다.¹³⁾

이 자료는 당나라의 마수가 고구려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에까지도 뺨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지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렸으며 그 이후에는 자기 나라에 사대하던 신라까지도 삼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정방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고나서 다시 신라를 칠 계획으로 머물고》¹⁴⁾있었다고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증명해 준다.

이러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넘두에 둘 때 만일 그 이전시기에 고구려가 수나라의 4차에 걸친 침략을 쳐부수지 못했더라면 백제와 신라는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당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비단 자기 나라의 자주권뿐 아니라 백제, 신라 등 온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백제와 신라가 수, 당나라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음이 없이 오래동안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구려인민들이 북방에서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놀았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온 겨레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나라의 일부 연구자들은 수, 당나라가 고구려와 진행한 전쟁의 성격을 《정의의 전쟁》인 듯이 묘사하면서 그것을 수, 당나라가 자기의 《지방정권》을 《통합》하기 위해 벌린

1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2년 가을 9월

14)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춘추공

《국내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수, 당이 주변에 있던 토곡혼, 돌궐 등과 지방에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진압할 때에는 한두명의 장수들과 얼마간의 병력을 파견하여 짓밟개면서도 고구려침략에는 《천하의 병력》과 온 나라의 세력을 총동원하고도 계속 침해를 당한 것만 보아도 고구려는 수, 당나라와 동등한 독립국가, 동방의 최대강국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의 전쟁은 두 민족을 대표하는 중세 두 봉건대국들사이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나라시기 양제의 고구려재침략계획에 따라 군사들을 끌어모으려하였지만 고구려의 강대함에 겁을 먹은 군사들이 동원되지 않은 사실과 또 당 태종이 645년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 심히 후회하였으며 그후 죽으면 고구려 정벌을 중지하라고 유언한 것이 결코 후언치 않다. 역사적사실들은 고구려에 대한 수, 당나라의 전쟁은 《지방정권》 고구려를 통합하기 위하여 벌린 《국내전쟁》이 아니라 독립국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침략전쟁》이었으며 이를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반침략조국방위항전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림호성(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학사)

조선 중세력사의 한 시기를 빛나게 장식한 발해국이 세워진 때로부터 1,30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해동정국의 웅지는 력사의 풍진속에 사라지고 세월의 년륜속에 남겨진 것은 그 편린뿐이지만 천년강대국 고구려를 계승하여 강대한 국력으로 나라와 겨레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한 발해의 위용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으로 력력히 새겨져있다.

698년에 세워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2백수십년간 존재하면서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발해의 건국자와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이었고 따라서 발해국가의 정치적지배권도 고구려유민들에게 쥐여져있었으며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문증함으로써 발해가 다름아닌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것을 해명하려고 한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 것은 첫째로,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고대 중세국가들에서 그의 종족적 및 민족적소속은 대체로 그 국기를 세운 최고통치자가 어느 족속갈래의 사람이였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었다. 때문에 최고통치자의 종족 및 민족적소속을 밝히는 것은 그 국가의 연원을 해명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금까지 발해의 건국자에 대하여서는 《고구려계통》의 사람이라는 설과 《속말갈갈계통》의 사람이었다는 대립되는 두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려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려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국자의 후손들인 후대왕들의 고구려계승의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조영의 아들인 2대 무왕 대무에는 727년에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보낸 국서에서 《고려(고구려-인용자)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지니었다》

《속일본기》 권 10 신구 5년 정월 갑인고 밝히었다.

여기서 발해무왕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다고 한 것은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건국자-왕족집단이 말갈인였다면 그들은 마땅히 국서에 고려의 옛 땅을 《차지했다》 혹은 《가졌다》라고 밝혔을 것이다.

례를 들어 발해를 필망시키고 그 영토를 차지했던 유목족인 거란(遼)도 고구려의 옛 땅을 놓고 당치 않게 고려에 영토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고구려의 옛 땅을 《소유했다》느니, 《차지했다》느니, 《가졌다》느니 하는 말은 하였지만 감히 《회복했다》는 말을 쓰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측은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하면서 그 옛 땅을 《회복》하려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고려사》 권 94 서희전

말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고구려의 주민구성에는 소수 말갈족들이 들어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구려사회의 주도적력량은 단군민족의 후손들이었으며 말갈인들은 그의 통치하에서 자기의 고유한 유목 및 수렵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말갈인들에게 강적당한 조상의 옛 땅에 대한 그리움, 다시 찾을 감정의 분출이라고도 할수 있는 《회복》이라는 말이 쓰일수 없는것이다. 떠돌이생활을 하거나 오늘은 여기 붙었다 배일은 저기 붙었다하면 생존하는 말갈인들에게는 조상의 땅을 《회복》한다는 판념이 전혀 있을수 없는것이다.

국서에 보이는 《부여의 유속을 지니었다.》는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한것이다. 《부여의 유속》을 풀어 말하면 《부여의 남은 풍속》, 《부여의 전통적인 풍습》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건국자와 그가 의거한 기본세력이 부여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신당서》 권 219 발해전에서 대조영을 속밀인으로 밝히었는데 그가 집권한 속밀수류역은 송화강으로서 부여인의 땅이었다는 것은 문헌 및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건국자-왕실집단이 부여계통이라면 이 부여족은 단군민족의 후손이며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도 다름 아닌 부여출신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서 언어와 여러 가지 일이 대체로 《부여와 같다.》고 하였다. 《삼국지》 권30 위서 고구려전민족의 공통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인 언어가 같은 한계로서 부여는 고구려의 적극적인 국토통합정책에 의하여 5세기말경에 그에 완전히 포섭되었으며 《고려(고구려)》라는 하나의 국가의 당당한구성원이 되었다.

만일 건국자-왕실집단이 말갈계통의 인물이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부여의 유속》이 아니라 말갈의 유속을 이어받았다고 밝혔을것이다.

무왕의 아들이며 3대왕인 문왕 대흥부는 758년에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서 자기를 《고려국왕 대흥부》라고 밝혔다. 《《속일본기》 권22 천평보자 3년 1월 경오)

이러한 사실자료를 전하면서 17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사이에 걸쳐 편찬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대일본사》권238 별전 165 제번 7 발해 상)에서는 《생각컨대 이전에는 모두 발해라고 칭하였는데 이때(758-인용자에 이르러

고려라고 칭하였다. 대체로 흠부는 한때 옛 이름(고려-인용자)을 칭했던 것 같다.»고 주석하였다.

발해의 국왕이 자기를 《고려국왕》이라고 한 것은 자기 왕조의 고구려계 승성을 강조하려고 한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발해의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계통의 주민이었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천손의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771년에 일본에 간 발해의 사신 일만복일행이 일본임금에게 전한 국서에는 《천손고려국왕 대흠무》라고 씌여져있다. 《속일본기》 권32판인기 보구 2권 《천손이라는 표현은 정혜공주묘비에도 보인다. 《천제(하느님)의 자손》에 관한 의식은 고구려왕실과 그 귀족들이 커다란 궁지와 자부로서 오랜 세월 전해내려 오는것으로서 광개토태왕릉비와 모두루묘지명, 《삼국사기》동명왕본기 등에 잘 나타나있다. 고구려왕은 자기를 천제자, 다시말하여 《천제의 아들로 묘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해임금이 자기를 《천손》 《천제의 손자》로 표현한 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아들》국가, 후계국가임을 밝힌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처럼 발해왕들이 자기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자기 나라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밝히려고 한 것은 바로 발해의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계통의 주민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데 대해서는 둘째로, 역대 국내외의 많은 사기들이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인정하고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우선 역대 우리 나라 사람들속에서는 발해를 동족의 국가로 간주하고있었다. 발해국존립시기에 생존한 후기신라의 판료, 학자 최치원(857년-?)은 당 나라의 배사시중에게 보낸 글에서 《삼국사기》권46 최치원전고 하였고 강서 대부고상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 구려(고구려-인용자)가 지금은 발해로 되었다.》《동문선》 권47)고 썼으며 또한 배부상서 배 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옛날의 구려는 지금의 발해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같은 책)고 밝히었다.

역시 발해국존립시기에 생존한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당나라에 끌려가 죽은 고구려마지막왕 보장왕의 손자 고진의 묘지명에는 그가 발해인이었다고 쓰여져있다. 이것은 이국에서 살던 고구려유민들도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유사》 권1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신라고기》에서도 《고려(고구려-인용자)의 옛 장수 조영은 성이 대씨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밝히고있다.

발해 멸망후에 나온 여러 책들에서도 발해를 동족의 국가로, 그 창시자를 고구려계통인물로 밝히고있다. 《제왕운기》권하에서는 발해를 고조선-삼국-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취급하면서 《이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남정에 의거하여 즉친무후 원년 갑신(신라가 고려를 멸망시킨 17년이다.)에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고려사》권1 세기에서도 발해의 건국자는 《고구려사람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외의 역대 사가들도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고있었다. 945년에 편찬된 《구당서》권 199 발해전에서는 《대조영은 본래 고려(고구려-인용자)의 별종이다》고 전하고있다. 《구당서》에는 별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족속, 완전히 친연관계에 있는 종족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예컨대 《고려(고구려-인용자)는 부여에서 나온 별종이다.》(같은책 고려전), 《일본은 왜국의 별종이다.》(같은 책 일본국전)라고 한것들이 그러하다.

고려와 부여, 일본과 왜국이 서로 같은 갈래의 주민집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밖의 외국별전들에 실린 남만, 서남이, 북적 등의 《별종》들도 같은 의미에서 쓰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라고 한 표현은 《본래 고려와 같은 갈래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리해할수 있다.

《구당서》가 편찬된 이후에 나온 중국의 주요력사책들인 《당회요》(961년), 《오대회요》(961년전후), 《구오대사》(973년), 《태평환우기》(976년-983년), 《책부원귀》(1013년), 《신오대사》(1060년전후), 《무경총요》(1060년전후), 《자치통감》(1084년), 《선화봉사고려도경》(1123년), 《송사》(1345년), 《료사》(1344년), 《송회요》(원대)등에서도 대조영을 《본래 고려의 별종》, 《부여의 별종》등으로 밝히고있다. 특히 《선화봉사고려도경》권1 건국시봉조에서는 발해를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취급하고있다.

발해국존립당시의 일본인들과 일본의 역대 편년기목록도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고있다.

일본국왕들은 발해국왕들이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밝혀 국서를 보내 오면 회답서에서 역시 《고려국왕》으로 표현하였다.

발해와의 외교관계시료를 많이 담고있는 《속일본기》 권10에서는 발해를 《옛 고려국》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이처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그 창시자가 고구려계통의 인물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역대 국내외의 이름있는 인물들과 사가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 것은 셋째로, 발해의 기본주민이 고구려유민이었고 그들이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하고있었다는 사실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였다. 고구려가 자기 존재를 끝마칠 당시 고구려의 호구는 69만 7,000호《구당서》권39 지리지였는데 호당 5명씩으로 환산하면 인구는 근 350만명이 된다. 이가운데 3만 8,300호(근 20만)는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보장왕을 따라 다시 룡동으로 나왔으며 후에 다시 끌려갔다. 그들 20만명과 돌궐과 말갈로 간 사람들《삼국사》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신라와 일본 등지로 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

여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고장에 눌러앉아있었을것이다. 발해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사실을 전한 기록들에는 대조영의 휘하에 있던 고구려인, 말갈인만도 《40만명》 혹은 《40여만호》였다고 쓰여져 있다. 《신오대사》 권74, 《오대회요》 권30 그리고 발해의 건국소식을 듣고 고구려사람들이 점차 발해에 모여들었다고 하니《구당서 권199 발해전》고구려유민의 수가 더욱 늘어났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이에 비하면 말갈인수는 매우 적었다. 《수서》 권81말갈전에 의하면 말갈족은 크게 《7부》가 있는데 《를미부, 백돌부, 안차골부, 불렬부, 호실부, 흑수부, 백산부》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부는 말갈부족으로 볼수 없다. 설사 그 《7부》를 모두 말갈부족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주민수는 15만~20만명 정도이라고 통계되고있다. 《쓰련 원동민족들의 사회제도》(로문) (초록) 올라 지보스포크, 1989년 24페이지

고구려의 멸망은 결코 고구려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지배하에 있던 말갈인들의 주민구성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백돌(일돌), 안차골, 호실부 등 부족들은 달아나고 흩어져 미약해졌으며 《구당서》 권199 발해전) 발해건국 후 일부 말갈인들이 옛 지역으로 다시 돌아 오기는하였지만(같은 책 발해전) 그 수는 역시 고구려유민수에 비할바가 못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발해의 기본주민은 바로 고구려유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배층도 주민의 대다수도 고구려유민인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지배권이 고구려유민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발해정계에서 권력을 잡고있는 것은 고구려유민들이었다. 《송발기문》에 의하면 발해에는 가장 큰 귀족 성씨로서 《고, 장, 양, 두, 오, 리》씨가 있다고

하였다.

이 성씨들의 태반이 고구려의 귀족성씨였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고구려왕성인 고씨가 정계에서 차지한 비중은 대단히 컸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성씨가운데서 발해왕성인 대씨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문헌기록들에 남아있는 발해의 성씨있는 자 219명가운데서 대씨가 63명으로 약 35%이고 고씨가 그 다음인데 39명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발해멸망후 고려로 이주해오는 발해유민가운데도 고씨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발해존속전기간 정계에서 유력자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밖에도 리씨, 왕씨, 양씨, 하씨, 오씨 등 고구려계통의 귀족들이 45%정도를 구성하고있다.

고구려유민들이 정계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유민들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그들이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하였던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는것이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것은 넷째로,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공통성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공통성은 우선 살림집건축에 난방시설로서 구들을 사용한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발해사람들속에서는 살림집에 구들시설을 갖추어놓는것이 통례로 되어있었다. 상경성의 침전터들과 로씨야연해변장 노보고르제에브까고성, 스파로베첸스크고성, 보리쑤브까부락터, 꼬르싸꼬브까부락터 등 많은 발해유적들에서 구들시설이 발견된 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구들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난방시설로서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겨울철이 되면 모두 긴 구멍이를 만들고 아래서 불을 때서 그 연기로 (방을) 쉽게 한다》고 하였다. 고구려춤무렵벽화에는 온돌을 형상한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1호, 2호집자리, 중강군 토성리유적 제4구와 제5구의 집자리,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의 고구려집자리, 집안 동대자의 집자리등 고구려의 집자리들에는 구들이 없는것이 없다.

고구려살림집문화의 특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러한 난방체계가 발해에서 후로는 왕족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사용된 것은 발해가 바로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공통성은 다음으로 무덤건축에서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무덤종류가운데는 돌칸흙무덤, 돌곽흙무덤, 벽돌무덤 등이 있다. 여기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돌칸흙무덤이다. 우리 나라 함경북도 회령시 궁심무덤떼, 청진시 부거무덤떼, 함경남도 북창군 평리무덤떼와 중국 길림성 돈화시 룡정산발해무덤떼(3대 문왕의 둘째딸 정혜공주의 무덤 포함), 화룡시 발해무덤떼, 흑룡강성 녕안시 삼령둔의 3기의 큰 돌칸흙무덤, 녕안시 대주둔무덤떼, 립구시 두도하자무덤떼 등 무덤떼들의 대부분 무덤들은 돌칸흙무덤이다. 이 무덤들은 대체로 외칸짜리 돌칸흙무덤이며 구조형식상특성은 고구려 후기 무덤들의 그것과 신통히도 일치한다. 고구려돌칸흙무덤은 후기에 이르러 지배적인 무덤형식으로 되었고 무덤칸은 초기에 주로 외칸이던 것이 갑 또는 곁칸이 있는 무덤, 여러칸 무덤으로 변천되었다가 점차 외칸무덤으로 단일화되었다.

발해무덤칸들에 쓰인 천정형식은 평행삼각고임천정, 삼각고임천정, 꺾음천정, 평천정, 평행고임천정 등 이었는데 이러한 무덤천정형식들이 고구려에서 흔히 쓰인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다.

왕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무덤인 돌칸흙무덤이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

건축형식의 계승이라는 것은 발해의 지배층들이 바로 고구려의 유민이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밖에도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공통성은 그들이 남긴 건축유적들만이 아니라 농기구 무기무장류, 자기류, 종교신앙유물 등 여러 문화유산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하기에 발해의 건국자는 말갈인이었다고 보고있는 외국의 학자들속에 서까지도 《발해문화어...특히 고구려인들로부터의 영향이 현저하였》(《조선 원동의 역사》(로문)과학출판사, 1989년, 207페이지)다는데 대하여 인정하고있는 형편이다.

해동성국 발해의 문화는 명백히 고구려문화의 계승이며 발전이다. 왕족으로부터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문화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보인 사실은 바로 발해가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발해의 건국자와 기본주민도 고구려유민이고 정치지배권도 고구려유민들에게 주어졌었다는 점과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

박영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고려태조 왕건이 918년에 세운 고려는 개경(개성)을 수도로 하고 1392년까지 근 500년간 존재한 봉건국가이며 동방강국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나라 역사상의 첫 통일국가였다.

민족력사에서 국가들의 계승관계는 력사에서 주류를 이루는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며 해당 국가들의 지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과학적문제이다.

세계력사에는 수차례 걸친 외세의 침략과 강점에 의하여 일관한 계승성과 정통성이 없이 부단히 중단된 민족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고려가 동방강국이었던 고구려를 계승한 통일국가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있는데 대하여 당대에도 내외에서 인정하고있었고 오늘 우리 인민과 학계에서는 그것을 민족력사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해오고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후선 나라이름을 고구려와 뜻도 음도 같은 고려라고 부른데서 뚜렷이 표현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국호는 건국자의 리상과 지향, 전시기 국가와의 관계, 국가의 성격 등이 함축되어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의 력사기록들에서는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말, 같은 뜻으로 기록하여왔다.

하기에 옛 고구려지역이었던 중부조선일대를 장악한 공에는 이미 고려 건국에 앞서 896년 철원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정하지 못하고있다가 897년 수도를 송악군(개성)으로 옮긴 후 901년부터 904년까지 4년간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또는 후고구려)라고 불렀다. (《삼국유사》 권1 왕력 효공왕)

918년 6월 공예의 태봉국을 전복하고 건국한 왕건 역시 나라이름을 고려로 정하였다. 이것은 곧 동방강국이었던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의 출현을 선포한 것이며 고구려와 같은 지향과 리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993년 서희장군은 적장 소손녕과의 강화담판에서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있고 고려는 신라땅에서 건국했기때문에 고려가 차지하고있는 고구려 옛 땅을 전부 빼어넘겨야 한다는 강도적요구에 대하여 《아니다. 우리 나라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며 수도도 평양실지는 개경이지만 주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인용자에 정하였다. 땅의 경계에 대하여 묻한다면 거란의 동경(료양)까지도 우리 나라의 지경에 속한다.》고 반박하였다. 담판에서 적장은 마침내 그의 주장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압록강북쪽에서의 축성권까지도 고려에 주기로 하고 침략군을 철수 시키었다. (《고려사》 권94 별전 서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또한 건국시조 왕건과 건국에서 주동적역할을 한 적지 않은 장수들과 군사들이 옛 고구려지역에 살던 고구려유민의 후손들이며 건국초기 국가의 기본영역도 옛 고구려땅이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의 건국자인 시조 왕건자신도 고구려유민의 후손이었다. 그의 전설적인 7대조별이 되는 조상 호경은 고구려가 패망한 후 고국수복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백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고구려때 부소압으로 불리우던 송

악산기슭으로 이주해온 고구려유민이었다.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도 활의 명수(명궁)로서 신라상전(또는 사신배)을 타고 항행도중 서해통왕의 간청에 따라 그를 해치려고 중으로 변신한 늙은 어우를 처단하고 통왕의 딸을 안해로 맞아 많은 보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고구려인이었다. (《고려사》고려세계)

이 전설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왕건의 가문은 고구려 옛 땅인 송악일대를 지배하면서 서해무역을 통하여 많은 재부를 축적하고 많은 군사를 장악하고있던 고구려유민출신의 태봉군세력이었다.

고려건국에서 결정적역할을 했고 그 정치군사적지반으로 되어온것도 오늘의 경상북도북부일대까지 미치었던 고구려 옛 땅에서 살아온 고구려유민의 후손들이었다.

태봉국왕 궁예가 비록 신라왕실에서 버림받은 첩자손이었으나 초기 나라이름을 후고구려 또는 고려라고 했고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데 대하여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신라를 《멸도》(멸망한 수도)라고 부르며 한것도 신라 왕조에 대한 앙갚음에서 나온것이기도 하나 그보다는 그가 장악하고있던 옛 고구려지역인 중부조선일대 고구려유민후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려는 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태봉국의 최고관료인 시중이며 군사실권자였던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왕자리에 오르도록 적극 지지해준 군사들과 관료들의 다수도 중부조선일대의 고구려유민의 후손들이었다고 인정된다.

고려건국과 국토통일에서 왕건의 측근신하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금필, 박수경, 최응, 왕유 등은 옛 고구려지역들인 평산, 토산, 춘천출신들이었다. 그밖의 개국공신들도 반신라적인물들로서 태봉국때부터 고구려재건리상에 공명하는 사립들이었다.

이러한 천연적인 고구려세력의 지지에 기초하여 왕건은 고구려의 정통

을 계승하여 중부조선의 옛 고구려판도우에서 고려를 건국할수 있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다음으로 같은 시기 그에 대하여 이웃 나라에서도 공통적인 일반상식으로 되어있는 사실이 증명해준다.

933년(태조 16년) 3월 후당은 고려에 보내온 서한에서 왕건은 《주몽의 상서로운 전통을 계승하여 군장(왕)이 되었다.》고 했고 이주해온 동족인 《흘한인(발해수도 흘하성사람-발해인)들에게 먹을것, 입을것을 나누어주어 구제했다.》고 했다. 《고려사》권2 세가 태조 16년 3월 신사

1123년(인종 원년) 5월 고려에 사신을 따라왔다가 돌아간 송나라 판리 서공은 자기의 방문기인 《전화봉사고려도경》에서 《왕씨 정은 고구려의 대족(귀족)이었다. 고씨(고구려)의 정치가 쇠약해지자 나라사람들이 왕건이 현명 하였으므로 국왕으로 세웠다.》고 하였다. 《전화봉사고려도경》권2 세차 왕씨 송나라 초기에 편찬된 《5대사》에서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고 《송사》 고려전에서도 《고려는 원래 고구려이다. ... 당나라말 중국안에서 다시할 때 자립하여 군장(왕)이 되었다.》고 했다. 《5대사》권138 외국별전3 고려, 《송사》권487 별전 외국3 고려

당대 중국의 일부 사서들에서 물론 고려건국자가 처음에 고씨였다고 한 것이나 고려가 고구려의 고씨왕조를 직접 계승한듯이 부분적으로 잘못 쓴것도 있으나 한결같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한것은 정확한 해석이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다음으로 동족과 동족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마침내 고려가 그것을 실현한 첫 통일국가로 출현하였고 존립전기간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시종 노력한 사실이 증명해주고있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복구하고 이곳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꾸리며 수도로 정할 목적밑에 건설을 다그치였다.

왕건은 건국하기 바쁘게 후기신라가 차지하지 못하였고 발해의 변방으로 되어있는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건설에 착수했다. 그리고 곧 그 지위를 높여 대도호부, 서경 등으로 하였고 이곳을 수도로 삼을 계획을 표시하면서 후대왕들이 매해 봄과 가을에 이곳을 순찰할것을 강조하였다.

고래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3대왕 정종은 수도를 옮길 계획밑에 서경에서 왕궁건설공사를 크게 추진시켰고 4대왕 광종은 서경을 서쪽 수도라는 의미에서 서도로 부르게 하였다.

고려는 건국초기에 착수하여 10세기 전기간 통강, 속주(속진), 안북부(안주), 연주(영변), 청새진(운산) 등 많은 성들을 나라의 북부지대에 쌓음으로써 후기신라가 통합하지 못하였던 동서북부의 넓은 고구려 옛 땅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935년에는 후기신라왕(김부)을 귀순시켜 후기신라를 통합했고 936년에는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후백제를 병합했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698년 건국하였던 발해가 926년 거란의 침략에 의하여 망한 다음 고려는 동쪽을 찾아온 수십만의 발해유민들을 포섭하였다. 고려는 이렇게 하여 10세기에 동쪽의 영토와 주민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단일한 국가체제밑에 통합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첫 통일국가로 출현하였다.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완전히 성취하려는 고려의 활동은 존립전기간 계속되었다.

고려의 통일외지에 대하여 14세기 학자이며 관료인 리제현(1287년-1367년)이 《왕건이 후백제를 타승하기 전부터 서경과 북변을 자주 순찰한것은 동평양의 옛 땅을 차지하려는데 있었다.》고 한바와 같이 그것은 고려태조 왕건의 리상이었다. 왕건은 그 말년에 옛 고구려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후진과 반거란공동동전을 형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고려사》권2 세가 태조 26년 리제현찬)

1108년 윤관이 17만군으로 동북지방에 대한 원정을 단행한 다음 고려

는 립언이 쓴 《영주성벽기》에서 《이곳(동북지역)은 본래 고구려 땅이고 옛 비석이 남아있다.》고 명백히 선포했다.

원나라가 망한 다음 1370년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되찾을 목적으로 료동일대에 대한 3차의 원정을 단행할 때에도 도평의사사는 동녕부에 보낸 서한과 강계만호부에서 료십지방주민들에게 보낸 포고문에서 각각 《료십지방은 원래 본국에 속하는 지경이다.》고 선언했다. 《《고려사》권42 세가 공민왕 19년 12월 정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다음으로 고려인민이 반침략투쟁에서 고구려사람들과 같은 강하고 용감한 애국적인 투쟁기질을 발휘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반저란전쟁에서 고려가 거둔 빛나는 승리는 고구려인민의 불굴의 투쟁기질을 계승하여 재현시킨 뚜렷한 실력의 하나였다.

11세기 전반기 송나라의 고위관료 부필이 고려와 반저란공동전선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려가 거둔 승리를 거란의 거듭되는 굴욕적인 조약을 강요당하면 송나라와 대비하여 감탄을 아끼지 않은것도 고려의 고구려적인 투쟁기질을 넘두에 두고 한것으로 해석된다. 《《속자치통감장편》권150 송기 경력 4년 6월 무오》

날랜 기병과 무서운 초보화전술로 아시아와 동유럽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던 몽골도 고려에 대한 수치의 침략을 감행하였으나 이 나라만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한것과 같이 점령할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1260년 3월 남송원정도중 헌종이 즉자 황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북상하면 몽골의 구비라이(홀필렬-헌종의 동생)는 고려세자(원종)가 몽골을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고려는 만리 밖에 있는 나라이다. 당 태종때부터 친히 원정했으나 정복할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것은 하늘의 뜻이다. 룡송하게 대접하며 개평부까지 동행하도록

록 하라.》고 했다. 이때 몽골의 고위관료인 강희선무사 조량필도 구비라이에게 《고려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산과 바다로 막혀있어 우리 나라(몽골)에서 출병한지 20여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신하로서 귀속시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고려사》권25 세가원종 원년 3월 정해)

몽골통치자들의 이 말은 1231년 이후 이때까지 근30년간이나 무려 6차에 걸쳐 집요하게 침략하였으나 고구려와 같은 불굴성과 용감성을 지닌 고려는 정복할수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1256년 5월 적장 차라타도 《화친하자고 하면서 너의 나라는 어째서 우리 군사를 많이 죽이는가. 죽은자는 할수 없지만 생포한자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아우성쳤다. 《고려사》권24 세가고종 43년 5월 임인)

1291년 2월에도 구비라이는 《너희 나라는 당 태종이 친히 원정했으나 정복하지 못하였고 우리 조정이 처음 귀속하지 않아 정벌했으나 쉽게 정복할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같은 책 권30 세가충렬왕 17년 2월 정해)

원나라 통치자들의 이 말들은 그들이 고려를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보고있었고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한것처럼 고구려와 같은 고려는 결코 정복할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모든 사실에 대하여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 일부 연구자들이 고려태조 왕건이 후한 락랑명문가문출신이라느니 고려는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를 계승했다고 하는것은 심한 역사외곡이다.

고려는 고구려적인 기질과 지향, 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첫째로, 황제국가, 대국으로서 체모를 유지하였으며 존립기간 도고한 자세로 국가의 위력을 떨치였다.

둘째로, 고구려의 국토통일정책을 계승하여 대고구려재건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전시기의 국토와 주민을 많이 통합한 민족력사상의 첫통일국가로 등장하였으며 그 역사적지위를 보장하였다.

셋째로, 고구려인민의 용맹성과 강의성을 계승하여 투쟁한 결과 고려는 반거란, 반몽, 반왜구, 반홍두군 등 대규모적인 반침략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성씨를 통해 본 우리 민족국가들의 혈연적 계승성

공명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근대사실장)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건 또 세계 어디서 살건 관계없이 조선고유성씨를 가지고있다. 조선고유성씨, 이것은 조선민족의 인류학적인 외적징표와 함께 조선민족의 피줄을 타고난 사람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다.

우리 민족이 한조상의 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서 피줄의 계승성을 밝혀주는 성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다아는바와 같이 성이란 출신의 혈연적계통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조선사람의 성은 그 연원을 우리 선조들이 씨족, 종족사회를 이루고 살던 시기에 두고있다.

원시무리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씨족, 종족과 같은 새로운 사회생활단위를 이루고 생활하게 되면서 씨족명이 그 씨족성원들을 다른 씨족성원들과 구별하게 하는 명칭으로 되었다. 후날 씨족제도가 무너지고 서로 다른 씨족에 속해있던 단혼가족들이 뒤섞여 촌락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그들의 혈연적계보를 표시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성(씨)이 발생하였던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씨)이 씨족, 종족명에서 유래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최초의 성(씨)이 씨족이나 종족명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을 추측케한다. 그 후 인구의 증대에 따르는 가족의 증식, 한지의 류입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

어 성(씨)에서 씨족, 종족명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다만 사회성원들을 어느 가문의 출신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근친사이의 혼인금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혈연관계의 외적징표인 성(씨)에 기초한 《동성불혼》(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이라는 법률상의 조치로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성씨형성과 발전의 출발적전제로 되었고 국가단계로 이행하면서 보다 명백하게 완성고착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 성씨의 출현은 국가성립을 전후한 시기부터였다고 할수 있지만 최초의 성씨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고있지 않아 잘 알수 없다.

현존기록에 근거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성씨로 볼수 있는것은 부여의 《해》씨이다. 이후 우리 역사에는 여러 성씨들이 있었다.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부여》씨, 신라의 《박》씨, 발해의 《대》씨, 고려의 《왕》씨 등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국기를 세운 박달(배달)종족명과 그 후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의 건국주도집단의 성씨인 《해》, 《고》, 《부여》, 《박》, 《대》, 《왕》씨들의 호칭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민족국가들의 혈연적계승관계의 일단을 밝혀보려고 한다.

우리 민족사상 종족명으로서 첫 성으로 간주된것은 《부루(불, 발, 박)》였다고 할수 있다.

《부루》는 단군의 아버지켄종족이 지녔던 명칭이었다. 하늘의 해를 이글 이글 타는 불명어리로 생각한 고조선의 원조상들은 해를 가리키는 《부루(불, 발, 박)》를 종족명으로 하였었다.

여기서 《부루(불, 박)》는 족명인 동시에 혈연적계통을 나타내는 성으로도 간주되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나 《응제시주》에 소개된 《고기》에서는 단군의 아버지를 《환웅》이라고 하였고 《제왕운기》의 《단군본기》나 《세종실록》 지리지의 《단군고기》에서는 《단웅》이라고 하였다. 한편 《응제시주》에서는 《환》을 《단》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환》이나 《단》이 《밝음》, 《광명》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같은 말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환인》, 《환웅》도 《단인》, 《단웅》으로 표현한 사실에서 고조선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국시조를 《단》이라는 족명과 련관시켜 혈통의 계승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간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동사집략》, 《역사집략》, 《동사절요》 등과 같은 많은 문헌들에서는 단군의 성은 《단》씨라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 《부루(단)》가 혈연적계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 사실은 단군조선의 통치자를 모두 《단군》이라고 하고 그 존속기간을 단군의 존재기간으로 통털어 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서는 단군이 1,500년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루임금》으로 불리우는 단군조선통치계층의 혈통이 1,500년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규원사화》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단군조선 47대 임금을 모두 《단군》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단군으로 부른 것은 이들모두가 《박달》족의 첫 건국자 단군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지어 성호 리익은 《성호사설》에서 그리고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단》은 국호라고 주장하였다. 안정복은 시조 단군뿐만 아니라 그를 뒤이은 고조선의 역대 왕들도 다 《단군》이라고 한 것은 《단》이 국호였음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단》이 혈연적계통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간주하였던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루(불, 발)》가 단군조선주민에 대한 혈연적계통을 나타내는 족명이었던 사실은 단군조선의 이웃에 존재한 고대중국의 문헌기록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중국의 순임금때 중원지방과 교섭을 가진 《발》, B.C. 18세기말 탕 왕때 하나라동쪽에 있었던 《부루》 주나라 성왕(B.C. 1063년-1027년)에게 사

신을 보낸 불령지, 불도후, 발인의 《불》, 《발》, 강왕(B.C. 1026년-1001년)때 서주왕실과 접촉한 《발》 주나라 북방에 있었던 《연, 백》의 《백》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특히 《관자》 규모편과 경중갑편에서 전하는 《발조선》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고대중국인들은 단군조선을 발(부루)족의 조선으로 간주하였던 사실을 알수 있다.

이 혈통은 성씨를 통해 단군조선이후 우리 민족이 세웠던 여러 나라에 계승되었다.

《제왕운기》에서는 민족사의 서술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부여, 비류, 시라(신라), 고례(고구려), 남북옥저, 예, 백의 군장들도 모두 단군의 세계라고 하였다.

허목의 《동사》에 기록된 단군세기에서는 단군, 부루, 금와, 주몽, 온조 등의 순서로 기록하면서 부여, 고구려, 백제의 조상도 모두 단군씨로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보가 역사적사실의 반영이었다는것은 《부루》족명의 파생관계가 입증해준다.

부여의 지배층은 자기들이 단군의 혈통을 이었다는 의미에서 부루족의 숭배대상인 해태양을 자기들의 족명, 국호로 삼았다.

부여가 단군의 혈통을 이었다는 사실은 부여의 건국시조해부루에 대하여 국내의 많은 문헌들이 단군의 이들로 기록하여놓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 1287년 고려의 리승휴가 쓴 《제왕운기》의 부여에 대한주석에는 《단군본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부루라고 한다.》는 기사가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평안도 평양부조에 실린 《단군고기》에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서술하는 가운데 역시 《제왕운기》의것과 같은 이야기가 씌여있다. 그리고 1460년에 편찬된 권람의 《응제시주》에도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부루

를 넣었는데 그가 바로 동부여왕으로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물론 이와는 달리 《삼국유사》와 같이 구《삼국사》 류형의 자료들에서는 해부루는 북부여개국왕 해모수의 아들로서 후에 동부여왕이 된 것으로 기록하여 놓은 문헌들도 있다.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는 해부루의 혈통이 단군으로부터 해모수로 바뀐 현상에 혼동되어 부루와 주몽을 《어머니가 다른 형제(사실은 어머니는 하백의 딸로서 서로 같고 아버지가 다름으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도 기록하여 놓았다.

그리고 이른 시기 부여의 건국신화를 전한 《본형》이나 《위략》 등과 같은 중국문헌들에서는 부여의 건국시조를 《동명》으로 기록하였다.

이 기록들에 나오는 해모수, 해부루, 동명과의 관계를 보면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곧 천제이고 천제 즉 해모수와 해부루는 부자간이며 해모수와 동명과의 관계는 오히려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구《삼국사》에서는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고 해모수와 동명이 부자간이며 해부루는 해모수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되어있다.

물론 여러 갈래의 건국설화들에서 건국시조와 그의 혈연관계상에서는 일정한 차이는 있어도 다같이 시조의 출현이나 계보는 하늘, 해빛과 편결시키는 데서는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설화창작자들이 하늘, 해(태양), 해빛을 시조의 출현을 신비화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의 혈통을 밝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해부루의 아버지를 직접 단군으로 하건 또는 해모수로 하건간에 관계없이 해부루는 《천손》이 된다. 마찬가지로 부여의 건국자를 동명으로 하는 경우 그도 해빛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었던만큼 그 역시 《천손》이 된다.

하늘, 해(태양), 해빛은 건국자의 출현을 신비화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혈통의 계승성을 밝히려는 의미에서 씌여진 것이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기사에서 단군은 천제 환인의 손자 즉 하늘의

자손(천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군가문이 하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숭배하고 자기들을 《하늘의 가문》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해(부루-태양)는 하늘 정기(정령)의 상징으로서 조상인 하늘과 실제 인간사이를 이어주는 교량이었다. 때문에 단군 이후 우리 민족이 세웠던 나라들에서 자기의 건국시조를 제각기 신비화하면서도 다같이 《천제의 아들》, 《해(태양)의 아들》, 《하늘의 자손》으로 기록하였던 것은 그 가문이 천손단군의 혈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단군조선 이후 성씨가 보다 확고한 형태로 자리잡았던 첫시기의 부여에서 태양을 가리키는 《해》를 자기들의 성씨로 삼은 것도 바로 자신들이 단군의 혈통을 이은 천손의 후예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부여의 해씨가 단군의 혈통을 이은 세력되었던 것은 부여의 국호자체가 부루족의 명칭을 그대로 국호로 삼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B.C. 5~3세기에 만들어진 중국에서 가장 이른 지리책인 《산해경》에서는 중국의 동쪽지방에 대한 사실을 소개하는 편목에서 《부여의 나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B.C. 2세기의 책인 《상서대전》에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부여를 비롯한 고대조선의 세력들이 중국과 같이 통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해씨집단이 자기들의 국호도 박달족의 족명을 그대로 국호 《부어(부루)》로 삼아 단군의 후예임을 나타내려 하였다는 것을 밀어준다고 할 수 있다.

부여에는 해씨 이외에도 다른 성씨가 있었다. 그것은 고주몽이 부여에서 얻은 인해를 베씨라고 하였던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군조선시기 형성되기 시작한 성씨가 부여때부터는 확고한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B.C. 277년에 동명왕은 첫 봉건국가 고구려를 세우고 국력을 강화하여 동방천년대국의 기초를 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중흥시조로 되었다. 민족

의 중흥시조 동명왕도 다름아닌 단군족의 혈연적계승자였으며 고구려는 강대한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세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고조선의 영역과 주민들을 되찾음으로써 단군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고조선의 역사적지위와 역할을 계승한 정통국가였다.

민족의 중흥시조 동명왕이 단군의 후예였던것은 동명왕의 성씨와 혈통이 말해준다.

《삼국유사》 왕략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왕략》은 역대 통치자들의 계보와 년대를 도표로써 명시하고 약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표기하여 다양한 역사적변천의 개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세표, 년표이다.

건국자의 출생과 건국과정을 신비화한 건국설화류와는 달리 건국자의 혈연적계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왕략에서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것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단군과 동명왕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로서 그 시간적차이가 심한것만큼 부자간의 관계로는 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략》에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로 기록된것은 실지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동명왕의 혈연적조상을 밝히려는 의미에서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광개토왕릉비문의 건국설화에서 동명왕이 《천제의 아들》이라고 한것 역시 주목된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언은 《왕략》에서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건국설화를 전한 대목에서는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단군과 천제를 같은 실체로 파악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단군과 천제가 같은 내용으로 간주된 사실을 통해 천제라는 표현은 이 땅의 최고권력자라는 의미와 함께 단군천손아래의 하늘(태양)을 시조

로 삼고 자기 가문을 하늘(태양의 가문으로 궁지높이 불려온 박달(단군출신족)족의 후예라는 혈통을 나타내는 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고전문헌들에 기록된 고구려의 계보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한서》, 《삼국지》, 《량서》, 《구당서》, 《신당서》와 같은 문헌들에서는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였고 《위서》, 《주서》, 《수서》, 《북사》 등의 문헌들에서는 고구려의 조상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앞에서 문한 것처럼 부여는 박달족의 후예였다. 그러므로 단군의 후예인 부여에서 분기된 고구려 역시 단군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에서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을 《조선왕》이라고 하였고 그의 손자 보원은 《조선군왕》으로 봉하였던 사실을 통해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조선(고조선)의 혈연적 후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밑해준다.

고구려가 단군을 조상으로 여겼던 것은 그들이 단군조상의 뼈가 묻힌 평양으로 자기의 수도를 옮기고 조상의 무덤을 웅장하게 개건하였던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왕은 단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군가문을 나타내는 하늘(태양)을 상징한 명칭으로 자기의 성씨를 삼았다.

《삼국유사》에서 일언은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따라서 고씨로 성을 삼았다.》고 하면서 그 주석에서 《본래의 성은 해씨였는데 천제의 아들로 해빛을 받아 낳았다 하여 스스로 고로서 성씨를 삼았다.》고 하였다. 또한 왕력에서는 동명왕은 성은 고씨라고 하면서 그 아들 류리로부터 4대 민중왕까지 성은 해씨라고 기록하였다.

《해(解)》나 《고(高)》는 그 상고음이 모두 《Ka》로서 다같이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옛날말인 《가》에 대한 소리옮김이다.

같은 음에 대한 성씨표기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나

락화 지역에 따라 고대조선훈을 한자로 옮기는데서 차이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해씨였던 정씨를 같은 음기를 가진 《고》로 바꾸어쓰는데는 고구려통치층이 자기들의 정씨에 《천손》이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켜 부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국자 고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는 과정에 모둔곡에서 만난 재사, 무골, 목거에게 각각 주씨, 중실씨, 소실씨라는 고유성씨를 주었다는 기록과 대무신왕이 부여정벌하는 길에 만난 사나이에게 부정씨라는 성을 주었다는 기록을 통해 고씨가외에도 여러가지 고유성씨들이 건국초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씨는 후에 여러 이씨로 파생되는데 그기운에는 장씨로 변성된 실베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금나라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서는 금나라 태조와 태종의 측근이었던 장호에 대하여 《료양의 발해사람이다. 본래 성은 고씨이고 동명왕의 후손이다. 증조부인 패가 료에 벼슬살이를 하면서 장씨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씨가 장씨로도 변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 갈라져나온 고씨는 그나름대로 또 하나의 종성을 이루면서 여러 이씨로 파생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씨의 하나로 백제를 건국한 부여씨를 들 수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세력이었던 사실은 그들의 혈연적계보가 고구려, 부여에 닿는다고 전한 기록들이 증명하여준다.

후선 백제인들 자신은 자기들의 혈연적계보를 고구려, 부여에서 찾았다.

《삼국사기》의 백제건국설화에서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의 아버지가 주모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 그의 조상이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같이 났기때문에 <부여>로써 성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백제의 혈

1) 《금사》권83 별전21

연적계보는 고구려, 부여로 소급되며 그의 정씨는 다음아닌 불(부루)족의 후에라는 의미에서 삼았던 부여의 국호를 그대로 자기들의 정씨로 삼았던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백제왕 온조의 시조에 대한 여러가지 서로 다른 기록들을 통한 혈연적계보에서의 일정한 차이도 보여진다.

그 갈래 기록들을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건국설화본문주석에서는 주몽이라고만 하거나 또는 주몽과는 다른 후대를 설정하고 더 소급하여 북부여왕 해부루에까지 계보를 연결시킨 기록을 들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나 《삼국유사》의 남부여, 전백제조에서와 같이 온조왕의 조상을 동명이라고 하거나 또는 《삼국유사》의 왕력에서와 같이 단군이라고 보는 기록 등 백제시조왕 온조의 조상을 어디까지로 보고 그 혈연적계보를 갖는가 하는데서는 기록이 다양하다.

이렇게 시조까지로 거스르는 백제 부여씨의 혈연계보전에서는 이러저러한 기록상차이는 있어도 다같이 고주몽, 동명, 해부루, 단군으로 이어지는 혈연계보의 기본선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위서》에 전한 백제 개로왕이 472년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자기들은 《고구려와 더불어 그 원류가 부여에서 나왔다.》고 한 기록과 《주서》나 《신당서》에서의 《백제가 부여의 별종》이라고 한 중국문헌기록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백제시조왕 온조의 조상에 대한 기록상차이는 직계조상을 어디까지로 보겠는가 하는데서의 견해상차이이지 그 혈연적계보가 서로 다른것과는 무관계한것이였다.

다음으로 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백제시조왕의 아버지가 다음아닌 고주몽입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온조가 아버지의 고씨성을 따지 않고 부여씨를 성으로 삼게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온조가 고구려와 동성이면서도 이씨하였던데는 온조집단의 고구려분리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보인다.

고주몽이 부여에 있을 당시 낳은 아들 류리가 태자로 지목되는데 불만을 느낀 비류, 온조는 고구려로부터 분리하여 남쪽으로 마한지역에 와서 자기 대로의 새 국기를 세웠다. 더욱이 건국설화에서 고주몽의 건국을 도와주었던 온조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남하하였던 사실은 고구려에 대한 온조집단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로 하여금 아버지가 새로 삼았던 고씨보다는 그들의 조상의 나라인 부여의 본래 성씨를 따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은 《삼국유사》의 《...그의 집안 계보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로부터 나왔으므로 《해》로 써 성을 삼았다.》고 한 기록과 백제의 큰 성 8씨 가운데 해씨가 있고 백제통치층내에서 북부 해씨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사실이 증명해준다.

뿐만아니라 백제는 자기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여와 함께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백제는 성왕16년(538년)에 수도를 사비(소부리)로 옮긴 후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함으로써 자기들을 고조선의 후예국인 북부여와 동등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였다.

《삼국유사》왕략에서 온조의 시조가 단군이고 그의 성씨가 부여씨(혹은 해씨)였다고 한 사실은 백제도 단군에서 길라져 나온 한겨레였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부여씨이면서 해씨로도 지칭되었던 백제의 기본성씨는 부여씨에서 해씨로 그리고 부여씨가 간략되어 여씨로 쓰여지기도 하였으며 백제멸망후에는 서씨로 변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씨족통보》

고구려, 백제와 함께 우리 민족의 중세초기 역사를 개척하였던 신라도 단군의 후예들에 의하여 건립된 나라였다. 《제왕운기》에서는 신라의 근장도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건국시조의 성씨와 신라건국집단의 혈연적계보가 밀하여준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는 건국시조 혁거세의 성이 박씨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박혁거세왕을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박이 곧 불이고 그것은 밝음, 광명을 의미하는 단군의 《부루》를 그대로 계승한 성씨라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에서는 시조 박혁거세왕을 《천자(하늘의 아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조선유민이었던 이들이 자기들도 《천손》의 피줄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지칭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단군의 후예라는 것은 신라의 건국자집단이 원래 조선유민들이었고 그들이 자기의 혈연적계보를 《하늘》에서 찾은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시조 박혁거세 즉위년조)에 의하면 《서나벌(신라)》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에 이미 조선(고조선)유민들이 6촌(6부)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로》(경주지방) 소국을 이룬 6촌의 조상들은 모두가 각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하늘(단군출신족)족의 후예들이 여러 이씨로 갈라진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6촌 주민들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가 있는 반면에 다른 편으로는 점량부(모량부)는 아버지이고 급량부는 어머니이며 습비부는 아들이고 한기부는 딸이라는 설화도 전한다. 이것은 6개촌중 4개촌사이에 이미 이주이전에 하나의 종성을 위주로 하여 그 갈백족들사이에 혈연적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종성이 다름아닌 《박(불)》이라는 것은 신라건국시조 혁거세왕이 박씨성이었던 사실과 박혁거세의 손자 박노혜왕(유리왕)이 A.D. 23년에 6촌

(6부)의 명칭을 개정하고 6부에 리씨(알천양산촌), 정씨(동산고허촌), 손씨(무산대수촌), 최씨(취산진지촌), 배씨(금산가리촌), 설씨(명활산고이촌)라는 성씨를 주었던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6촌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그들사이에 혈연관계가 맺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6부가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된것은 매개 성씨들이 종성 박씨와 편편된 고유성씨이며 이 시기에 이미 매개 집단들이 하나의 작은 종성을 이룰만큼 큰 세력으로 자라났기때문이었을것이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6촌중 혈연관계에서 아버지쪽으로 불리는 집량부에 《박곡촌(朴谷村)》《삼국유사》 권1 기이2 신라시조 혁거세왕과 같이 단군관계 지명이 있었던 사실은 신라의 건국집단이 다름이던 단군의 후예들이었던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때문에 신라에서는 솔거와 같은 유명한 화기들이 그런 단군화상을 집집에까지 걸어놓고 《《근역서화징》》라대편 솔거 자기들의 원조상으로 숭배하였던것이다.

발해의 대씨기원과 대씨의 혈연적계보에 대한 연구는 발해국의 기원과 정통성을 밝히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

발해의 혈연적계보에 대하여 발해의 대씨집단은 언제나 자기들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이야기하였다.

727년 발해 제2대 무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그와 국가관계를 시작하는 첫 국서에서 《발해국은 고려(고구려)의 옛 명토를 회복하고 부여이래의 오랜 풍습을 이어받고있다.》고 서술하였다. 또 이에 대한 당시 일본왕의 답서에는 《귀국이 고구려의 옛 명토를 회복하고 이전 고구려때와 같이 우리 나라(일본)와 국교를 가지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축하하는바이다.》고 하였다. 또한 758년 발해 제3대 문왕은 일본왕에게 보내는 국서에서 자기를 직접 《고려국왕 대흥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왕의 답서

도 《고구려국왕》에게 보내는 답서로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대씨집단이 고구려의 고씨왕통을 혈연적으로 그대로 이었으며 일본도 발해가 고구려의 혈연적계승국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발해와 동시대의 동쪽의 나라인 후기신라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기신라의 문인판료인 최치원은 당나라의 태사시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구려의 잔얼(남은 무리)이 태백산북방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고 썼다. 또한 그는 《옛날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엮었는데 그 고구려는 지금은 발해가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다음으로 13세기말 일언이 쓴 《삼국유사》는 당시까지 있었던 책 《신라고기》의 글을 인용하여 《고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인데 그는 고려(고구려)멸망후 패잔한 군대를 모아 태백산남쪽에 나라를 세워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리승휴의 《제왕운기》에도 역시 이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기슭에서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기 실학자로서 발해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던 류득공은 대조영에 대하여 《무릇 대씨란 어떤 사람인가. 곧 고구려의 망명인이다.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어디인가. 곧 고구려의 땅이다.》라고 하여 대조영이 고구려사람이라고 명확히 기록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씨와 한족속인 태씨의 족보를 기록한 《협계태씨족보》에서는 《태씨는 본래 발해국왕 대조영의 후예이고 발해는 곧 고구려의 가지족속》이라고 기록하였다.

우와 같은 기록들에 대하여 동시대에 발해와 밀접한 정치, 문화적연계를 가지었던 중국의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와 그후의 중국문헌들이 증명해준다.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이라는자는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라고 하였

다. 여기서 《고려의 별종》이라 한것은 《구당서》에서 《고려(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별종》이었다거나 《백제국은 본래 역시 부여의 별종》이었다는 기록류를 통해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와 다른 종족이거나 변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통이나 원류를 같이하는 분기된 종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것이다. 이와 함께 《신당서》의 편찬책임자인 증공량은 《무경중요》에서 《발해는 부여의 별종으로 본래 예맥의 땅》이라고 하였고 《신당서》편찬자의 한사람인 구양수는 《신오대사》에서 《발해는 ...고려(고구려)의 별종》이라 하여 부여-고구려-발해라는 혈연적계통을 밝히었다.

발해 대씨집단의 혈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그들이 고구려 고씨 집단의 출신부인 계루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것이다.

《구당서》에서는 천문명전투후 대조영이 계루의 옛 땅을 차지하였던 사실. 《책부원기》에서는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와 무양(대무예)의 맏아들 대도리행이 《계루군왕》의 칭호를 받았던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씨의 혈통이 계루부의 고씨에 그 연원을 두고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대씨의 혈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771년(대흥 34년)에 문왕이 일본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실이 곧 《전손》이라고 선언한것이였다. 《속일본기》 권32) 이 《전손》이라는 말은 단군이래 그 가문의 혈통을 이은 세력들이 자칭하였던데서 나온것인데 발해국왕이 역시 자신을 전손이라고 선포한것은 그가 자기 가계를 고구려왕실과 함께 단군의 혈통으로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대조영이 《태백산밑에서 나라를 세운 후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는데 이 《발해》국호는 《밝은》, 《밝》의 족명을 살린것으로써 대씨집단이 단군 종족계통이였다는것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러면 고구려의 왕실에 혈연적계보를 두고 고구려왕으로 일컬은 대조

영집단이 어떻게 되어 고씨를 대씨로 변성하게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과거 사회에서 같은 혈통에서 나온 자손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씨로부터 대씨가 나온것도 바로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변성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당침략군의 고씨탄압 정책에서 찾아볼수 있다.

당나라 침략자들에 의한 고구려강토의 유린으로 고구려의 모든 정치적, 문화적질서가 파괴되었을뿐아니라 혈연적계보와 성씨도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고구려의 집권층을 이루었던 고씨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당나라 침략자들은 고구려를 강점하자 고구려재생에서 중심적인 지도층이 될 고씨왕통부터 끊어버리고 멸족시키는데 달라붙었다. 이것은 통치자의 항복과 멸족이 곧 그 나라의 멸망으로 간주되던 봉건시기 피정복지역의 집권층속이 침략자들에게 당하는 보편적인 사실이었다.

고구려를 점령한 당침략군은 고구려유민의 반침략투쟁을 막을 목적으로 고구려 마지막왕 보장을 677년 《료동주도독 조선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인들을 회유무마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재지세력과 결탁하여 적극적인 반당투쟁을 벌이자 681년에는 다시 그를 끌어가서 공주(중국)로 귀양보내 죽이었다.

뿐만아니라 고구려멸망직후인 669년 4월에는 2만 8,000여호의 고구려유민들을 당나라 각지로 강제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발해건국자 대조영의 가문도 바로 이러한 강제이주로 당나라에 이주된 고구려귀족이었다. 《구당서》에서는 《고려(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조영이 영주로 옮겨졌다》고 하였으며 《오대효요》에는 《당총장(668~669년)중에...고구려멸망후 그 유민을 중국에 산거시켰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이 대조영의 이주를 기록한것으로 보아 대조영의 이주가 바로 총장(668~669년)중에 이루어졌던것이라는것을 이야기해준다.

이러한 조치는 고씨왕통을 끊어버리고 그 후손까지 뿌리뽑는 방법으로 고씨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재생을 막아보려는 당나라 침략군의 술책이었다. 때문에 보장왕의 죽음을 놓고 그들은 《고씨의 왕통이 드디어 끊어졌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침략자들의 이러한 고씨탄압정책에 대처하여 고씨가문은 자기들의 족속과 가문을 유지하고 고구려국의 재건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변성이었다.

고려왕씨들이 리성계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왕》자에 여러가지 획수를 더해 《전(全)》씨, 《전(田)》씨, 《옥(玉)》씨, 《국(國)》씨 등으로 변성하였던 것처럼 대조영가문도 원래의 고씨를 대씨로 변성하였을 것이다.

변성의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구태여 침략자들에게 한번 유린당하였던 성씨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변성으로 재건의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으려 한 그들의 감정이 반영된 것이었다고도 볼수 있게 된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바꾸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겨온 민족이었던만큼 부득이하게 변성하는 경우에도 본래성의 뜻이나 음을 살리는 원칙에서 하였다.

고구려의 멸망과 당침략군에 의한 《고씨왕통의 단절》은 그들에게 고구려재건에서 부득이한 자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던 변성에 큰 의의를 부여하게 하였다. 그들은 단군이래의 태양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고씨를 크다는 뜻을 가진 《대》자로 바꿈으로써 고구려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단군이래의 《천손》가문이라는데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나라의 재건에서 고구려유민들을 동원시키는데서도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2) 《삼국사기》권22 고구려본기 10(보장)

히 발휘하였다. 만일 대씨가문이 단군전손의 고구려왕실과 관련없는 세력이었다면 대조영집단이 고구려재건의 기치를 들었을 때 고구려유민들로부터 그렇게 열렬한 그리고 이전 고구려의 전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고구려의 고씨왕통을 이은 《고구려국왕》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발해멸망후 발해전기간 이어져온 단군이래의 혈통은 고려로 이어졌다.

첫 통일국가 고려의 성립으로 우리 민족은 혈연적단일성과 언어, 문화적공통성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굳힐수 있는 공고한 터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 혈연적단일성의 보다 공고한 기틀을 마련하는데서 주력이 된것은 고구려의 통일위업을 이어받아 나라의 통일을 주도한 왕건일족이었다.

그러나 이 왕씨의 연원과 혈연적계보에 대하여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것은 고려의 역사를 종합체계화한 《고려사》의 《고려세계》 첫머리에 인용된 《고려왕실의 조상은 역사기록이 없어서 미상하다》는 기록을 통하여 당시에도 왕씨의 연원과 혈연적세계가 묘연하였던 사실을 엿볼수 있다.

그러면 왕씨의 혈연적계보는 어디에 계보를 두었으며 왕씨성의 연원은 무엇인가.

《고려사》 서문의 《고려세계》에서는 왕건의 증조부에 대하여 《옛날에 호경(왕건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송악산)원쪽 산골에 와서 거기에서 장기를 들고 살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을 통해 왕건의 조상인 호경은 원배 《성골장군》이라 자칭할만큼 지체높은 가문의 출신이었던것과 일정한 원인으로 고장을 버리고 남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주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왕건일족의 혈연적계보에 대해 후당(923~936)은 933년 3월 고려에 보낸 서한에서 왕건에 대하여 《주몽이 건국한 전통을 계승하여 그곳의 임금으로 되었다.》고 썼고 서국은 《전화봉사고려도경》에서 《왕씨의 조상은 고구려의

귀족이다. 고씨의 정치가 쇠약해지게 되어 나라사람들이 어진 사람을 내세울 때 드디어 공동으로 내세워 군장으로 삼았다.»고 썼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세계》에서 호경이 왔다고 하는 백두산이 고구려와 발해를 가리킨 것이며 《성골장군》이라 표현된 내용은 그들이 고구려에서 지체높은 가문이었던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왕건가문의 혈연적계보가 고구려에 닿는다는 사실은 고려가 단군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내세우고 숭배하였던 고구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한데서도 뚜렷이 판명된다.

그것은 당시 고조선의 옛 수도였던 서경(평양에 단군사당이 있었고 해마다 팔관제를 지낸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다. 《고려사》 폐지에는 《명종 20년(1190년) 10월 갑신에 사신을 서도(서경-평양)에 파견하여 예조(태조-단군)의 제사를 지냈다. 서도는 예조가 일어난곳이다. 지금까지 그 모양에는 의관이 남아 전한다. 때문에 후세의 왕조는 연동, 팔관때마다 대신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고려가 단군을 태조(시조)로 인정하고 그를 숭배하였던 사실을 알수 있다.

왕건은 립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남긴 유서인 10훈요에서 10월의 단군 숭배제사인 팔관제를 장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123년에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람 서공은 당시 고려에서 벌리던 팔관에 대하여 《왕씨가 나라를 차지한이래로 ...그 10월 동맹(고구려의 10월 동명제사)의 모임을 지금은 그달 보름날에 음식을 갖추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일러 (팔관제)라고 하여 폐의를 극히 성만하게 벌린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초기에 10월에 진행하던 팔관모임은 곧 고구려때에 단군을 숭배하여 벌리던 10월 동맹의 계속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에서는 팔관모임을 수도 개경과 단군사당이 있는 평양에서 벌리었는데 개경에서는 11월에 진행하였고 평양에서는 10월에 하였다.³⁾

같은 조상을 원시조로 하는 후손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문종의 시조를 자기 조상으로 숭배하거나 제사지내지 않는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다.

고려가 단군을 원시조로 숭배한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숭배한 사실은 바로 고려의 왕씨가문도 그 혈연적계보가 고구려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더우기 고려에서 단군이 태어나고 묻힌 평양을 《우리 나라의 지맥의 근본이고 대업판대의 땅》이라고 하면서 단군제사를 진행하여온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들도 단군에 혈연적계보를 둔 한 가문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왕씨가 고구려와 혈연이 같았을뿐 아니라 그 성이 고구려의 고씨나 다름이 없었던 사실은 고려가 고구려의 혈통을 이은 발해를 친척의 나라라고 하면서 망명해온 발해인들에게 왕씨성을 주고 왕실족보에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다.

고려가 발해를 친척의 나라로 여긴것은 940년대초에 후진과 반거란공동전선형성을 위한 교섭을 서역의 중 멀리에게 의뢰하면서 왕건이 《발해는 본래 우리와 친척이 되는 나라》라고 말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자치통감》 권285 후진기 제왕개운 2년 10월 기사

뿐만 아니라 고려는 발해가 망한 후 망명해온 발해세자 대평현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그를 왕실족보에 등록해주었다.⁴⁾ 또한 왕건이 망명해온 발해사람 고모한을 자기 사위로 삼은것⁵⁾도 발해 대씨나 고씨를 자기들과 혈연이 같은 동족으로 간주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의 왕씨도 대씨, 고씨와 같이 단군의 혈통을 이은 족속이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왜 왕씨로 변성하였겠는가.

3) 《고려사》 권69 지23 가례잡의 중동팔관회의

고씨로부터 왕씨라는 《동성이씨》가 나오는데도 역시 고씨의 대씨변성과 같은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왕건의 증조부가 고구려 귀족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장을 떠나 남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과 왕씨가 고씨의 쇠약으로 등장하였던 사실을 통해서 엿볼수 있다.

특히 안록산의 반란에서 궤지희와 함께 싸워 공로를 세우고 호부상서 궤국공의 봉을 받았던 왕사베도 《당서》의 《재상세계표》에 《영주 왕씨는 원래 고구려족이다.》라고 한 기록과 외몽골지방의 변경을 수비하는 대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왕건위가 고구려멸망후 영주에 끌려온 고구려 유민이었던 사실로 보아 왕씨 역시 대씨와 같이 고씨로부터 변성된 또 하나의 이씨일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해준다.

왕씨성의 유래에 대하여 왕씨가 나라를 통일한 의미에서 흙 토번(土)에 한 일(一)획을 더하여 왕(王)씨로 만들었을수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고려초기 중 도선의 왕씨연원에 대한 견해를 보면 《〈기장〉과 왕은 조선말로 비슷하기때문에 태조는 〈왕씨〉로 성을 삼은것이다.》라고 하여 《왕》씨를 《기장》이라는 고유음과 연결시켰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왕대종족기》에 왕건의 조상의 성이 왕씨로 기록되어있었기때문에 왕건대에 와서 왕씨로 성을 삼은것은 아니므로 기장발음에 의한 왕씨기원설은 거짓이라고 비판하였다.

물론 왕씨성이 왕건이전부터 쓰이였으므로 도선의 기장설은 부정되지만 왕씨가 고유음의 반영이었다는데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

변성에서 기본원칙은 혈통의 계승성을 살리는것이였다.

왕씨의 변성도 역시 단군의 혈통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동사촬요》

4)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12월

5) 《료사》 권76 별전 고모한

에서는 단군의 성을 왕씨라고 하였다. 물론 단군의 성은 왕씨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나오게 된다는 일정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허목의 《동사》를 비롯한 단군의 기록을 남긴 역대 많은 문헌들에서는 단군은 성이 단씨이고 이름은 왕검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왕씨집단이 고씨씨약후 단군의 혈통을 잇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자에서 왕의 음을 빌어 자기들의 성씨로 삼고 단군의 성씨도 왕씨로 기록하여놓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단군에서 시작된 조선식성씨는 부여, 고구려(백제, 신라,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자기의 혈맥을 계승하면서 조선식의 고유한 성씨로 발생, 발전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이씨로 파생되었다.

다음으로 조선고유성씨의 형성발전과 관련하여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본관(본)에 대한 문제이다.

본(본관)은 본적, 관적, 향관, 씨관 등이라고도 하여 가문의 원조상이 오랫동안 살았던 고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관(본)을 성씨와 결부시켜 혈연적계보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만 특유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본관(본)을 성씨와 결부시켜 아무리 성씨가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그 혈연적계보가 다른 것으로 길러보았다.

본관을 성씨와 결부시켜 혈연적계보를 따지는 것도 단군조선시기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첫 건국지를 《단군》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박달족임금》이라는 말이다.

《박달》의 《박》은 《백산》, 《백악》의 백과 같이 밝음, 평평을 뜻하는 말로서 그 어원은 부루이며 《달》은 산을 뜻하는 고어였다. 이 《박달》은 부루족이 사는 산(땅)이라는 뜻과 함께 단군이 태어난 곳을 가리키는 고장이름이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비롯한 단군의 출생을 전한 기록들에서 단군의 출생지는 태백산으로 기록하였다.

단군의 출생지 태백산은 단군의 혈통을 이어 그 성씨를 따던 세력들에 의하여 그들의 본관(본)이 되었다.

고구려건국전설에서는 금와가 주몽의 어머니를 태백산남쪽 우발수가에 서 발견하였다고 하였고 발해의 건국을 전한 기록에서는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유민을 데리고 태백산밑에서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도 왕건의 증조부가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고구려, 발해, 고려 3국이 그 지역과 건국자는 다르지만 국가의 발상지(발해)나 시조의 어머니(류화)나 조상(고려)의 출현과 관련하여 태백산을 들고있는것은 그들모두가 그곳을 원시조단군이 태어난 신성한 출생지로서 성씨는 비록 이씨로 파생되었어도 본관(본)은 같았다는것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 민족 고유성씨는 바로 단군에 그 기원을 두고있으며 《부루(박-단군씨)》씨를 종성으로 하여 여러 이씨로 갈라지고 그 이씨들이 또 하나의 작은 종성을 이루면서 단군혈통의 단일성을 줄기차게 이어왔고 단일민족형성에 이바지하였던 역사적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자기들을 민족의 혈연적단일성의 기틀을 마련해준 단군과 련관시켜 《배달민족》이라고 긍지높이 부르는것이다.

제2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1.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과 그의의 (남일룡)
2.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역사적 의의 (김덕성)
3.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찰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손영중)
4. 고구려사람들의 상무기풍 (김은택)
5. 고구려가 동아시아문화 발전에 논 역할 (송순탁)
6.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 (손수호)
7. 고구려산성의 특징 (지승철)
8.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 (리승혁)
9.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조희승)
10. 국내성 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에 대하여 (최승택)
11.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 대하여 (김경삼)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과 그 의의

남일평종합대학역사연구소 고고학 강좌장 박사(부교수)

고구려는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서 근 천년동안이나 동방의 대강국으로 내외에 명성을 떨치었다.

이러한 고구려국가의 기틀을 이루어놓은 것은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이었다.

그러므로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에 대하여 잘 밝히는 것은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선도적이며 중심적역할을 수행한 고구려 역사를 옹계 체계화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전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고구려봉건국가의 창건자는 동명왕이다.

고구려국가의 창건자인 동명왕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건국과정에 대하여서는 고구려건국설화들에 반영되어 오늘까지 전하여지고있다.

고구려건국설화가 실려있는 역사자료들로서는 고구려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루묘지명, 그 이후의 우리 나라 기록들인 구《삼국사》《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리고 중국기록들인 《위서》, 《주서》, 《량서》, 《북서》등을 들수 있다.

여러 역사기록들에 실려있는 설화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치하게 동명왕의 이름은 주몽이고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

《통왕》의 딸이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동명왕은 B.C. 298년 4월 부여에서 출생하였고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고 전하고있다.

건국설화들에서 동명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자기 시조왕을 신처럼 숭배하고 자기 나라를 가장 신성한 나라로 생각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동명왕은 B.C. 277년에 지금의 환인지방에서 구려국의 왕위를 잇게 되면서 새로운 봉건통치체제를 세워 고구려봉건국가를 창건하였다.

구려국은 오늘의 압록강 중류, 장지강의 혼강류역, 태지하와 혼하의 상류지역을 차지하고있던 고대노예소유자국가였다.

동명왕이 나라를 세울 당시 구려국의 주변지역에는 고조선, 부여 등의 고대국가들과함께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 랑백국, 개마국, 구다국 등 여러개의 소국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당시 구려국을 비롯한 여러 고대국가들에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봉건국가형성의 사회경제적조건들이 성숙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B.C. 수세기이후의 이 지역 무덤들에서 순장제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찾아볼수있다.

이 시기의 무덤들에서는 움무덤, 돌곽무덤, 돌관무덤, 돌무지무덤 등 다양한종류들이 있었으나이 무덤들에서는 순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¹⁾

B.C. 1000년기의 대표적인 노예주의 무덤이라고 볼수 있는 집안현 오도령구분무덤²⁾, 환인현 대전자돌무지무덤이 바로 그라하다.³⁾

이것은 농예적인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의 견결

1)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77(1988)년

2) 《고고》(중문) 1981년 5기, 467페이지

3) 《료녕문물》(중문) 1981년 1기, 27~28페이지

한 투쟁에 의하여 노예주들이 그전처럼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노예제에 금이 가고 노예소유자사회태 내에서 새로운 봉건적관계들이 움터자라나고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B.C. 1000년기 후반기에 구려를 비롯한 주변지역들에서 더 높게 발전한 철기문화는 노예제의 붕괴와 봉건화과정을 촉진시켰다.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풍창리 등 유적들에서는 쇠도끼, 쇠창, 쇠검, 쇠피고리, 쇠손칼 등 선철, 강철 제품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구려에서 봉건국가가 성립될무렵에 제철, 제강기술이 높은수준에 이르렀고 질 좋은 무기, 공구, 농기구들이 많이 생산되어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봉건적관계가 더한층 성장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동명왕은 이러한 구려의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봉건국가를 세웠던것이다.

동명왕의 고구려건국과정은 건국설화들에 비교적 잘 나타나고있다.

동명왕(주몽)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과정은 그가 부여에서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주몽은 부여왕실에서 박해와 모해를 받았고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자 뜻을 같이하여오던 오이, 마리, 험보 등과 함께 부여땅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오는 도중 모둔곡에서 세사람을 만나 함께 졸본땅에 이르렀고 졸본천(비류수)기슭 서쪽언덕에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

주몽이 왕으로 된 경위에 대하여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조에서는 주몽이 구려(졸본부여)왕의 사위로 되었다가 왕이 급병으로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데서는 주몽이 졸본에 와서 졸본사람인 언타발의 딸이며 후태의 처였던 과부 소서노와 결혼하여 그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자료들은 동명왕이 졸본부여 즉 구려국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고구

려봉건국기를 세웠으며 고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구려국을 계승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자료들은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이 B.C. 1세기 초엽이나 중엽이 아니라 B.C. 3세기 초엽, 구체적으로는 B.C. 277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진나라보다도 반세기나 앞서 역사무대에 등장한 오랜 봉건국가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동명왕에 의하여 건국된 고구려는 10여년 사이에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를 통합함으로써 큰 나라로 되었고 그후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었다.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국가의 건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고구려건국과 더불어 지난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한 보루가 마련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고구려의 서쪽에 있던 봉건세력들은 부단히 고구려를 비롯한 우리 민족국가들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였으며 때로 대규모의 무력침공을 감행하곤 하였다.

서북방의 유목종족들의 침입과 동쪽 발갈족의 침습도 나라와 겨레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전반적인 대외정세는 나라의 북방에 강력한 국가가 서서 침략세력들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존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자체의 존재도 지키내기 어려운 심각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고구려는 건국이후 국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였으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려 동아시아의 정치정세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우리 나라의 북방을 항상 공고하고 믿음직하게 수호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담보하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근 1,000년 존속하는 기간 수십차례에 걸친 외적들의 대규모

적인 부력침공에 맞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위용과 기개를 떨쳤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한나라를 비롯하여 수나라, 당나라의 침공을 물리치는 전쟁은 우리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강대한 고구려의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극복되었다.

삼국시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는 고구려의 커다란 역할은 강대한 국가의 기틀을 이루어놓은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고구려건국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의 봉건화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것이다.

우리 민족력사상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봉건사회의 시초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주변나라들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 전반적지역에서의 봉건국가들의 성립을 촉진시켰다.

B.C. 219년에는 고구려의 주동적인 공세로 부여노예소유자국가가 멸망하였는데 이것은 봉건부여국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고구려의 이웃에 있던 여러 소국들의 통합을 위한 투쟁,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에 새로 고구려땅이 된 넓은 지역들에서 봉건적사회관계가 급속히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왕실의 한갈배는 남쪽 진국의 기본세력을 이루고있던 마한의 북쪽지역에 뚫고 들어가 백제봉건소국을 세웠으며 B.C. 1세기말에는 백제봉건국가가 성립되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은 신라, 가야의 봉건국가성립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봉건국가의 건국은 지난날 우리 나라 사회발전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고구려건국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우리 나라 통일국가형성과정을 촉진시켰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데 있다.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힘썼으며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거베와 강토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한나라 침략자들이 강점하였던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았으며 또 국토와 거베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어나감으로써 통일위업을 완성단계에까지 올려세웠다.

고구려는 3~6세기 중엽에 북쪽에서 후부여의 전지역을 통합하였다.

남쪽으로도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밀고나감으로써 6세기 초엽에는 조선반도 중부이북지역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국토통일위업을 완성단계에 올려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의 정세변화로 말미암아 이 위업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고구려가 달성한 성과는 그후 고려가 10세기초에 통일국가로 되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에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도 급속히 발전하여 그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는 주변나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무기제작기술이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발전된 야금기술 특히 제강기술에 기초하여 우수한 무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외적을 물리치는 전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고리자루칼이 생산되어 많이 쓰이었는데 이 칼은 백제, 신라, 가야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전투와 교통운수에서 말을 많이 리용하였으며 따라서 마구도 매우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발전된 마구는 백제, 신라, 가야 등 나라들에 영향을 주어 이 나라들에서의 마구발전을 촉진시켰다.

고구려에서는 성곽축조기술도 일찍부터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외배침락이 빈번한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방위력이 높은 튼튼한 산성들을 수없이 쌓았다.

고구려의 우수한 축성기술은 백제나 신라에도 영향을 주어 《고로봉식》 산성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무덤건축술도 발전하여 돌기단무덤, 돌칸흙무덤 등 무덤건축에서의 높은 기술들이 창조되었다.

고구려의 이러한 무덤건축기술은 백제, 신라, 가야에 영향을 주어 이 지역들에서 고구려의 특징적인 무덤형식들인 돌무지무덤, 돌칸흙무덤, 벽화무덤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이러한 영향은 우리 민족사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였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참으로 고구려의 건국은 우리 민족사의 자랑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고 고구려역사연구에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역사적 의의

김덕성(김형직사범대학 역사학부 역사학박사(강좌장))

지난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는 427년 수도를 국내성(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겼다.

이것은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것이 삼국시기 우리 나라 사회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었다는 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강대국의 위용에 맞게 수도를 잘 꾸리며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지는 않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산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수도 국내성은 동방의 강국으로서의 지위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수도로서의 역할은 물론 특히 삼국통일을 위한 남방진출을 적극 다그쳐나가는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였다.

평양천도는 또한 고구려가 조상의 도움을 찾아 고조선의 수도였던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민족의 성지인 평양으로 돌아와 그 전통적지위에 의거하여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울 것을 지향한것과도 관련되어있었다.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은 수천년간 번성해온 고대시기 정치, 경제, 문

화의 중심지로서 《대동강문화》의 발상지였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정치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이 지방의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삼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유리하였다.

물론 당시까지 기본수도였던 국내성은 압록강유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고장이고 압록강의 수운을 리용한 교통수도 편리한 곳이었으며 또 주변 수백리가 산간지대이므로 수도방위상으로도 유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국내성은 바로 이러한 험한 산간지대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하여 이제 와서는 넓어진 국토를 통치하는데서나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지배계급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보장하는데서는 불편한 곳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수도는 산간이 아니라 평야지대이며 수륙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한데 있어야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성을 수도로 삼고있는 것은 당시 나라의 기본정책으로 된 남방진출을 실현하는데서도 적지 않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되었다.

4세기말 이후 본격적이며 적극적인 남진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남쪽 영역이 확장되어 충청북도일대까지 나가게 된 조건에서 전선과의 연계를 잘 보장하고 임의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여도 신속정확한 대응책을 취하려면 결정적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하였다.

국내성에서 충청북도로 가려면 1,500리가 되지만 평양에서는 천리미만이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된 것은 이 시기까지에 평양과 그 이남지방의 경제발전이 더욱 촉진되어 봉건국가의 재정원칙이 적지 않은 부분을 이 지방에서 담당하게 되었기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와 공물 등 수많은 물동량을 멀리 떨어진 국내성으로 나른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며 불합리한 일이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아도 평양천도는 사할적인 문제로 되었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수 있게 된 것은 또한 당시 서북방의 정세가 완화, 안정되었기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북연과는 우호적관계가 지속되고있었고 북방을 소란스럽게 하면 거란, 숙신등이 제압된 조건에서 북방의 근심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던것이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수 있게 된 것은 또한 4세기말까지에 평양이 기본 수도로 될 수 있으리만큼 큰 도시로 장성되었던것과도 관련된다.

393년에 고구려가 불교를 적극 선전할 목적에서 평양에 9개의 절을 단꺼번에 지은것도 당시 평양에 인구가 많았으며 넓은 주민지대-도시구획들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렇게 방대한 규모로 절건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왕궁이나 별궁, 관청들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들이 이미 있었거나 새로 건설되었을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평양이 이와 같이 큰 지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곳으로 된 것은 평양천도를 더욱더 성숙된 것으로 되게 하였다.

평양이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기본수도로 된 것은 427년이지만 천도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강하게 추진시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4세기 말엽부터였다.

광개토왕통치시기에 이미 시작되었던 평양건설은 412년에 그가 죽은 후 414년 9월까지 그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태왕릉)을 만드는 일이 끝난 다음 그의 아들인 장수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 시기 수도건설은 왕궁건설, 산성건설, 관청, 공공건물의 건설, 도로, 교량건설, 능묘건설, 도시구획건설 등 여러 방면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평양건설에서 중심대상으로 된 것은 대성산성의 보강 및 증축공사와 왕궁인 안학궁건설공사였다.

그것은 수도를 옮기자면 무엇보다도 수도를 보위할수 있는 수도성과 궁

성이 있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4세기말~5세기초에 완성된 대성산성은 안학군 북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750m, 산성남문까지는 약 1,500m밖에 안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

대성산성은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등 6개의 봉우리들을 편결하는릉선과 산허리를 둘러막은 성으로서 전형적인 고로봉식 산성이며 둘레 7,076m, 남문부근의 2중성벽, 서문부근의 3중성벽까지 합치면 성벽의 총 길이가 9,284m에 이른다.

안학군은 대성산의 소문봉 바로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한번의 길이가 622m인 약간릉형으로 된 4각형의 토성으로 둘러싸여있다.

면적은 약 38만㎡이고 그안에는 총 건물 3만 1,458㎡되는 52개(궁전 21, 회랑 31)의 건물을 세웠다.

이밖에도 대성산성 남쪽에는 큰 규모의 도시구획건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준비사업이 진행된 기초우에서 마침내 고구려는 427년 기본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기었다.

427년 고구려가 400여년간 기본수도로 삼고있던 국내성을 부수도로 삼고 평양을 기본수도로 정한 것은 고구려의 사회력사발전, 나아가서는 조선중세시기의 사회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었다.

평양천도의 역사적의의는 첫째로, 우리 나라의 민족사발전에서 평양이 차지하는 역사적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민족의 성지로서 평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고조선에 이어 더욱 높여주었다는데 있다.

평양은 그 산수수려함과 온화한 기후로하여 인류발상지, 민족의 발원지로 되었으며 우수한 원시문화가 창조된 유구한 고장이다.

이러한 평양에서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출생하고 단군에 의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되었으며 따라서 평양은 3,000여년간 고조선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사를 아로새

졌다.

이 과정에서 평양은 국가의 수도로서뿐 아니라 민족의 성지로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고구려는 바로 조선민족의 발원지, 민족의 성지로서의 평양의 전통적지위에 의거하여 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국토통일위업을 성취하려고 평양전도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평양전도의 역사적의의는 둘째로, 그것이 평양을 고구려에 의한 국토통일위업수행의 책원지로서, 강력한 후방기지로써 더욱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데 있다.

평양에 기본수도가 들어앉게 됨으로써 전국각지의 조세와 공물은 룡로와 수로를 통하여 평양에 집중되게 되었으며 또 많은 주민들이 평양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평양의 생산집재력은 현저히 증대되고 농업과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평양이 번성하는 대도시로 되고 고구려의 국력이 더욱 강화된 것은 고구려의 중심으로 나라와 거베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지향을 더욱 강력한 것으로 되게 하였다.

평양에 강대국 고구려의 수도가 자리잡게 된 것은 백제와 신라, 가야, 왜 등에 대한 고구려의 정치군사적영향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 시기 신라는 계속 고구려의 보호필에 있었으며 고구려의 선진적인 정치제도, 군사제도, 기술과 문화를 섭취하기에 힘쓰고 있었다.

백제통치배들도 역시 407년 이후 수삼년동안 감히 고구려와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못하였으며 고구려의 앞선 제도와 경제문화적성취를 받아들여 국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가야의 동향은 기록이 없어서 알수 없으나 가야에서 452년에 왕후사를

세웠다는 《가락국기》의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불교의 공인이 오히려 신라보다 앞섰다는 사실, 좀 후의 일기기는 하나 고구려의 《탁랑동사》에서 만든 불상이 가야평인 의령지방에서 나온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가야 역시 고구려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의 강화와 그에 의한 국토통일을 바라지 않았던 백제, 신라, 가야의 봉건통치배들은 그후 연합하여 고구려와 맞서려고 하였으나 강대한 고구려의 남침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5세기 말엽~6세기 초엽에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를 크게 제압함으로써 국토통일위업을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밀고나갔는데 그 과정에 평양이 큰 역할은 실로 컸다.

국내정보보다도 700여리나 남쪽에 위치한 평양에 있던 고구려의 통수부는 백제, 신라, 가야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적절하게 해소하고 군사작전들을 보다 신속하게 전개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평양이 기본수도로 된 것은 조선반도서북지방에 대한 고구려봉건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고구려의 서남지방이 공고화되고 식량과 무기무장과 군사물자들을 제때에 생산, 수송하게 된 것은 남부전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이것은 삼국통일위업수행에서 평양이 강력한 후방기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평양전도의 역사적의의는 셋째로, 그것이 고구려의 전반적경제, 문화발전을 비삼히 촉진시켰다는데 있다.

원래 평양지방은 원시시대 특히는 고조선시기이래로 조선반도서북지방에서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다.

고구려가 평양지방으로 진출한 후 특히는 247년 평양을 부수도로 삼은

후 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큰 힘을 기울인 결과 4세기말~5세기초까지의 150여 년 사이에 평양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되고 있었다.

427년에 기본수도로 된 것과 관련하여 수도건설이 대규모적으로 추진되고 전국의 인적 및 물적자원이 집중되게 되었으며 도로망이 정비되고 수상운수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일대의 농업, 수공업생산과 상업, 대외무역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평양에서 발전한 생산기술과 선진문화는 전국에 보급되어갔으며 각 지방의 경제, 문화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다.

평양부근의 유적유물들과 특히는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보이는 농기구, 일용품, 무기무장, 건축술, 공예품 등이 다른 지방의 무덤벽화 또는 꺼묻거림들과 공통되는 것이 많다는 사실만 보아도 수도와 지방중심지들 사이의 경제문화적연계가 밀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다.

5세기이후에 해당되는 대동강, 재령강류역의 수많은 벽화무덤들은 평양부근의 문명개화의 높이를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룡동성 등지에서 그와 류사한 같은 시기의 유적유물들이 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평양이 수도로서 지방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가늠해 볼수 있게 한다.

평양의 번영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유능한 기술자, 상공인들의 수도로 집결되게 되었던 사정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또 반대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통치제도가 있었기때문에 지방에 대한 수도의 영향은 보다 광범하고 깊이 침투되었던것이라고 할수 있다.

평양전도의 역사적의의는 넷째로, 서부 및 북방의 외백집락세력은 물론 남방에서 고구려에 대항하던 백제나 신라를 보다 쉽게 견제함으로써 수도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나라의 대외적위신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다는데 있다.

평양에 기본수도가 옮겨짐으로써 수도로부터 서북국경과의 거리는 500리이상 더 멀어지고 중간에는 수많은 방어선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외태침략자들로 하여금 고구려의 수도를 넘겨다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되게 하였다.

물론 427년이후 6세기말까지 고구려를 엿보는 큰 침략세력은 없었다.

그러나 북조의 위나라(북위), 주나라(북주) 등의 침략기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또 6세기 중엽에는 돌궐세력의 침공도 있었다.

그렇지만 평양은 전선에서 수전터나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외태침략세력의 침습을 받을 우려는 거의 없었다.

또한 남쪽지방에서도 수도를 보위하기 위한 성곽방위체계가 몇겹으로 형성되어있었으므로 수도의 안전은 완전히 담보되었다.

평양에 이르는 도중에 방어시설, 방어력량이 조밀하게 배치되고 평양성의 방어도 강하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각지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고구려의 국력이 현저히 강화된 것은 나라의 대외적위신과 영향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북위나 남조의 송나라가 436~438년사이에 북연왕풍홍의 고구려방병과 관련하여 한때 고구려와 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있게 되었을 때에도 감히 고구려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고구려의 힘이 강대하였고 그 대외적 권위가 높았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북위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 고구려사신을 최상급으로 우대하였으며 북위와의 사이에 외교사절단이 배왕한것만 하여도 80여차례에 달한다.

평양천도후 평양을 찾아온 다른 나라 사신들과 상인들은 평양의 방대한

도시규모와 번창한 거리를 보고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이 시기 왜국도 고구려의 강한 정치문화적영향을 받았다.

고구려는 큰 나라로서의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왜국을 대하였다.

그것은《일본서기》응신기 28년조(5세기초에 해당)에 《고구려왕은 왜왕에게 지시하노라》라는 국서를 보낸 사실이 기재되어있는것만 보이도 알수 있다.

그후 5세기 중엽에 왜국에 대한 고구려의 경제문화적인 영향은 현저히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기본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진 것은 고구려의 사회경제 발전과 군사력강화에서 하나의 전환적계기로 되었으며 이웃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삼국통일정책의 추진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영예와 대외적지위를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427년 평양천도는 그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로 하여 고구려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력사의 화원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손영중(사회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근 1,000년동안 존재한 고구려는 경제, 문화발전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던 선진국이었을뿐 아니라 군사강국으로서 높은 위세를 떨침으로써 민족의 존엄을 빛내인 나라였다.

고구려는 수십차례에 걸쳐 침입해온 외적을 그때마다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특히 612년 고구려-수전쟁때에는 300만의 침략대군을 여지없이 격파, 분쇄하여 중세 세계전쟁사에서 류례없는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온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고 645년, 661~662년에도 당나라 통치배들이 내몬 100만 대군에게 침해를 안김으로써 군사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널리 떨치었다.

고구려는 또한 같은 겨레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변함없이 투쟁하였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믿음직하게 지켜냄으로써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새와 방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동방 아시아의 광대한 병토와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삼국시기 민족사발전을 주도하였으며 후세까지도 우리 나라의 력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구려사람들속에서 상무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었기때문이다.

고구려인민들은 봉건시대의 사회력사적환경에서 통치계급의 억압과 착

취를 받았으나 일단 외백척락자들이 쳐들어오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사생 결단으로 용감히 싸웠다.

그것은 만약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국토가 놈들의 발발굽아래 유린 당하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처지들과 한 고향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외적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자주정신이 강한 고구려인민들은 높은 향토애와 애국심을 지니고 언제나 외백척락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며 평상시부터 무술을 연마하는 것을 자기의 응당한 본분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창쓰기를 익히었다.

《구당서》, 《신당서》의 고려(고구려)전에는 고구려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도 힘을 모아 거리와 마을들에 경당을 세우고 미장년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활쏘기 등 무술을 연습시켰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바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국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연마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사람들은 어떤 대적의 침공도 두려워함이 없이 맞받아나갈 싸움터 마다에서 무비의 용맹을 펼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었다.

거듭되는 반침략투쟁에서의 승리는 고구려인민들의 자주적인 정신을 더 높여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비굴한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건걸히 투쟁할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으로 고구려봉건국가가 시종일관 군사중시의 정책을 실시하였던것과 관련된다.

고구려봉건국가는 대륙방면으로부터 강대한 외적이 쉴사이없이 쳐들어오는 조건에서 수십만의 상비무력을 보유하고 군사적요충지들에 나누어 배치하고있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 100만 대군을 동원할수 있게끔 《병농일

치》《국민개병》의 원칙에서 봉건적의무병역제도를 실시하였다.

고구려군의 주력을 이룬 것은 사노비들을 제외한 광범한 자영농민을 비롯한 양인신분인민들이었으며 그들의 절대다수는 농사를 짓고 방목과 사냥을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체로 무기무장을 갖추고 싸움터로 나갔다.

귀족자제들도 군사교육을 받고 군사복무를 하는 것을 영예롭고 도덕적인 것으로,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였다.

고구려국가는 고려때의 군반씨족과 같이 하급귀족들과 양인상층으로 직업적군인층을 이루게 하고 상비부력의 근간으로, 유사시 지휘관의 후보원천으로 삼고 있었으며 무술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봄 3월에 무술경기대회를 조직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귀족출신도 무예를 통달하지 않고서는 높은 벼슬에 임명될수 없었다.

고구려봉건국가는 평상시에도 정연한 군사통수체계를 세우고 있었다.

봉건국가는 보병과 기병, 각종 전문병종들로 구성된 강력한 중앙군을 편성하였으며 왕당(국왕직속부대)을 비롯한 여러 당(후세의 위, 사단급)들을 두고 그 지휘관을 대모탈(장군급)이라 불렀으며 그 밑에 말객(중령장급)을 비롯한 각급 부관들을 두고있었다.

그리고 중앙군을 중, 좌, 우의 3군(군단)으로 편성하고 그 사령관으로서는 3군대장군을 임명하였다.

유사시에는 국왕자신이 최고통수자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전투를 지휘하기도 하고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기까지 하였다.

또 고구려봉건국가는 주, 군, 현 등 각급 통치단위의 행정기관으로서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의 통솔자로 되게 함으로써 행정-군사단위의 일치성을 보장하였다.

주 장관인 녹살은 도독으로 불리웠고 주안의 지방군을 통솔, 지휘하였으며 그 밑에는 군사관계를 맡은 가라달(장사)이 있었고 군에는 처려군지(백수)와

군두(발각급)가 있어서 군내의 군사들을 지휘하였으며 현에는 루초(현령)가 현의 상비부력을 통솔하였다.

이밖에 국방상 중요한 성들에는 진이 설치되고 해당한 진장이 배치되었다.

고구려봉건국가는 전국에 강력한 성곽방위체계를 형성하였다.

산간지대가 많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었던 고구려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로서 여러성들이 호상 긴밀한 관계속에서 방위하는 성곽방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그것은 실지 여러 반침략투쟁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고구려에는 근 1,000개에 달하는 대, 중, 소의 산성, 평산성, 평지성들이 있었고 전국은 크고작은 수많은 군관구들로 나뉘어져있었다.

하나의 큰 성을 중심으로 몇 개의 중성, 소성, 보루들이 한개의 단위로 된 지구방위체계가 형성되어있었고 하나의 기동성을 중심으로 몇 개의 군사적 단위들이 모여 큰 군관구(주단위)를 이루었으며 그것들이 련결되어 전연, 전방 방위체계(해안방위체계 포함), 중심방어체계가 형성되었다.

또 수도성과 그 주변의 여러 성들로 수도방위체계가 형성되어있었다.

어느 하나의 지구, 어느 하나의 전선이 무너지더라도 이웃 성곽방위체계는 끄떡없이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그것들이 서로 련합하여 반공격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밖에도 전방과 중심에는 몇 개의 장성방위체계가 있어서 전국이 하나의 큰 요새로 되고있었다.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서 수십, 수백만의 대적들을 상대로 장기전을 벌려 승리할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조밀하면서도 정연한 성곽방위체계에 튼튼히 의거하였다는데도 있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던 고구려는 자체의 강력한 수구부력도 가지고 있

었다.

233~234년에 고구려는 오나라 망명자들을 본국으로 불러보낼 때 호위 무력을 달려보냈는데 이것은 강력한 수군이 건설되어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330년에 후조에, 343년에는 동진에, 410년경에는 남연에 그리고 그후 남조나라들에는 여러차례 발해와 서해를 거쳐 외교사신을 보낸것도 수군의 호위를 전제로 한것이였다.

4세기말, 5세기초에 고구려가 수군무력을 리용하여 상륙작전을 벌려 백제수도 한성을 들어진것, 신라해변을 정찰하면 왜인을 처단한것, 후연의 연군을 공격한 것은 다 수군무력을 리용한것이였으며 476년과 484년에 백제가 남조의 송나라, 제나라에 보내는 사신들의 앞길을 고구려수군이 차단한것, 607년에 백제의 송산성, 석두성(충청남도 당진군 대진리)을 공격, 함락시킨것, 648년에 당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던 신라의 김춘추가 탄 배를 수색하여 가자 김춘추(온군해)를 죽인 것 등 여러 사실들은 고구려수군이 동, 서해에서 수백년을 두고 계속 활약하고있었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서 수군무력강화에도 큰 힘을 돌리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 고구려는 군사 통신,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역참, 봉수체계도 정연하게 갖추고있었다.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고구려의 군사력이 강력한 경제력의 의하여 안받침되어있었다는데 있다.

전쟁의 승패는 후방군사물자, 무기무장을 얼마나 잘 보급하는가 하는데도 중요하게 달려있다.

농업, 축산업이 발전되어있던 고구려에서는 유사시에 쓸 군량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여 두었고 군마와 소 등 기마용, 운수용축력도 많이 갖추고있었다.

645년전쟁 당시 료동성에 50여만석, 크지 않은 개모성에 10여만석의 양곡이 축적되어있었고 안시성전투에 동원된 고구려군이 예비로 끌고다닌 소와 말은 각각 5만여필이나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제철제강업을 비롯한 수공업의 여러 부문이 발전하였다.

무기무장 가운데서 초보적인 것, 손쉬운 것은 군사들이 마을의 야장간들에서 자체로 만들게 할수 있었으나 질 좋은 환두대나 장검, 쇠뇌, 포노, 투구, 갑옷 등은 대개 전문적인 수공업장들에서 만들어야 하였고 대량적으로 소비되는 화살, 활촉 등은 수공업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공물, 조세대납품에 의존하기도 하였으나 국가관청 수공업장들에서도 대량생산하여 예비를 많이 조성하여야 하였다.

또 함선들과 운세, 충차등 공성무기 같은 것은 국가수공업장들에서 제작하여야 하였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강력한 기마군단을 가지고있었다.

121년에 고구려군이 현도성을 포위, 공격하였을 때 기병 1만여명이 동원되었다.

특히 246년 고구려-위전쟁 때에는 군마까지도 투구(마면갑)와 갑옷을 씌운 중무장한 기병(《철기-개미부사》)으로 조직된 추격부대만 하여도 5,000여명이나 되었고 철기부대는 그후 더욱 많아졌다.

100만 대군을 무장시키고 몇해동안 장기전을 벌리려면 강력한 경제적 토대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나 고구려는 그 모든 것을 자체로 감당할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던 것은 군대와 인민이 평상시부터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고구려의 역사적경험은 지구상에 침략세력이 남아있는 한 자체의 군사

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자체내부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남기고있다.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기풍

김은택(중합대학역사학부조선사강좌장 박사, 부교수)

지난날의 우리 나라 역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는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삼국의 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우고 사방 수천리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고구려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서 중심적역할을 놀았으며 그 이후 역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

고구려가 동방의 강국으로 등장할수 있었던 것은 무술을 숭상하는 고구려사람들의 생활기풍, 상무기풍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고구려의 상무기풍은 첫째로, 고구려사람들이 무술을 배우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우고 익히는데서 표현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즐기롭고 용맹하였을뿐아니라 조국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벌써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부지런히 연마하였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칼 및 창쓰기를 배웠으며 그것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익혀나갔다.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과 그의 맏아들이 어려서부터 활을 매우 잘 쏘았다는 전설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고구려건국전설에 의하면 고구려를 세운 시조왕인 동명왕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았다 한다.

그는 갓난아이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활과 화살로 물레우에 앉아있는 파리를 쏘는족족 맞히었으며¹⁾ 그후 자기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언제나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활을 매우 잘 쏘았기 때문에 주몽이라고 불리우게까지 되었는데 이것은 부여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한데서 유래된 것이다.²⁾

그후 주몽은 날아가는 새도 한 화살에 두 마리씩 쏘아 떨어주고 백보밖에 걸어놓은 자그마한 가락지도 단번에 명중시켜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었다.

《삼국사기》에 주몽이 크면서 금와왕의 아들과 사냥을 할 때 그들보다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잡은 짐승은 훨씬 많았다는 기록도 주몽의 활쏘기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동명왕의 맏아들도 활을 잘 쏘았다고 옛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느날 동네아이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녀인의 물동이를 맞힌 일이 있었는데 화살구멍으로 동이안의 물이 뿜어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화살끝에 진흙을 묻혀 다시 쏘아 화살구멍을 메우고 뿜어나오는 물을 순식간에 멈춰세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과장된 점이 있지만 동명왕의 아들도 활쏘기재주가 비상히 높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명왕과 그 아들이 활을 잘 쏘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재주를 꾸준히 익힌 결과였다.

옛 기록들에서는 왕을 내세우기 위해 동명왕과 그 아들의 활쏘기재주를 타고난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활쏘

1) 《세종실록》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명이조

2)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동명왕즉위전기

기를 많이하고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의 일면을 찾아볼수 있다.

실지 고구려시기에 마을마다 결혼전의 청년들이 모여 글을 읽고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궁한 마을의 루추한 집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권하여 거리옆에 높다란 집을 짓고 이것을 경당이라고 불렀다. 결혼전의 자제들이 모여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연마하였다.》³⁾고 한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마을마다 경당이 있었고 무술을 배우고 익히는 풍습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속에 널리 보편화되고 장려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함께 말타기를 잘하였다.

일반적으로 싸움과 사냥을 목적으로 한 활쏘기는 말타기를 전제로 한다.

다시말하여 정확하고 민활한 활쏘기는 빠른 기동을 보장하고 말타기를 잘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시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잘한 것으로 보아 말타기도 그에 못지 않게 잘하였다고 볼수 있다.

《삼국사기》에 동명왕이 부여왕 아들들의 참소로 말사양공이 되었지만 앞으로 큰뜻을 실현하기위해 여러 밀들중에서 날뻐 말을 알아가지고 잘 준비하였다가 남쪽으로 진출하여 건국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리용한 것은그 일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고구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칼쓰기와 창쓰기도 많이 배우며 익혔다.

고구려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꾸준히 배웠기 때문에 커서도 중단하지 않고 무술을 높은 수준에서 연마할수

3) 《구당서》권222 고구려

있었고 일단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적들을 물리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곤 하였다.

고구려의 상무기풍은 둘째로, 고구려사람들이 오락과 경기를 하여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한데서 표현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이 제일 즐겨 진행한 것은 사냥경기였다.

당시 사냥경기는 말을 타고 활로 짐승을 누가 더 많이 쏘아잡는가 하는 것을 겨루는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무술대회였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 국가적인 규모에서 사냥경기가 벌어지곤 하였다.

이날이 오면 왕과 대신들도 나오고 병사들과 전국의 이름있는 말타기, 활쏘기명수들이 참가하였다.

이 사냥경기에서는 전국에서 선출된 선수들이 차기들의 말타기와 활쏘기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의 무술이 크게 현마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유능한 싸움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무시를 선발하거나 비술에 등용되기 위한 무술경기, 사냥경기는 작은 규모로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도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무덤의 《마사회》 그림은 관청뜰안에서 벌어지는 무술경기장면을 묘사하고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말뚝우에 올려놓은 과녁을 두 사수가 말을 타고 달려면서 쏘아떨구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그리고 한앞에는 2명의 심판원과 1명의 기록원이 경기를 주시하고있는 장면이 묘사되어있는데⁴⁾ 이것은 경기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총화사업고 엄격하였다는 것을 생동한 묘사로써 보여준다.

4)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주체70(1981)년, 37~38페이지

한편 약수리벽화부럼, 덕흥리벽화부럼, 사냥부럼을 비롯한 무덤벽화들에는 말을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활로 범, 곰, 사슴을 비롯한 큰 짐승들을 사냥하는 통쾌한 장면들이 많이 그려져있다.

달아나는 범을 향해 활을 겨누고 내달리는 사수들의 모습은 그이팔로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사냥경기를 하는 고구려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냥경기를 통하여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 우수한 무사로 선발되거나 벼슬에 등용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씨름, 수박, 석전, 달리기 등의 경기와 놀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무술을 연마하였다.

씨름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고구려의 무덤들인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씨름무덤(4세기중엽)과 같은 지역에 있는 장천 1호무덤(5세기 중엽) 등의 벽화이다.

이 벽화들에는 튼튼한 체구를 가진 두 씨름꾼이 옷옷을 벗고 승부를 겨루고 옆에서는 심판인 듯 한눈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지켜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씨름경기를 보는 듯 하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힘내기를 겨루는 씨름이 널리 보급되고 우리 나라 씨름의 유래가 매우 오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박(후세 권법)은 손으로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는 경기로서 전투적이며 실용적이기 때문에 고구려시기에 크게 장려되었다.

세간부럼, 춤부럼, 고국원왕무덤 등 여러 고구려 무덤의 벽화들에는 수박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벽화는 옷을 벗고 앞판 가린 간편한 차림을 한 두 사람이 마주서서 겨루는것인데 상대방을 치려고 한손을 높이 쳐들거나 내리치며 들어오는 상대방의 주먹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수박-권법의 역사가 오래며 고구려사람들이 맨 주먹으로 적들을 물리칠수 있는 육체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적전은 여러 사람들이 두편으로 나뉘어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돌을 날려 맞히는 놀이로서 고구려에서는 적전을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국기행사로도 진행하였다. 《수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매해 정초에 국가적인 행사로서 국왕의 참가밑에 대동강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서서 돌을 던져 승부를 가르는 적전놀이를 하였다⁵⁾고 한다. 이 놀이와 경기는 고구려사람들로 하여금 민첩성과 용감성, 집단성을 키우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전쟁준비와 싸움에서 크게 리용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걷기와 동작이 빨랐고 달리기도 잘하였다.

기록들에 고구려사람들이 보통걸음이 달리는것과 같다고 하였고⁶⁾ 그후 조선사람들이 빨리 걷고 달리기를 잘한 것은 고구려사람들의 기풍을 계승한것이며 고구려에서 하루에 천리를 걷는 《천리인》을 10명이나 이웃나라에 파견하였다고 한다.⁷⁾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걷기와 달리기를 잘하였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으로서 일상생활은 물론 민활한 동작을 요구하는 싸움이나 사냥때는 얼마나 빨리 걷고 달렸겠는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이러한 경기와 놀이, 빠른 동작을 통하여 무적의 장수함과 민첩한 기동력, 강한 의지와 공격정신을 키워 싸움준비와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 고구려사람들속에서 이러한 상부기풍이 높이 발양될수 있었던

5) 《수서》권81 고려(구구려)

6) 《삼국지》위서 권30 고구려

7) 《오주연문장전산고》권31 동인천주변중설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고구려의 지리적위치와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로서 삼국시기 우리 나라 평토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위치하고있었다.

그런데 삼국시기 그칠새 없었던 외적의 침입이 거의 모두 서북쪽으로부터 감행되었던만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투쟁은 고구려가 혼자서 담당수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위치와 력사발전의 특수성은 고구려사람들로 하여금 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무술을 익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람들은 계속되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무술을 편마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경기를 통해 부단히 익혀나갔다.

고구려사람들이 상무기풍을 소유할수 있었던 것은 또한 고구려가 비교적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에 있는것과도 관련된다.

고구려는 당시로서는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상무기풍을 발양시킬수 있었던 물질적담보로 되었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고구려의 칼과 창은 당시의 높은 야금술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백궁》으로 알려진 구려의 활도 나무와 화살촉의 재질이 좋은것들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산지에서도 잘 달리는 《과하마》라는 날쌔한 말이 많았는데 이 말은 생산활동에서뿐만아니라 군사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고구려에서 칼, 창, 활 등 좋은 무기들이 생산되고 우수한말이 육종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술을 편마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지어주었다.

고구려사람들이 상무기풍을 높이 발양할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봉건국가가가것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쓴것과도 관련되어있다.

고구려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무술에 능하고 지혜와 용맹성이 있는기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에 랑인 출신의 미천한 온달이 사냥경기에서 우승하고 등용되어 외배침략자들을 쳐부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울수 있었고 또 그 군공으로 대형(정5품에 해당)의 높은 벼슬을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⁸⁾

국력이 강하였던 고구려에서는 무술의 현마가 귀족들에게 있어서 출세의 담보로 되었으며 관료의 징표로 되었기때문에 대귀족들은 물론 중소귀족에 이르기까지 봉건지배계급들속에서 무술을 현마하는 기풍이 서있었는데 이것은 전 주민이 무술을 현마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기풍을 세우는데 일정한 작용을 놓았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상무기풍은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당시 사회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었다.

그것은 우선 고구려국기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무술에 능한 정예로운 군사를 확보하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사람들 특히 무술에 능한 랑인 농민들이 병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고구려군대는 언제나 싸움을 잘하고 강했다.

이렇게 강한 고구려군대는 우수한 무기와 말 그리고 든든한 산성, 방어 시설물과 결합하여 강한 군사력을 이루었다.

넓은 평토를 가진 고구려가 강대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술에 능한 고구려군사들이 많았기때문이다.

상무기풍은 또한 외배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투쟁에서 고구려사람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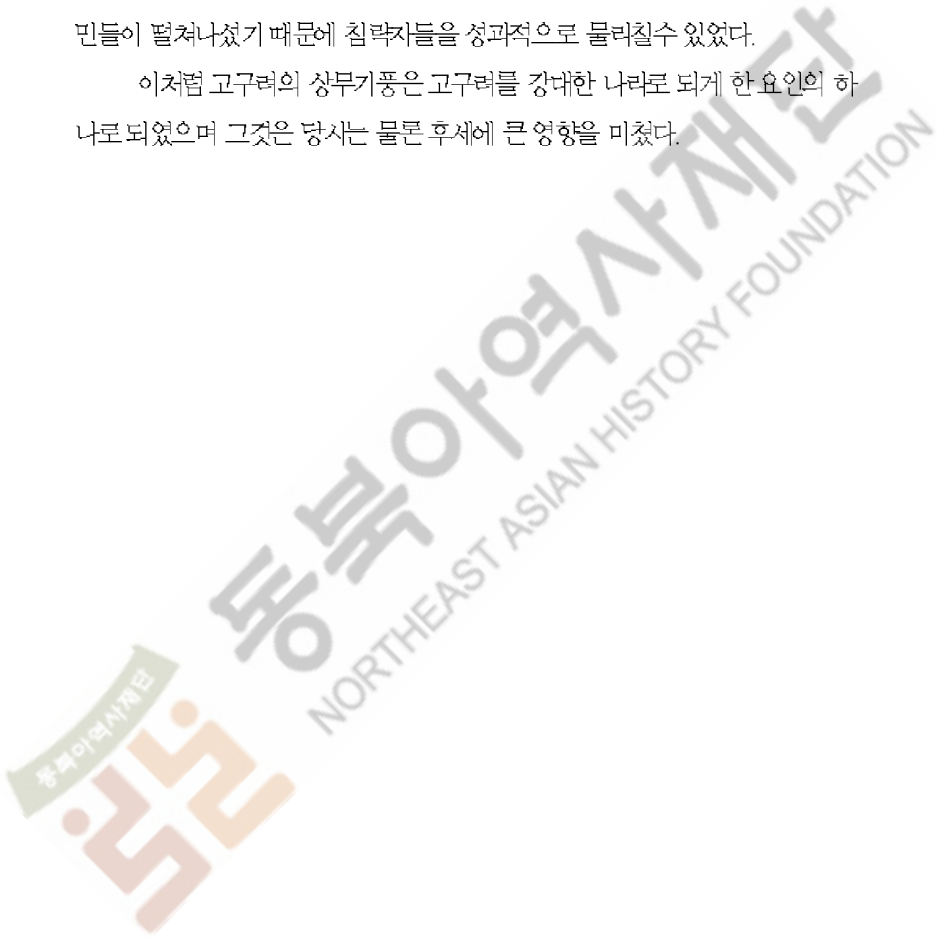
8) 《삼국사기》권45 열전5 온달전

하여금 언제나 신심에 넘쳐 싸워 이길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일단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오면 군인들뿐 아니라 무술에 단련된 온 나라 인민이 펼쳐나 싸웠다.

612년에 수나라 300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펼쳐나섰기 때문에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었다.

이처럼 고구려의 상무기풍은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되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으며 그것은 당시는 물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가 동아시아문화 발전에 논역할

송순탁(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부관장, 박사)

졸본성에서 건국한이래 천년의 역사적기간 고구려는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고구려가 이룩한 이채를 띠는 문화는 이웃나라와 지역들의 문화발전을 선도하였으며 동방문화의 개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 일본 고분시대 무덤에 반영된 고구려적성격

대체로 4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시기를 일본역사에서는 고분시대라고 하며 고분시대 마감인 6세기이후를 아스카시대라고 한다.

3세기말, 4세기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고분들이 발생발전하여 점차 별도전역으로 퍼져갔다. 대형고분의 출현은 계급사회의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며 그것의 확산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지배권의 확립과정으로 간주된다. 그중 대표적인 집단이 북규슈와 기비 그리고 아마도국가이다. 아마도의 왕조는 나라현 아스카일대에서 발산한 것으로 일본학계는 보고있다. 6세기 이후의 100년동안에 이룩된 문화적성과는 아마도국가의 권력기반이 확립된 역사적시기를 특징짓는다는데로부터 그를 아스카시대로 명명하고있다. 그러므로 고분시대무덤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한 고찰은 일본의 국가형성과 발전에서 논 고구려의 위치를 밝히는 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방후원분과 벽화

무덤이 주목된다.

앞부분은 방형이고 뒷부분이 원형으로 된 전방후원분은 고분시대 무덤의 주요구성을 이룬다. 그것은 이 형식의 무덤이 일본열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묘제이며 중요하게는 가장 큰 규모의 무덤이 전방후원이라는 데 있다. 무덤무지의 길이 150m로부터 480m에 이르는 최대급 고분 73기 가운데서 71기가 전방후원분이다. 무덤의 크기를 보아 피장자는 해당 시기 해당 지역의 정치적실권자, 지배자이다. 말하자면 전방후원분은 그에 물인 주인공이 고분시대 최상층 통치자임을 알리는 중요장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분시대란 전방후원분의 시기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전방후원분에는 구조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 ① 정방부는 낮고 평평하며 후원부는 그보다 높이 축조하였다.
- ② 무덤간은 후원부에 마련하였는데 수혈식서실이다.
- ③ 일부 무덤무지에 돌을 덮은 즙석시설이 있는데로부터 외형상 적석무덤을 편상시킨다.

일본학계는 전방후원분이 자국에서 발생한 고유의 묘제로 주장한다. 그 중요한 근거가 김까지방에서 조사한 방형주구묘를 전방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네모난 도랑이 있는 구획안에 여러개의 움을 파고 나무판을 묻은 방형주구묘와 전방후원분사이에는 구조상 공통성을 찾기 어려우며 두 무덤사이에는 계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방후원분의 조형을 야요이문화후기의 무덤에서 입증하려는 시도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세기를 전후한 시기 일본열도 서부에 돌연히 나타난 전방후원분의 연원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 빈고리를 밝히는 데서 중요한 단서로 되는 것이 고구려의 적석무덤이다.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무덤떼 4지구 6무덤, 자성군 송암리무덤떼 1지구 33호, 88호, 106호 무덤은 그 실례이다. 이 무덤들의 구조는

방형과 원형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방형부는 낮고 평평하며 후원부는 그보다 높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무덤간은 후원부에 마련하였으며 그것은 수혈식석실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적석무덤은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구조상 같은 류사성을 가진다. 증석시설이 있는데로부터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일부 외형상 적석무덤을 변상시키는 것은 고구려적석무덤의 특징을 변연히 이은 결과일 것이다.

전방후원형의 무덤은 한강류역의 석촌동, 전라남도 리주군, 해남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중남부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압록강 중류일대에서 발생한 전방후원형무덤이 조산반도를 남하하여 일본열도로 파급되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말하자면 일본 전방후원분시대는 열도의 최고의 통치층들이 고구려에 연원을 둔 무덤형식을 수용함으로써 그 막을 올리게 되었다. 즉 일본국가의 형성을 알리는 주되는 매장풍습은 고구려양식이었다. 이는 고구려에서 기원한 전방후원무덤을 만들던 정치세력이 일본열도로의 진출과 진출지역에서 그들이 정치적통솔권을 장악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고분시대후기에 이르러 전방후원무덤은 점차 지취를 감추고 새로운 묘제가 출현하는데 그를 특징짓는 것이 벽화무덤이다. 나라현 아스카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인 다카마즈무덤과 기모라무덤은 대체로 7세기 후반기~8세기초로 일본학계는 편년하고 있다.

벽화의 구성은

첫째로: 네 벽면에 청룡, 백호, 주작, 현부의 사신도와 인물도가 있다. 다카마즈무덤의 동벽과 서벽에는 16명의 남녀인물을, 기모라무덤에는 네 벽에 각각 3명씩 12명의 무시를 그렸다.

둘째로: 천정에는 천문도가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는 적지 않은 벽화무덤이 분포되어있으며 그 양

상이 다채롭다. 그러나 구성과 내용에서 아스카의 벽화무덤과 류사정을 찾는다면 우선 들어야 할 것이 고구려의 무덤벽화이다.

다카마쯔무덤의 인물도는 고구려적인 색채가 농후하며 여인의 의상은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리무덤의 벽화와 일치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되었다. 사신도도 그 계보는 고구려에 줄을 당고있다. 실베를 들어 백호, 현무의 형상은 약수리벽화무덤 및 춤무덤과 공통하며 주작은 하늘로 막 날려는 순간을 포착한것인데 그것은 세칸무덤 및 사냥무덤의 주작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기포라무덤의 천문도를 현존하는 조선과 중국의 성좌도에 있는 600여개 별자리와 대비고종한데 의하면 관측지는 북위 38°~39°로서 그것은 평양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아스카의 무덤벽화에는 고구려적인 성격이 잘 표현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무덤벽화가 죽어서도 영생하려는 고구려고위귀족층의 욕망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천문도와 사신도에는 그들의 생존당시의 신앙과 사상관념이 재현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천문도는 천정에 별자리를 그린것으로서 그것이 무덤주인공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표시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무덤주인공이 생존시 통치하고 다스리던 것은 죽어서도 신성불가침으로 된다.

사신도는 하늘의 성좌 28수를 네 방면으로 구분하여 성좌의 모양을 청룡(동), 백호(서), 주작(남), 현무(북)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수호신으로 하는 관념을 체계화한것으로서 무덤주인공이 누리고있던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고구려와 아마도 두 왕조의 천문도와 사신도의 동질성은 고구려고위귀족층의 이러한 사상관념을 아마도국가의 지배층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치리념으로 삼았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아스카벽화무덤의 주인공이 주목된다. 다카마쯔무덤에 대하

여예도시대(17~19세기)에는 《문무전황》의 무렵으로 논의된 일이 있고 기포라 무렵은 《천무전황》과 관련이 있는 황족 또는 귀족의 무렵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27기의 벽화무렵의 주인공에 대한 이러저러한 주장은 그것이 야마토국가의 왕족이거나 그와 혈연적으로 연결된 최고위급귀족계층의 무렵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일본학계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무렵주인공은 야마토국가의 최상층의 지위를 차지한 고구려계혈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인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다카마즈무렵에 그려진 바지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관 및 모자를 쓴 남자의 의상은 야마토국가의 고위계층의 공식관복이며 긴 저고리에 색동치마와 주름치마로 된 녀인의 복식은 궁전 귀부인들의 옷차림새로 설명된다.

다카마즈무렵의 벽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대화개신》의 성격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는것이다. 대화개신은 중앙집권적통치체제의 확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분쟁으로서 싸움에서 패한 소가씨는 물러나고 나카노오오에일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야마토국가의 왕권확립을 명분으로 내걸어 국가관리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지만 그 실험은 순탄하지 않았다.

실례를 들어 위계제에 따르는 의관제도의 확립은 대화개신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그를 위하여 중국당나라의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카마즈무렵의 인물도는 《대화개신》이후에도 야마토왕조의 의관이 여전히 고구려양식으로서 정변파가 목적인 복제 및 관제에 관한 규제가 설정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뚜렷이 한다. 이것은 야마토국가안에는 개혁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정치세력이 뚜렷이 존재하였으며 정변파가 실권을 쥐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치 적통술권을 행사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는데 그 주되는 장애물은 고구려세력이었던것이다. 즉 아스카의 무렵벽화는 고구려가 야마토국가의 정치리념과 정치시책집행을 배후에서 조정한 사실의 일단을 생

동하게 표현하고있다고 보아진다.

2. 고구려의 개마군단—그것이 동아시아 승마풍습에서 차지하는 위치

서쪽으로 중국중원과 잇닿아있으며 몽골고원 동남부에 위치한 동아시아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을 기점으로 하고 중국 하북성, 내몽골, 일본열도 등 광활한 지역을 포괄한다. 이 일대는 역대로 고구려와 함께 여러 봉건왕조와 정치세력들이 병합하면서 공통되는 문화영역을 개척한 지역이다.

승마술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경제물질분야를 개선하고 넓혀나가는 과정에 말을 길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다. 그것은 그후 군사행동에 적용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빠른 기동이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는데로부터 기병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칼과 창, 활을 기본무기로 하여 벌린 중세의 싸움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기마장비가 새롭게 개발되어 개마군단이 형성되게 된다. 말하자면 개마전법은 새로운 승마술을 싸움마당에 도입한 특기있고 발전된 전법의 하나이다.

무렵벽화에 의하면 고구려개마군단의 장비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사는 투구와 저고리 및 바지로 된 갑옷을 입었다. 말장비는 말투구와 다리 아래부분을 제외한 목 및 몸체전반을 보호한 말갑옷으로 되어있다. 고구려의 기마장비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작은 쇠칠갑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각 부위의 장구를 통째로가 아니라 각기 독립적으로 제작하여 련결시켜 작용하게 한 조립식장비라는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완전중무장하였지만 투구와 갑옷전반이 무사와 말의 몸체에 밀착하여 전투시 동작을 유연하면서도 빨리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어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조(246년)에는 《철기 5천》의 기사가 있으

며 4세기초로 편년되는 태성리1호무덤의 벽화에는 개마가 등장한다. 이것은 3세기 중엽, 4세기 전반기 고구려의 군사력에서 개마군단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형성시기는 그 이전으로 소급될 것이다.

개마의 위력으로 하여 적지 않은 왕조와 정치세력들이 일찍부터 그 장비의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4세기로 편년되는 중국 서안조창파 1호무덤의 도용, 북위의 백적산과 돈황벽화의 개마는 몸체의 일부를 가리우는 형식이다. 북송시대(10~11세기)의 《무경총요》의 개마는 말부구, 말갑옷으로 되어있는데 소찰로 된 조립식장구로서 전반적양상이 고구려와 류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개마장비는 남북조시대(5~6세기)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김해 대성동, 부산 북천동유적을 비롯한 중남부조선의 적지 않은 무덤에서 출토된 개마장비는 그를 재현할수 있게 하는데 구성과 형식은 고구려의 것과 일치한다.

한편 일본 오사카 나카모찌야마고분, 와카야마오따니고분, 나라 니이자 와무렵 109호무덤 등 일련의 유적에서 고구려식투구, 갑옷이 나왔다. 나가노현에서는 상한연대가 5세기 후반기로 편년되는 고구려계렬의 적석무덤 900여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사육을 위한 목장 경영 및 승마술전습을 위한 집단과 관련된다.

이처럼 개마장비는 동아시아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고구려의 개마와 대비고찰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수 있다.

후선 동아시아 서북부에서는 4세기 전후한 시기 개마장비가 개발도입되었으며 5~6세기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와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된다. 그것은 지역들 서로의 빈번한 접촉과 교섭에 요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중요한 계기점은 군사행동이다. 덕흥리벽화무덤 앞칸 동벽에는 유주를 차지한 자사진이 개마군단의 호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행렬도가 있다. 이것은 4세기 후반기 모용선비의 전연을 격파하고 베이징과 그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서 고구

려군사력의 위력을 과시한 획기적인 사변의 일단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서북 방면으로의 진출 특히 유주의 설치와 동아시아 서북부와 그 이서지역에 고구려의 개마장비를 보급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개마장비는 4세기경 중남부조선에 도입되었으며 5세기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영락 10년(400년) 고구려는 임나가라(김해)에 진출하였으며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고구려의 군사적승리는 조선반도 중남부의 개마장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게 해주되는 요인이었다.

끝으로 일본열도에서 개마장비를 적극 도입한 것은 북규슈에서는 5세기 초이며 킱키지방에서는 5세기 후반기, 6세기 전반기경으로서 아미도국가가 정치군사적기틀을 마련하고 자기들의 지배권을 열도전역으로 한창 확대하던 때와 대체로 맞먹는다. 이 과정은 지역들에 군림하고있는 여러 정치집단과의 싸움을 동반하였으며 개마장비의 도입은 당시 아미도국가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였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개마장비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5~6세기 동아시아의 개마장비에서 주류는 고구려양식이며 고구려의 개마군단은 동아시아의 전형으로 된다.

이상에서 보논바와 같이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일련의 문화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스로 된다.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

손수호(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소장 박사)

동방천년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문화유산기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무덤은 독특한 구조형식과 함께 무덤간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로 하여 고구려의 문화를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는 그 주제의 다양성과 내용의 풍부성,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심과 강희한 성격적특질,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당시 다른 나라의 회화, 무덤벽화와는 다른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화의 독특한 기법과 그 창작의 우수성으로 하여 오백전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은 첫째로, 주제의 다양성과 내용의 풍부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회화주제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과학기술, 역사, 신앙등의 각 방면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있으며 회화내용이 당대 생활풍속과 사회현실을 복원할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풍부하다는 것이다.

물론 무덤벽화는 봉건통치배들의 지위를 높일 목적에서 그들의 생활을 위주로 하여 주제내용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고구려무덤벽화는 무덤의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초래되는 이러한 본질적인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당시 고구려의 강대성과 고구려사람들의 슬기와 용

명, 독특한 고구려문화의 특성과 인민들의 생활풍속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당대 사회현실과 정신세계의 조형적축도라고 할수 있다.

당대 현실의 축도로서의 고구려무덤벽화는 무덤의 구조와 벽화배치를 옹계 결합시켜 무덤의 건축적 및 조형적공간을 형성하고 벽화의 전체와 부분을 조화롭게 통일시킨 고구려사람들의 기발한 착상과 재능의 열매로 된다. 그들은 벽화배치의 일반적규범을 따르면서도 무덤의 좁은 공간속에 하늘과 땅의 다양한 생활을 생활론리에 맞게 묘사함으로써 무덤을 축소된 우주세계로 꾸려놓았고 무덤의 구조형식과 벽화배치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벽화구성의 폭을 웅대하고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

후전 고구려사람들은 《천원지방설》의 요구에 맞게 무덤간천정은 둥글게 만들고 무덤간을 방형으로 축조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무덤내부를 구분하였으며 벽화주제를 현실주제화와 상상화로 갈라 현실적소재는 무덤공간의 평부분에, 상상적소재는 하늘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좁은 공간을 축소된 우주세계로 꾸려놓았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벽홍리벽화무덤과 춤무덤, 씨름무덤이다. 고구려후기에 사신도가 벽화주제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러한 공간구성원칙은 일부 달라져 진파리 4호무덤과 같이 안길은 지상세계로, 무덤안간은 천상세계로 나누고 쌍기둥무덤과 같이 앞간은 지상세계, 안간은 천상세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쓰이었지만 무덤공간형성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구려사람들은 무덤간내부구조를 생존시기의 궁전과 관청, 주택구조형식을 축소하여 재현함으로써 당대 사회상을 실감있게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고국원왕릉을 보면 무덤의 연실은 대문간, 앞간은 궁전마당, 서쪽결간은 정사를 보는 외전, 안간은 내전(침전), 회랑은 후원, 동쪽결간은 차고, 창고등의 경리시설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 두칸무덤들이나 결간 혹은 갑있는 무덤들도 그 내부를 주택구조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무덤주인공의 생전의 생활을 표현하였으며 외간무덤에서는 벽에 기둥과 도리를 그려넣어 주락과 아외를 구분하고 생활의 다양한 주제를 작은 공간속에 펼쳐놓았다.

또한 천상세계를 표현하는 천정에는 고대설화와 신앙관념을 표현한 상상화 및 천문도들을 배치하여 하늘의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무덤벽화의 때 벽면, 때 부분에 독립적인 주제화들을 배치하면서도 모든 벽화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하나의 완성된 화폭으로 형성하였다.

따라서 무덤벽화는 초상화, 인물풍속화, 풍경화, 식물화, 동물화, 정물화, 장식화 등의 여러 회화형태를 담고있으면서도 종합적인 벽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주제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은 다음으로 벽화형상의 비 반복성과 관련되어있다.

화기들은 여러가지 소재를 취급하면서도 형상에서 반복성을 피하고 도식에서 벗어나 개성이 뚜렷한 화폭을 창조하였으므로 어느 벽화나 화기의 창조적개성이 살아있고 모방이 적다.

당시 고구려와 이웃한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벽화가 발전하였지만 고구려의 무덤벽화와 같이 다종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같은 동족의 나라인 백제, 신라, 가야와 일본은 물론 벽화가 많다고 하는 중국의 남북조나 수, 당시기 무덤들에도 그 지역상 크기에 비해볼 때 무덤벽화는 대단히 적은것이고 또 주제내용상 측면에서도 그러한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기 힘들다.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은 둘째로, 우리 인민의 민족성에 기초한것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이 가장 높게 발양되었고 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인들의 사상정신적성격과 기질, 감정에 기초한 고유한 민족회화형식이라는데 있다.

고구려무덤벽화가 고구려인들의 사상정신적성격과 기질, 감정에 기초한 고유한 민족회화형식이라는 것은 세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무덤벽화에는 고구려사람들의 기질과 성격 즉 웅건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성품과 우아하고 아름답고 락천적이면서도 소박한 풍모,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적기상이 잘 나타나있다.

거듭되는 외적들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무술연마와 결합시켰던 고구려인들의 애국심과 상무적기풍은 그대로 벽화에 반영되어 모든 장면이 활기있고 힘찬 약동으로 차넘친다.

또한 부드러운 물동의 무용과 힘있는 군사무용, 여러 가지 교예, 씨름장면, 음식배수가 구수하게 나눈듯한 부엌앞에서 근침을 흘리는 개의 모습 등 벽화의 모든 장면들은 고구려사람들의 우아하고 락천적이며 소박하고도 해학적인 성격상특징을 잘 나타낸다.

묘사된 인물들의 활달한 모습은 호방하면서도 패기황성한 고구려사람들의 용감하고 씩씩하며 진취적이고 락천적인 기질과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다음으로 벽화의 배치와 규모 및 구도가 웅장하고 대담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벽화에서 웅장하고 대담하게 그림을 배치하고 구도를 잡으며 능란한 필치로 거침없이 벽화를 그려낸 것은 고국원왕릉의 대행렬도나 약수리벽화무덤, 덕흥리벽화무덤 등의 행렬도들, 춤무덤, 약수리벽화무덤, 장천호무덤의 큰 사냥장면 등을 통하여 전형적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계속되는 반침략투쟁과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창조적로동생활과정

에 원배 감소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대법하고 통이 큰 고구려인민들의 기백과 답력은 이와 같은 벽화의 웅장성을 낳게 하였다.

벽화에는 또한 고구려사람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생활풍속과 기풍이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고유한 복식의 옷차림새, 고유한 무기무장과 각종 행렬구성방법, 독특한 의장기물들과 악기 등과 함께 고구려의 씨름장면, 말타고 활쏘기경기를 하는 장면, 무용 및 교예장면, 부역 및 경리시설장면 등 무덤벽화에 묘사된 장면들은 다 고구려에 존재하였던 독자적인 정치 및 군사제도, 인민들의 노동생활 및 생활풍속, 력사와 신앙등의 민족적특성에 대하여 증시해주고있다.

씩씩하고 용감하며 소박하고 락전적이면서 대담하고 통이 큰 고구려사람들의 민족적특성은 대대로 계승되어온 우리 인민의 민족성의 발현이고 후세까지 련련히 이어지고 공고화되어온 특징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고유하고 독특한 생활풍속 역시 우리 인민의 조상전대의 미풍양속에 기초한것임을 고구려 무덤벽화는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은 셋째로, 조선화기법에 기초한 회화라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회화기법인 선묘, 색묘, 물골법을 비롯한 조선화의 다양한 기법과 함축, 생략, 집중 등 여러 가지 화법이 고구려 무덤벽화에 이미 널리 리용되었다는 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가 고유한 조선화화법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우선 벽화에 선묘법, 색묘법, 물골법 등 조선화의 주요기법들이 씌어졌다는 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선묘법은 중요한 조선화기법의 하나로서 선만 가지고 대상의 사상감정, 형태특징,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조선화선묘법의 우월성이다. 무덤벽화에서 선은 대상의 형태묘사에 많이 씌어졌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선묘에는 굵은 선과 가는 선, 강한 선과 약한 선, 무거운 선과 가벼운 선, 느린 선과 빠른

선 등이 있으며 붓놀림방향과 각도, 누르기와 속도, 농담과 굵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이 있다.

고구려무덤벽화가 힘있고 웅건한 남성적인 미와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패기를 보여주는 것은 선묘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가는 선에 의한 선묘법은 고국원왕릉의 주인공초상이나 강서세무덤의 사신도, 안악2호무덤의 비천도, 집안일대무덤의 여러 가지 신들의 형상에서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것들이다.

또한 같은 굵기의 선에 의한 선묘형상은 수산리벽화무덤의 녀인상에서 볼수 있다. 고르롭고 가는 선에 의한 섬세하고 정교로운 선들은 부드러운 옷의 곡선미와 인물의 형태, 살결, 주름치마의 질량감까지 잘 표현하고있다.

굵은 선에 의한 선묘도 빠르고 무거운것과 가벼운것, 느리고 무거운것과 가벼운 것 등이었는데 주로 장수나 씨름군, 문치기의 형상등에 많이 쓰여졌다.

안악2호무덤의 비천도는 굵은 선과 가는 선이 잘 배합되어 날개옷의 질감과 물동감이 잘 전달되고있다.

무덤벽화에는 또한 시조적인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산이나 바위의 문곽을 준으로 처리한 준법도 나타나고있다.

색묘법은 채색화로 되어있는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벽화는 적색, 황색, 청색의 3원색에 흑백의 무채색을 많이 리용하였으며 그밖에 남색, 초목색, 보라색 등의 간색과 지어 금분, 은분과 같은 화려한 색감을 배합하여 그려졌다.

색묘법의 특징은 대상의 본색을 위주로 돌구면서 전체 화폭의 색조를 조화롭게 통일시키는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는 여러 색깔로 나타나는 대상을 특징지어주는 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색깔을 생략하여 묘사대상의 고유한 색을

살리고있다.

수산리무렵벽화 남주인공의 겉옷이나 녀주인공의 색동치마들은 모두 그 대상의 고유색으로 되어있으며 세칸무렵, 춤무렵 등에서도 인물의 피부색과 옷색이 기본색을 위주로 하고 다른 색들은 생략되어있다.

소나무와 보리수의 줄기와 잎도 기본색을 살려 선명하고 산뜻하게 형상하였으며 달리는 말의 꼬리부분 같은 것은 대담하게 면으로 처리하여 박력과 속도감을 강조하였다.

고구려무렵벽화의 색묘법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기둥과 두공의 색깔, 옷의 색깔 등에 리용된 평도기법, 번꽃무늬 등에 쓰여진 농담의 차이가 있는 운간기법, 바탕색을 먼저 칠하고 그우에 문양을 그리는 점층채색법, 사신도의 청룡그림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색을 병렬 평도하여 그린 기법, 색채적허구, 색에 의한 명암의 표현 등이 광범하게 리용되었다.

벽화의 초기단계에서 일부 백묘에 의한 형상도 있지만 고구려무렵벽화는 거의 전부에 여러 가지 색채를 훌륭히 구사한 다양한 색묘법을 활용한 것으로 하여 조선화의 기초를 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말할수있다.

고구려무렵벽화에는 아직 시초적단계라고 할수도 있지만 물골법과 같은 생동한 표현을 낳는 기법도 리용되었다.

대상을 조형적으로 집약화하고 풍만한 미적정서를 안겨주는 활달하고 세련된 물골기법은 진파리1호무렵의 소나무그림이나 달리는 말의 갈기와 꼬리, 산과 바위의 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연한 바탕색을 반복하여 입혀주면서 화면을 밝게 형상한 우림법은 고구려무렵벽화에서 기본으로 되어있는 분곽선으로 담채나 진채로 된 색을 감싸주면서 대상의 형태를 세부까지 그려내는 구름법과 함께 조선화의 우월한 기법들이다.

이밖에도 회벽이 굳기 전에 그림을 그려 색채가 화면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밝고 부드러운 색이 수천수백년간 그대로 보존되게 하는 프레스코법 같은 것도 현대조선회화로 그린 벽화의 시원적형태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무덤벽화에는 조선화의 여러 기법뿐아니라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조선화화법의 기본특징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조선화화법의 기본특징은 함축하고 집중하는것으로서 선묘, 색묘, 명암, 구도, 원근화법 등이 다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조형적으로 집약화하여 보여주는 구도에서 고구려 무덤벽화는 다른 회화에서처럼 화면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되는 대상들을 집중하여 그리면서 부차적인것과 배경들을 생략하는 함축과 집중의 수법을 리용하고있다.

무덤벽화에는 또한 명암도 집약화하여 본색을 위주로 돌구어내는 색묘법과 여백을 중요시하는 구도법을 조형적으로 잘 어울리도록 하였다. 고국원왕릉의 벽화들과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춤무덤을 비롯한 많은 무덤벽화들에서 조선화의 특징적수법인 연하고 밝은 색으로 기본색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색의 변화를 생략하였으며 가늘고 굵은 여러 가지 선들로 명암을 표현하면서 대상물의 질감감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거시라든가 약수리벽화무덤의 사냥장면에서 3명의 사냥군만 등장시키면서 대단히 큰 사냥장면을 보여준것, 고구려사람들의 경격과 기질, 정서에 맞게 그림배치와 구도를 웅장하고 대담하게 하면서 복잡한 장면을 생략하고 인물들을 비롯한 기본대상만 살린 것 등이 다 함축과 집중의 방법으로 그린것들이다.

무덤벽화에는 또한 인물형상의 크기를 달리한 대비수법과 상상화들에 표현된 상징수법, 씨름군의 팔다리나 산을 뛰어넘는 기마수의 모습 등에 나타난 허구와 과장의 수법도 씌여졌다.

산위에 있는 사람이 산보다 크다든가 투시점이 집중되지 못한것과 같은

것, 인물과 짐승, 건축물의 비례가 맞지 않는 것 등은 산점부시법과 봉건위계제의 작용과 같은 당시 회화의 제한성에서 오는것도 있지만 보다는 부차적인 것을 생략하고 주되는 부분을 살리는 고구려사람들의 독특한 미감과 정서, 대담하고 통이 큰 성격과 기질에서 나온 과장과 허구의 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부벽벽화는 그 주제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 성격의 민족성, 민족회화형식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우리 나라 회화발전의 기초로 되었으며 그 우수성으로 하여 동족의 나라들과 주변나라들, 후세의 벽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산성의 특징

지승철(사회과학원 학회지도국 부국장, 박사, 부교수)

고구려는 산성이 대단히 발전된 나라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성의 총수는 1,000여개가 되는데 그중 약 80%가 산성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구려사람들이 나라방위에서 처음부터 산성을 위주로 하게 된 것은 산이 많은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산성의 특징은 위치의 선정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지세의 효과적 리용 그리고 성곽축조기술의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의 위치선정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산성축조에서 높고 험한 지형지세를 최대한 리용한 것은 후선 군사적으로 볼 때 침략자들이 평지전투에서는 익숙되었으나 산악전투에는 습관되지 못한 약점을 타산한것과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노린 적들은 사막 및 반사막지대와 평야지대에서 주로 평지싸움을 일삼았고 산악전에 익숙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산성들은 주로 높고 험한 산에 축성되었다.

고구려의 요새로 이름높은 산성들은 오녀산성(820m), 산성자산성(676m), 대성산성(274m), 황룡산성(566m), 장수산성(745m), 백마산성(410m), 봉한산성(412m) 등이다.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의정 겸 도체찰사로서 전쟁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서애 류성룡은 산성의 유리성에 대하여 《무릇 산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하고있으니 적의 독특한 재간도 여기에 대하여서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비록 조총이 있다 해도 하늘을 향하여 쏘는데 지나지 않으니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질 때에는 사람을 다칠수 없는 것이 하나의 유리한 점이다. 성밖에 흙산을 쌓거나 운제를 쓸곳이 없으니 성안의 움직임을 끝내 엿볼수 없는 것이 둘째 유리한 점이다. 적이 비록 용맹하고 역겨워서 돌격 전투를 잘한다 해도 산 밑에서 기어올라 겨우 성 밑에 접근하였을 때는 숨이 가쁘고 기운이 빠지는데 우리편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분이 안정되어 적이 움직이는데 따라 응할수 있으며 다만 큰 돌을 굴러내리지만 하여도 적들은 달아나고 무너지지 않을수 없는 것이 세 번째 유리한 점이다.》¹⁾라고 하였다.

류성룡의 이 견해는 산성싸움의 유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것으로서 조총싸움이전시기 즉 활과 창길로 싸우던 시기인 고구려때의 산성싸움의 유리성을 더 확증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의 위치선정에서 자연지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독특한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산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고구려는 《고로봉형》의 지형에 산성을 쌓은 첫 나라였다.

산성축조에서 발휘한 고구려사람들의 창조적재능은 그들이 《고로봉식》 지형을 처음으로 창안하였으며 후세사람들이 《고로봉식》이라고 부른 이 지형은 사면이 다 높고 가운데가 낮은 지형을 말한다.²⁾

1) 《서애선생문집》 권15 산성설

2) 《민보집설》보제, 제2

다시말하여 《고로봉식》산성이란 보통 그 부근에서 제압고소로 되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포괄한 여러개의 봉우리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산릉성이를 둘러막음으로써 그안에 반드시 한개이상의 골짜기가 있는 지형지세를 리용하여 쌓은 산성을 의미한다.

《고로봉식》지형을 일명 《포곡식》(包谷式)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고로봉식》산성은 성안 골짜기물이 빠져나가는쪽은 경사가 완만하며 여기에는 성문이 설치되었다.

《고로봉식》산성안에는 대체로 1~2개의 우묵한 골짜기가 있는데 성안골짜기모양은 《ㄱ》형, 《ㅅ》형이다.

피현의 백마산성, 광산의 통한산성, 태전의 룡오리산성을 비롯하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성들은 1개의 골짜기를 끼고있으나 대성산성에는 6개의 봉우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2개의 큰 골짜기가 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산성을 쌓는데서 가장 으뜸가는 《고로봉형》의 지형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기울인 뛰어난 재능의 발현이며 당시 지리학 및 군사과학의 발전수준과 일찍부터 발전된 고구려의 축성기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고구려가《고로봉식》지형에 산성을 쌓는 방법을 창안하게 된 것은 이 지형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 유리점은 첫째로, 성벽을 산릉선이나 절벽에 따라 쌓게 되기 때문에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산성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높일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성안이 우묵한 골짜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적들이 성안의 형편을 알수 없게 되어있지만 반대로 성안에서는 적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꿰뚫어볼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적절한 전투태세를 취할수 있어 언제나 전투에서 주도권을 쥐 수 있으며 셋째로, 성안의 골짜기를 끼고 있어 수원이 풍부하므로

군대와 인민들의 음료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넷째로, 《고로봉식》지형은 넓은 골짜기를 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수 있으며 전투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물자도 많이 저장보관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유사시 군대와 인민이 성안에 들어가 한평어리가되어 장기전을 할수 있다는데 있다.

실로 《고로봉식》산성은 고구려사람들이 평토가 매우 크고 산악지대가 많은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자주 침입해오는 강적과 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역사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이룩한 훌륭한 창조물인 동시에 우수한 군사유산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축조에서 유리한 위치선정 및 자연지세의 효과적 이용에서뿐만아니라 성벽의 구조를 독특하게 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창안도입하여 성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도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성벽을 성에서 기본을 이루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성의 견고성은 성벽의 견고성에 많이 달려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성벽의 견고성을 보장하는데서 성돌을 4각추형으로 다듬어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일찍부터 성돌을 그렇게 다듬어 썼다.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성자산성, 대성산성, 룡오리산성, 휴류산성, 평양성을 비롯한 여러 고구려산성의 성돌들이 대체로 4각추형으로 생겼다.

성벽의 견고성보장을 위한 고구려사람들의 창조적 재능은 돌성벽의 형태구성과 그 쌓는 방법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들은 성벽형태를 외벽 혹은 겹벽으로 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돌성벽의 견고성을 보장하였으며 동시에 지세에 따라 성벽을 밑에서 우에까지 직선 또는 약간 경사지게 쌓는 방법과 성벽밑부분에 계단식굽돌리를 조성하여 쌓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창안해냈다. 성벽축조에서 성돌이 서로 겹놓이지 않게 이음새를 맞물려 쌓았으며 그 때 돌기의 높이를 길게 함으로써 성돌들이 옆으로 평행선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성

벽의 기초부분은 지질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하였으나 어떤 경우든지 성벽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벽은 당시의 공성무기들으로써는 깨뜨릴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에 독특한 시설물을 창안도입하여 그 방어력을 더욱 높였다. 그들은 성벽과 연결된 시설물인 성문, 웅성, 적대, 치, 녀장, 각루, 망루, 압문, 수구문 등과 성벽과 떨어진 시설물인 장대, 행영, 병영, 창고, 못, 우물, 봉수대 등을 각각 알맞은 지대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다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구려의 독특한 산성축조술이 전투행동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래동안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끊임없이 감행하다가 침략을 당한 침략자들이 《고구려사람들은 성을 잘 지키기 때문에 졸연히 항복시킬수 없다.》³⁾, 《고구려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만들었기때문에 졸연히 함락시킬수 없다.》⁴⁾고 한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의 위치를 험한 산에 정하여 《고로봉식》산성형식을 창안하고 그 구조와 시설물들도 독특하게 창안하였을뿐아니라 산성의 위치를 또한 강을 낀 곳에 정하였다. 강은 적들이 성에 쉽게 접근할수 없게 하는 자연적인 《해자》였다.

물론 강이 농사와 교통로로 리용되고 자연경치를 고려하는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였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는 《해자》로서의 군사적기능이였다.

환인의 오녀산성은 혼강과 그 지류인 부이강, 집안의 산성자산성은 압록강과 통구하, 대성산성은 대동강, 합장강, 장수천을 각각 자연해자로 삼고있다.

고구려는 산성의 위치선정에서 또한 경제적조건을 크게 고려하였는데

3)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 9, 10, 보장왕 3년, 6년

4)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 9, 10, 보장왕 3년, 6년

넓은 벌을 끼고 주민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 그러한 위치로 인정되었다.

전쟁의 승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얼마나 원만히 보장하는가 하는데도 크게 달려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자리를 대체로 큰 벌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민지구 가까이에 정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산성 거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다.

오녀산성은 혼강류역의 충적벌을 끼었으며 산성자산성은 그앞에 압록강류역에서 가장 넓은 통구벌을 가지고있었고 대성산성은 대동강 랑쪽 강기슭의 기름진벌에 의거하였으며 통오리산성 역시 태천벌을 앞에 끼었다.

경제생활에서 농업생산이 위주로 되었던 고구려사람들에게 있어서 벌은 유사시 군대와 인민들의 식량을 보장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원천지였다.

때문에 그들은 산성가까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산성에 들어가 군대와 함께 수성전을 벌리었다.

벌과 가까운 주민지역에 산성을 쌓은 것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것이였다.

따라서 벌과 주민지역, 산성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는 안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었다.

고구려는 산성의 위치선정에서 다음으로 교통조건을 많이 참작하였다.

산성은 교통의 요지에 있어야 전부의 기동성과 름접성들과의 협동작전을 신속히 보장할수 있으며 전략전술적입부수항에 유리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고구려의 산성은 그 위치선정상 교통의 유리성을 중요시하였는데 이것은 방어를 위주로 한 것이다.

중세전쟁에서는 주요 교통요충지들만 잘 막으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였다.

고구려의 산성 특히 큰 산성들은 거의 모두가 당시의 큰 수륙통로를 끼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는 무순의 고이산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이산성은 무순시 북쪽 고이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 2km 거리에 흔하가 서쪽으로 흐르며 산성의 바로 남쪽에 동서를 연결하는 대로가 있다. 그러므로 고이산성은 흔하연안을 통해서 침입하는 적을 막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산성의 위치선정에서 교통조건을 중시한 것은 큰성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통오리산성과 같은 비교적 작은 성들도 마찬가지다. 통오리산성은 산간지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앞으로 천반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 압록강연안의 청수로부터 구성, 냉변, 개천, 순천, 평양에 이르는 큰 통로가 열려있다.

고구려산성에서는 큰 강과 대로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리용하고 동시에 연결된 산줄기와 골짜기의 소로길도 이웃성들과의 연계 및 전투행동의 민활성보장에 요긴하게 리용하였다.

고구려산성의 위치선정에서는 또한 정치적인 조건도 크게 고려되었다. 궁성가까운 곳에 산성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고구려가 선차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였다. 집안의 국내성과 산성자산성, 평양의 안학궁성과 대성산성의 관계는 고구려수도방어산성의 위치선정에서 정치적조건을 고려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고구려의 통치자들은 유사시 궁성을 떠나 산성에 들어가 그안에서 나라의 통치를 안전하게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

산성자산성안의 동남쪽경사면일대의 돌로 쌓은 축대우에는 큰 주춧돌이 줄지어 놓여있고 그주변에는 수많은 고구려의 기와들이 널려있다.

그리고 대성산성안의 장수봉서남쪽골짜기 아늑한 곳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집터가 있는데 이것이 왕의 행궁터이다.⁵⁾

성안에 있는 이러한 건물들은 바로 왕을 비롯한 통치집단이 유사시에 성안에 들어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리용한 시설들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산성이 가지는 이러한 정치적기능을 고려한데로부터 즉 산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거점을 지키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수도를 건설할 때에는 산성을 먼저 쌓았다.

고구려가 졸본성으로부터 도읍을 집안으로 옮기면서 산성자산성을 쌓은것이러든가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대성산성을 먼저 쌓은 것 등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슬기롭고 재능있는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축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로 창안, 해결함으로써 우수한 산성을 축성하고 그것을 더욱 완성 발전시켜 대성산성과 같은 조선식산성의 훌륭한 본모기를 마련하여놓았다.

5)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62(1973)년, 43페이지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

리승혁(문화보존지도국 학사)

지난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방위수단의 하나였던 산성은 당시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애국심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역사유적이다. 그러므로 산성유적은 인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전통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반침략전쟁을 끊임없이 벌려왔으며 그 과정에 산과 강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독자적인 산성축조방법을 창조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많은 산성들을 쌓았다. 장수산성도 바로 그러한 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장수산성은 고구려전반기로부터 후기신라, 고려, 리조시기까지 중요한 정치군사적거점으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봉건시기 우리 나라 산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있는 유적으로 된다. 장수산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역사를 체계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성과 그 남쪽일대가 한때 고구려의 남방진출, 국통통일정책실현의 중심지로 되어있었기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장수산성에 대한 역사기록들과 고고학적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산성의 위치와 함께 축조형식과 그 구조, 축조년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

하려고 한다.

장수산성은 황해남도 신원군 아양리에 있다.(현재 성의 북쪽은 재령군에 속한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장수산성 및 그 일대는 고구려 시기에 식성, 한성, 내홀, 한홀(《고려사》 권58 지리지), 후기신라때에 한성¹⁾ 또는 중반(《삼국사기》 권35 지리지), 고려시기에는 안주, 재령(《고려사》 권58 지리지)으로, 리조시기에는 재령장수산성²⁾으로 불리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임진조국전쟁시기 부근의 인민들이 이 성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산의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신 다음부터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는 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성은 고구려시기 부수도-별도의 하나였으며 한동안 남평양으로도 불리었던 것이다.³⁾

고구려사람들이 일찍이 장수산에 큰 규모의 산성을 쌓고 남방진출을 위한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리용한 것은 이 지대의 자연지리적 및 경제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수도나 부수도를 건설할 때에는 산과 깊은 강이 있으며 곡식을 재배하기 적합하고 교통에 자연지리적 및 경제

1)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의 식성을 신라 경덕왕(742년~765년)이 중반군으로 개칭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신라본기 경덕왕 21년조에는 이와는 좀 다르게 오곡성, 장새성, 휴암성, 덕곡성, 지성 등과 함께 한성을 쌓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고 써여있다. 그 명칭이 762년이후에 개칭되었거나 그 이전에 개칭되었지만 산성자체는 계속 한성으로 불리웠는가 또는 고을자체가 한성, 중반군의 두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볼수 있다.

2) 리조초기에는 《장수(長水)》라고 쓰던 것을 17세기부터 《장수(長壽)》로 쓰게 되었다.《세종실록》 지리지 황해도 재령군, 《인조실록》 권34 13년 9월)

3) 《주서》에는 《그(고구려-인용자)의 수도는 평양성이며 동서가 6티이고 패수에 립하고있다.그외에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별도이다》(《고려사》 권40 별전 이역 상 고려(고구려))라고 기록되어있다.

적조건을 군사적건지에서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장수산은 우리 나라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으며 주변에는 재령평야와 안악, 은천, 황주, 송림, 은파 등 벌방지대와 립접하거나 재령강의 배길로 연결되어있다.⁴⁾

장수산일대는 일찍부터 문화와 경제가 발전해온 곳이다.(주변에는 원시 유적과 청동기시대, 그 이후시기의 유적들이 많다) 특히 이곳은 철광석이 풍부한 곳으로서 옛날부터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 재령군

장수산은 북쪽에는 정방산줄기, 동쪽으로는 벌악산줄기, 서쪽으로는 구월산줄기, 불타산줄기, 남쪽으로는 수양산줄기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발판같은데 우뚝 솟아있는 독립적인 산이다. 장수산성의 지형을 보면 고로봉형지형으로서 대성산성, 산성자산성의 지형과 비슷하다. 장수산성은 하늬봉(711m)을 비롯한 7개의 봉우리가 높은 등밀기로 연결되어 고리작모양으로 둘러싸고있는데 그안에 높은 절벽으로 길리진 2개의 대지와 작은 골짜기 2개가 있다. 절벽밀의 대지는 비교적 넓고 남북으로 좁은 목이 있다. 이 산속으로 들어오려면 이 목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목을 험한 절벽이 갈라져 생긴것으로서 자연적인 성문을 이루고있다. 북쪽으로 난 목으로는 사철 물이 흐르고있으며 신비스러운 전설이 담겨져있는 폭포가 두곳이나 있다. 장수산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들이 산비탈쪽으로는 물론 안쪽으로도 험한 벼랑으로 되어있어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힘들게 되어있다.

장수산둘레에는 부연한 벌이 펼쳐져있기 때문에 산우에 오르면 사방이 한눈에 보인다.

4) 장수산부근의 재령강으로는 옛날 산성근방까지 배가 다녔다고 전하고있다. 평양과의 거리는 배길로 약 280여리, 육로로는 240여리나 된다.

또한 장수산은 사면이 자연해자로 되어있는데 북쪽, 동쪽, 남쪽으로는 재령강이 굽어져 흐르고있으며 서쪽으로는 그 지류가 흐르고있다.

이 지대는 우리 나라 남북통로의 길목인 황주, 봉산과 가깝고 해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있는 교통상 요충지로서 중세기에 군사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군사전략적으로 유리한 장수산의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당시 우수한 축성기술로써 견고한 산성을 건설하고 국토통일정책실현의 기지로 리용하였다.

산성은 산릉선을 따라 쌓았으며 산허리를 둘러싸는 곳도 있고 지형조건에 맞게 자연절벽을 그대로 리용한 곳도 있다.

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별되어있다. 지형상 산우의 대지와 골짜기안의 대지를 구분하여 아래성, 웃성으로도 불렀다.《영조실록》 권34 9년 6월)

내성과 외성은 험한 절벽과 가파로운 산등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에 성벽을 쌓아막았다. 실측한 수치와《비변사등록》의 수치를 대조해보면 아래성을 외성, 웃성을 내성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형상 외성(아래성)은 산속 낮은 곳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군사행동에는 불리하나 밖에서 성안을 들여다볼수 없고 좁은 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안으로 들어갈수 없으므로 이곳에는 군수창고들이 집중되어있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이곳에 많은 군사들과 인민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인정된다. 반대로 내성의 지형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안은 물론 성밖도 잘 보인다. 여기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낸 성문을 통하여 밖으로 쉽게 나들수 있으므로 적을 불의에 타격하는 군사행동에 매우 유리하였다. 외성으로부터 내성으로 올라오는 통로는 한곳에 있으며 통로외에는 사람이 다닐수 없는 절벽이다.

산성의 둘레는 약 9,680m로서 황해도일대의 고구려산성으로 알려진 것들중에서 가장 큰 성의 하나이다. 장수산성의 둘레를 전하는 력사기록의 수자

는 시기마다 다르다.

책	둘레
《세종실록》 지리지	1,886보
《동국여지승람》	8,915자
《항해도읍지》	3만 1,908자(그중 그대로 리용한 구간 2,615보)
《비변사등록》	내성 4,008보 외성 5,584보
《판기요람》 군정편 4	3만 1,908자

표의 수자들은 해당 시기의 자료들에 기초하여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기마다 성의 둘레가 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과정에 성벽의 위치는 고구려때 쌓은 자리를 그대로 리용하였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자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때 시기 각이한 길이의 자를 썼으며 내성(웃성), 외성(아래성)을 어느 하나만 보수했거나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비변사등록》은 토의내용과 발언자의 이름, 직위, 내용 등을 적은 것으로서 그 자료들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장수산성의 둘레가 내성은 4,008보, 외성은 5,584보라고 하였는데 자료 계산하면 각각 2만 4,048자, 3만 3,504자이다. 이것을 주척(한자는 약 20cm)으로 계산하면 실측한⁵⁾ 둘레와 근사하게 맞아 떨어진다.

《판기요람》 군정편 4 항해도조와 《재명읍지》, 《항해도읍지》의 기록은 같

- 5) 실측한 자료는 내성의 둘레가 약 4,780m이며 그중 실지 성벽을 쌓은 구간은 약 1,750m이고 외성의 둘레가 약 6,700m, 그중 실지 성벽을 쌓은 구간은 약 3,270m이다. 다른 성들의 둘레를 기록한 《비변사등록》의 자료로 보아 대체로 주척을 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은데 성의 둘레를 3만 1,980자, 그중 성벽을 쌓지 않은 구간은 2,615보(1만 5,690자), 성벽을 쌓은 구간 1만6,218자이다. 이것을 영조적으로 계산하면 실측한수자와 거의 같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8,915자라고 하였는데 이수지를 주적으로 계산하면 실지 길이는 1,783m이다. 이것은 내성의 성벽을 쌓은 구간의 길이와 거의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은 잘 들어맞지 않는데 여기에 보이는 1,886보는 1,486보의 오키라고 인정된다. 그것은 황해도지방의 성의 둘레를 전하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인차 일수 있다.

후의 자료들을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내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 이전시기에도 내성만을 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것은 고려시기 큰 싸움이 황주, 봉산을 비롯한 황해도일대에서 많이 벌어졌으며 이 산성에서 중원군을 파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사적건지에서 볼 때 고려시기에도 아배성, 웃성을 다 리용하였으리라고 본다. 그 이전 후기신라때에는 고려때보다는 황해도, 평안도지방 방비에 큰 힘을 넣지 않았던 것만큼 내성만 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후기신라때의 군치가 고구려때의 군치의 서북쪽 내성의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수산성의 성벽은 산에 혼한 돌로써 가공하여 견고하게 쌓았다.

고구려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석재를 가지고 이곳의 지형조건에 맞게 절벽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장수산의 돌은 현무암이며 별로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가 나게 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공한 성돌의 크기는 여러 가지이다.

외성의 성벽은 대체로 산등을 따라 한면쌓기 방법으로 쌓았으며 내성의

성벽은 평평한 지대에는 양면쌓기를 하였다. 북쪽성벽은 산등을 따라 한면쌓기를 한구간이 많으며 남쪽성벽은 산릉선에서 200~300m정도 내려와 쌓았다. 성벽의 두터이는 지형에 따라 각이한데 내성의 남문, 서문부근은 8m나 된다. 성벽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다. 지금 완전히 원상태로 남아있는 내성 남문부근의 성벽높이는 2.8m인데 《동국여지승람》에서 9척이라고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 절벽부분을 연결한 곳에서는 성벽의 높이가 7m나 되는 곳도 있다. 이밖에 성벽으로는 사직골과 대청골에서 내성으로 올라오는 골짜기들에 양쪽 절벽을 막아놓은 차단성벽이 있었다.

산성의 성문은 밖으로 드나들기 유리한 곳에 있는데 문쿠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성문의 위치와 수지를 밝힌 기록은 찾아볼수 없다. 성벽을 따라 조사한데 의하면 성문은 내성(웃성)에 3개소, 외성(아래성)에 3개소 합해서 6개소에 있다.

성의 정문은 외성 남문인데 그 구조와 축조형식이 대성산의 남문유적과 같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내성의 남문은 산등(중양장대가 있는 봉우리)에서 약 300m정도 내려와서 내성과 외성을 가로막은 성벽으로부터 서쪽으로 70m쯤 떨어져있다. 이 문으로는 아양리 발판과 골짜기소로로 연결된다. 이 성문의 축조형식은 독특한데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성문인 정해문과 북성의 북문인 현무문과 비슷하다. 성문의 양옆에는 적대(성문을 지키는 차)가 있다. 성문의 문루시설은 남아있지 않으나 주변에는 고구려의 붉은색기와와 그 이후시기의 회색, 검은색기와조각들이 수많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시기부터 여기에 문루가 있었다는 것을 확증할수 있다. 이 문자리에서 동쪽 50m 지점에는 지휘처였다고 인정되는 집터가 있다. 여기서도 붉은색(대성산에서 나온것과 같다.)과 회색, 검은색의 기와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내성의 서문은 주봉인 하늬봉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50가량 내려와있는데 여기로는 현재의 재령군 봉오리와 신원읍으로 통하

는 소로길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성문의 너비는 1.4m, 길이는 6m, 높이는 2m이며 그후에 덮었던 판석이 있다. 성문벽은 잘 다듬은 돌로써 곧추 양쪽을 쌓아올리고 가운데는 흙을 채워넣었다. 고구려기외를 비롯한 기외조각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문루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성문으로부터 200m 서쪽으로 성밖에 가면 옛날 기외급편 가마터가 있다. 내성의 북문은 서문으로부터 성벽을 따라 500m정도 동북쪽으로 나기있다. 이 문은 재령군 봉오리의 신사동골짜기와 통하고있다. 이 문에는 문루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문으로 리용한 것 같다.

외성의 동문은 북장대가 있는 465m봉과 425m봉을 연결하는 산등성이의 제일 낮은 곳에 있는데 이 문은 동쪽성밖의 골안을 따라 아양터, 월당터, 운양터로 나가는 길과 통해있다. 현재 이 성문의 구조와 규모는 잘 알수 없으나 여기서 발견된 기외류로 보아 고구려시기부터 문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성안의 봉우리들에는 장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대는 내성 남문부근의 중앙장대이다. 여기에서는 성안은 물론 아양터일대의 벌판이 한눈에 보인다. 이곳에는 고구려의 붉은기외와 후세의 기외조각들이 널려있다. 이외에도 동, 서, 남, 북장대들이 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성밖에는 치와 녀장이 내성에 427개, 외성에 553개 있었다(《증보문헌비고》 권28 여지고 판방 성곽 황해도)고 써여있으나 현재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할수 없다.

장수산성은 대부분 암석지대로 되어있으나 수원이 풍부하다. 수원의 풍부성은 지형의 유리성과 함께 성의 방어력강화에서 결정적조건의 하나이다.

《삼국사기》(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1년)에 의하면 A.D. 28년 위나 압성방어전투때「성안에 물이 있으니 졸연히 함락시킬수 없다.」고 하였고 리조 《인조실록》(권31 13년 9월 을축)에도 황주성은 물이 없어 지키기 어려우나 장

수산성과 정방산성은 물이 많아지킬수 있다고 하였다.

산성안에는 북문으로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다. 개울은 대지 북편(못근처)과 북쪽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데 흐름량은 대단히 많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성안에 우물이 19개, 못이 3개 있다고 쓰여있다. 실지 조사한데 의하면 현재 외성(아태성)에는 큰 못이 1개, 작은 못이 3개 있는데 작은 것은 배꾸어져 크기를 잘 알수 없으나 큰 못(직경 약 20m)에는 지금도 물이 차있다. 내성에는 못이 5개 있다. 그중 3개는 대지 부근에, 2개는 각각내성 서문과 북문근처에 있다. 그중 제일 큰 못에는 현재 물이 차있다. 내성의 못근처에는 여러개의 우물이 있다. 우물주변에는 고구려붉은기와조각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시기부터 있던 우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내성의 남문근처에서 샘물터를 2개 발견하였는데 주변에 쌓았던 돌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성안의 여러곳에는 규모있는 건물터들이 남아있다.

외성의 넓은 대지의 남향에는 정4각형의 집자리와 좁고 긴 병실자리, 창고자리들이 수십개소 있다. 기초 돌들과 돌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집터에는 고구려시기 붉은기와를 비롯하여 회색, 검은색의 기와들이 많이 널려있다. 그중 고구려시기 별궁터라고 인정되는 비교적 넓고 좋은 자리에 있는 집터에는 고구려붉은기와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널려있다.

내성에는 건물터가 세곳에 있다. 제일 큰 것은 하늬봉아래 대지에 있는데 집을 지었던 기단돌들과 돌담, 기와조각들이 아직 남아있다. 내성 남문터부근의 건물터는 이미 알려졌으며 이밖에도 중앙장대가 있던 부근의 넓은 공지가 있는데 이곳에도 집터들이 있다. 여기서도 역시 다른데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시기 기와를 발견할수 있다.

성안과 성벽밖의 여러곳에서 옛날 쇠부리터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내성 남문부근의 쇠부리터에는 쇠물찌끼가 로벽에 붙어있으며 로시설을 쌓았던 돌과 벽돌의 원상그대로 남아있다. 로주변에는 철광석이 널려있으며 주물한 쇠

가마의 조각도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산성의 남쪽 아양터, 월당터를 포함하는 발판구역에는 고구려 붉은기와조각들과 벽돌조각들이 널려있으며 돌담을 비롯한 도시구획선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리고 운양터, 월당터, 아양터, 신원읍, 장금리 일대에는 고구려무덤배들이 분포되어있다. 신원도시유적의 서북쪽에 토성유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유적들이 장수산성과 직접 연결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수산성을 쌓은 년대를 밝힌 역사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고려사》, 《리조실록》, 《비변사등록》, 《황해도읍지》 등이 있다. 《삼국사기》에 이 성을 762년(신라 경덕왕 21년)에 쌓았다(수축)고 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그러나 장수산성안에서 발견된 유적유물들은 고구려시기에 이미 성을 쌓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이 장수산성을 쌓고 그앞에 방대한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였겠는가.

장수산성안팎에서 발견된 고구려시기의 붉은색(그물돌흰무늬, 격자무늬)기와류는 산성의 축조년대를 밝히는 데서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되다. 그것은 이 기와류가 대성산성과 청암리토성을 비롯한 평양지방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의 기와류와 꼭 같기 때문이다. 평양지방에서 고구려의 붉은 기와가 발견된 대표적유적은 청암리토성과 대성산성이다.

고구려는 247년 평양성을 건설하고 종묘와 사직을 옮겼고《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 봄 334년에 평양성을 중축하였으며 343년에 왕이 평양 동황성에 자리를 옮겨앉았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4년 8월, 13년 7월) 247년에 동천왕이 건설한 평양성이 오늘날의 평양지방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공인되어있다. 대성산성과 청암리의 고구려유적의 년대는 주로 3세기이후로 추정되고있다. 따라서 장수산에서 발견된 고구려붉은기

와류도 이보다는 다소 늦은시기, 대체로 4세기 초중엽으로 볼수 있을것이다.

성안과 주변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기와류 하나만을 가지고는 성의 축조 년대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오늘날의 황해도지방을 언제 차지하고 장수산에 성을 쌓았졌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4세기 초중엽에 이미 오늘날의 배성강을 남쪽경계선으로 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황해도의 많은 지방을 이 시기에 이미 차지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247년 평양으로 백성들과 종묘, 사직을 옮겼다.⁶⁾

• 286년《고구려가 대방을 쳤다. 대방으로부터 우리(백제-인용자)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왕의 딸 보과에게 장기를 들어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이 <대방은 우리와 사돈간이 되는 나라이니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을수 없다.>하고 군사를 출동하여 구원하였더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이 고구려의 침입을 넘려하여 아차성(서울부근)과 사성을 수축하여 방비하였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책계왕 원년

• 300년《락랑과 대방 두 나라가 귀순하여 왔다.》《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기림 이사금 3년⁷⁾

• 371년《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쳐왔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패하(배성강기)에 군대를 숨겨두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

6) 나라의 수도를 새로 정하거나 옮길 때에는 정치, 경제적조건들과 함께 방위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이때 고구려가 평양지방을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그 남쪽의 적지 않은 지대가 이미 고구려영역으로 되었있었으며 남쪽방어를 위한 진지(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7) 위의 두 자료를 보면 고구려남쪽의 락랑, 대방 두나라(소국)가 고구려의 남진으로 멸망하고 그 지대가 기본상 고구려의 판도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 375년 11월 《고구려가 북쪽변방의 수곡성을 침공하여 함락시키니 왕(백제왕-인용자)이 장수를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 7월)⁸⁾

위의 자료들을 보면 280~300년경에 고구려는 이미 황해도의 많은 지대를 자기의 지방통치체계에 밀어 넣었으며 370년경의 고구려-백제경계전은 패해(배성강)일대였다.

장수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붉은색기와류는 이러한 역사적시기 즉 고구려가 황해도일대를 확고히 차지하게 된 3세기말~4세기 초중엽의 것이며 따라서 장수산성의 첫 축조년대를 이와 같은 시기로 인정하게 된다.

장수산성일대는 고구려의 남방진출을 위한 정치, 군사적기지로써의 역할을 높였다. 그것은 대체로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엽 고구려가 남평양을 한성(본래 백제 북한성)으로 옮길 때까지 그리고 551년 백제가 다시 고구려의 《평양》(오늘의 서울지방)을 점령한 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부수도(한성의 하나로서 고구려남방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앞으로 성 남쪽의 고구려건축지들과 그 주변에 있는 고구려의 무덤배들에 대한 고고학적발굴과 연구는 산성에 대한 자료들을 더욱 확증해줄 것이다.

장수산성은 668년 고구려멸망직후 외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국권회복을 위한 고구려군민들의 투쟁에서도 하나의 중심지였다.

고구려말기의 애국적부편이었던 검모잡은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유민들로 항쟁군을 맺고 외래침략군을 쫓아냈다. 검모잡은 그후 항쟁부대들을 장수산성에 집결시키고 서해의 사이도에 있던 안승(고구려왕족)을 데려가 왕으로 삼고 《고구려국》의 재건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장수산성일대를 수도로 하여 재건된 《고구려국》은 압록강남안으로부터 배성강일대까지의 광대한 영역을

8)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수곡성은 배성강상류의 남안, 오늘날의 신계지방이다.

차지하고 외백침략군을 반대하여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였다.

고려시기에 들어와서도 장수산성은 거란과 흉두군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임진조국전쟁시기 등 외백침략을 반대한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있다.

또한 장수산성은 1875년 일본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주구들을 반대하여 유생 김원규의 지휘밑에 벌어진 의병대의 투쟁이야기도 전하고있다.

1910년 가을에는 김정환의 지휘밑에 평산의병대가 장수산에서 일제헌병경찰대를 유인하여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섬멸하였으며 주체3(1914)년 3월에도 일제《토벌대》놈들과 격전을 벌려 수많은 적을 살상하고 서흥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장수산성은 고구려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창조적 역사,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귀중한 역사유적이다.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조희승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구려연구실장

민족의 슬기와 역사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여진다. 최근 발굴된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도 그러한 유적의 하나이다.

주체91(2002)년 9월 중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발굴대원들에 의하여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에서 5세기 전반으로 추측되는 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한 조사 발굴이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주체91(2002)년 4월과 6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벽화무덤에 대한 예비 조사가 진행되어 벽화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9월 14일 이후의 본격적인 발굴은 이러한 여러차례에 걸친 예비조사의 결과 벽화의 존재가 확인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송죽리무덤벽화에 대한 조사는 어느 고구려무덤과는 달리 무덤간전체가 흙에 묻혀있었고 봉분(무덤무지)이 없어지고 전정뚜껑돌이 로출된 상태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강서역흥리무덤벽화의 발견(주체65(1976)년 12월말)이래 실로 26년 만에 처음 보는 고구려무덤벽화의 발견으로 된다.

필자는 예비조사와 본격적인 발굴조사 전 과정을 리토회하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고고학적고찰보다도 송죽리무덤벽화가 위치한 자연지리적 및 역사적환경을 밝힘으로써 송죽리벽화무덤의 피장자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1.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을 둘러싼 역사지리적환경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은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에 있다.

연탄군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 12월 행정구역개편으로 황주군의 동부인 구락면(龜洛面), 도치면(都峙面), 인교면(仁橋面)의 일부와 서흥군의 북부인 세평면(細平面), 도면(道面), 소사면(所沙面), 수안군의 서부에 있는 틀계면(栗界面)을 떼내어 새로 나온 고을이다. 주체50(1961)년에 이 군의릉산리(陵山里)의 일부가 갈라져 황주군에 넘어가고 주체63(1974)년 5월에는 두문리(杜門里), 오덕리(五德里), 장지리(長芝里)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주체69(1980)년 현재 연탄군은 한개읍(연탄) 17개 리로 이루어져있다.

연탄군의 연탄이란 황주천의 한개 어울 이름 제비포(燕離)에서 유래되었다.

연탄군의 땅생김새는 북쪽 언진산줄기와 남쪽 자비산줄기사이에 있는 낮은 산들과 언덕밭이 많은 분지지대로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군의 남쪽경계를 이루는 자비산줄기에는 자비산(慈巖山 691m), 보명산(保命山 592m), 가마봉(可馬峰 483m), 뽕족봉(464m) 등의 산들이 있다. 자비산줄기는 동서로 뻗어있다.

연탄군은 황해북도 북서부, 황주천 상류연안에 있는 군으로서 남부는 자비산줄기를 경계로 봉산군과 서흥군, 서부는 황주군, 북부는 평양시 상원군(祥原郡), 동부는 수안군(遂安郡)과 잇닿아있다. 군의 넓이는 도면적의 7.2%(600㎢)를 차지한다.

연탄군은 일반적으로 서부를 제외하고는 북동부, 동부, 남부지역(수안군, 서흥군, 봉산군과의 경계)은 산지로 둘러싸여있으며 산비탈면은 절벽들로 이루어져있다. 군의 중심부 황주천류역과 서쪽에는 밭들이 펼쳐져있는데 이 지역은 회비위(石灰岩), 구들돌바위가 많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와 낮은 산지

들, 낮고 평탄한 벌들로 이루어져있다.

황주천기슭의 풍답벌(豊答原), 월룡벌(月龍原),릉산원(陵山原), 금봉벌(金鳳原), 칠봉벌(七鳳原)은 농업발전에 좋은 지대로 되고있다.

연탄군을 둘러싸고있는 산들은 대체로 모두 800m 이하의 산이며 거의 대부분이 250~300m의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상이 연탄군의 개략적인 자연지리적환경이다.

그러면 고구려고분이 있는 송죽리의 역사지리적환경은 어떠한가.

송죽리(松竹里)는 1950년대초에 송전리(松田里)와 남죽리(南竹里)의 소나무 송(松)과 대나무죽(竹)의 두 글자를 따서 만든 비교적 새로운 리이다.

송죽리일대는 예로부터 북남교통의 요충지, 요해지였다. 주변에는 전적산(善積山 535m)이 있고 남으로는 자비산줄기가 있어 유명한 자비령(慈悲嶺 330m)이 있다. 자비령은 흔히 역사에 서흥(瑞興), 절령(月嶺)으로 일러오는 역사적인 관문이다.

그 좌우에는 관암굴(冠岩洞)의 량선배고개(兩仙峯 310m)와 금수봉(金水峰 598m), 자비산일명 대녀봉(大女峰 691m), 운흥봉(雲興峰 592m) 등이 있어 천험의 요새지이다. 량선배고개와 더불어 특히 절령-자비령은 《일부당관 반부락개》의 중요통로, 중요관문으로서 소백산줄기의 문경새재-조령이나 추풍령에 견줄 정도의 중요한 관문이었다. 또한 송죽리일대는 고구려때의 오곡군(五谷郡)에 속해있었는데 고을은 일명 우차탄홀(牛次呑忽)이라고 불려왔다. 《고려사》 지리지 참고) 말하자면 송죽리는 고구려의 중요한 한개 고을의 일부로 존재하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서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송죽리는 남으로 절령-자비령이 있듯이 중요한 요해지의 중심에 있었다.

자비산줄기는 정방산(正方山), 삼봉산(三峰山), 가마봉(可馬峰), 약수산(藥水山), 횡기산(橫氣山), 안장산(鞍長山), 보명산(保命山), 운흥봉(雲興峰), 자비산(慈悲山), 자비령(慈悲嶺), 전주산(錢溝山), 숭덕산(崇德山) 등에 이어지는

서해일대의 남북을 가로 지른 천협의 요해지이다. 송죽리가 위치한 자비령주 변에는 크게 서쪽 황주쪽에 성골(城洞), 성동리(城洞里)의 지명이 있으며 동쪽 서흥쪽에는 성대리(城臺里) 일명 성남동(城南洞)라는 지명이 있다. 또한 대두문골(大杜門洞), 소두문골(小杜門洞)의 지명이 남아있으며 막은담(防垣), 성문(城門), 하방골(下防洞)과 같은 지명도 남아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자비령과 동선령(洞仙嶺)을 남쪽 경계로 한 비교적 큰 산성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자비령산줄기자체는 하나의 큰 산성으로 자비령좌우에는 줄비위(鍾巖)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산성이 구축되어있다. 정방산성은 그러한 방어성의 하나이다.

성(산성)과 관련된 이러한 지명유제들이 고구려때의것인지, 아니면 고려 때의것인지 잘 알수 없으나 역사적추이로 보아 처음 고구려이전에 구축되었다가 고구려전기간 사용되었고 고려때에도 수축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송죽리는 고대로부터 중세시기에 걸친 간선도로의 중심을 타고있다. 정확히 말하면 옛 남죽리와 송진리는 간선도로 우측 서흥쪽에 위치해있고 간선도로 좌측은 옛 황주군의 구락면(龜洛面)이다. 요컨대 고구려 벽화무덤이 있는 송죽리는 고대와 중세전기간 북과 남으로 오가는 육로의 기본간선도로에 위치한 자못 중요한 고장이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하더라도 평양에서 남으로 가는 기본간선도로는 평양-중화-황주-자비령고개를 넘어 서흥(瑞興)-평산(平山)에로의 길을 밟았다. 그밖에 황주로부터 동선(洞仙)을 거쳐 봉산 서흥에로의 길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남으로 통하는 기본도로는 자비령을 거쳤다.

연탄군주변의 름접근인 상원군 장리와 귀일리 그리고 황주군 침촌리 등에서 고인돌무덤떼가 알려져있고 연탄군에도 약 2,000기정도의 고인돌이 알려져 있다.

고구려무덤도 대단히 많다. 이제까지 역사유적으로 알려진것으로는 연

탄 심원사(深原寺)가 유명하다.

이러한 송죽리의 역사지리적환경은 송죽리벽화무덤의 피장자를 밝혀내는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2. 피장자문제

송죽리고구려고분은 여러 무덤들로 폐를 이루고 있다. 대충 추신해보아도 18기의 고구려무덤들이 있다. 아늑한 분지를 이루고있는 송죽리고구려무덤떼가사이에는 황주천이 흐르며 무덤입구들은 하나같이 남쪽을 향하고있다. 벽화무덤에서 북쪽끝으로 100m 남짓한 곳에는 《큰 무덤》이라고 부르는 삼각고입천정무덤들을 한 고구려무덤이 있다. 회를 발랐던 흔적이 벽력한 《큰 무덤》에서는 일찍부터 붕분은 없어지고 도굴구멍으로 보아지는 천정무덤들이 깨어져 나간데로부터 일찍이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을 것 같다. 발굴조사과정에 무덤의 입구 천정가까이에서 빨간도료를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면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의 피장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송죽리벽화무덤은 5세기 초엽 고구려가 평양에 수도를 옮긴 다음 수도인 평양성을 공고히 다지는 일환으로 자비령이북일대를 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파견된 왕족 또는 유력한 귀족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 무덤의 피장자는 서흥(연탄)일대에 파견된 이래 중앙의 높은 신임을 받으면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흥일대가 차지하는 정치적 및 군사적중요성과 관련되다고 보기때문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서흥일대는 자비령산줄기(일명 정방산줄기)가 동서

로 뻗어있는 천험의 요새를 끼고있는 고을이었다. 자비령이 천험의 중요한 관문이었다는 것은 좀 후세의 일이지만 고려시기 《묘청(妙淸)의 반란》으로 불리우는 1135년 농민전쟁때의 사실 하나만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때 평양사람들은 나라를 대위국(大爲國)으로 선포하고 천개(天開)라는 년호를 제정한 다음 천건충의군(天健忠義軍)이라는 군대를 무었다. 그런 다음 군사를 파하며 절령(자비령)길을 차단케 하였다. 절령만 차단하면 남쪽으로부터 들어오기가 힘들었던것이다. 고려시기 반역자들에 의해 일시 절령이북평에 동녕부가 설치되고 몽골에 속하게 된것도 자비령이 지맥상 하나의 큰 경계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국토의 동부에서 강원도 철령이 지맥상 하나의 큰 경계였던것처럼 서부에서는 절령(자비령)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그곳이 일찍부터 나라의 중요요충지로 되어온것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충충으로 되는 수도방위성을 각이한 방향, 각이한 방면에 여러 가지로 구축하였다. 그중에서도 남방진출의 기본요인인 자비령일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렸다고 보이진다. 남방에 대한 진출에서도 그렇고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백제의 공격에도 대비할수 있는 가장 요긴한 요충지가 바로 서흥(연탄)-송죽리일대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여기에 오곡군(일명 우차탄홀)을 두고 믿음직한 장수를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이진다.¹⁾

송죽리벽화에는 문지기장수와 노루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면들이 많고 무사들이 그려져있다. 이것은 피장자가 높은 급의 장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서흥(연탄)일대를 강하게 통제하려는 고구려로서 이곳에 높은 급의 장수

1) 고구려 오곡군(오곡성)이 오늘의 서흥일대민을 포함하는것인지 연탄군 송죽리까지도 포함하는 고을이었는지 잘 알수 없다. 여기서는 일단 자비령이북 서흥일대를 오곡성, 오곡고을로 보기로 한다.

를 파견하였으리라는 것은 알만한 일이다.

둘째로, 송죽리무덤벽화의 내용을 통하여 무덤의 피장자가 왕족 또는 유력한 귀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송죽리무덤벽화는 다양한 화제(畫題)로 이루어져 있다. 문지기장수(수문장)와 꿩어얏은 시종관 비슷한 인물(무관), 말을 타고 활로 노루나 범을 사냥하는 인물, 투구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무사대오와 대별, 말을 끌고 가는 견마잡이 아이, 소달구지에 무엇을 가득 싣고 가는 인물, 평상우에 앉아있는 주인공 등 다양한 그림들이 펼쳐져 있다. 특히 현실(무덤간)안쪽벽에 앉은 주인공(평상 같은 곳에 앉아있다.)이 동쪽벽면에 그려져있는 소달구지에 싣고 온 물건들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벽화무덤의 주인공이 지방행정장관을 겸한 높은 관료이며 무장적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케 한다. 말하자면 의장대오를 가진 일정한 무력을 통솔하였던 인물로 보이지는 것이다.

물론 송죽리벽화무덤의 피장자가 5세기 전반기에 처음으로 파견되어 오곡군(서흥)의 성주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오곡군이 5세기 초엽경에 처음 설치된 홀(고을)이 아니기 때문이다.²⁾

잘 알려져있는 것처럼 고구려는 남방진출을 위한 첫 시도로써 오늘의 평양일대를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해왔다. 3세기 중엽(247년-동천왕21년)《평양성을 쌓고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옮기었다.》《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는 기사 바로 그것이다. 그후 고구려는 보다 더 남쪽으로 나아가 남평양(신원 도시

2) 송죽리벽화무덤피장자의 성격에 대하여서는 이밖에도 고구려중앙에 비한 반독립적(후국적-평주적) 색채가 짙은 인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북쪽의 《큰 무덤》의 존재를 참고해볼 때 《큰 무덤》의 피장자는 벽화무덤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큰 무덤》이 말그대로 매우 크고 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벽화무덤과 《큰 무덤》은 친연적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벽화무덤의 피장자와 그 후손들은 차츰 토착화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적과 재령 장수산성일대)을 구축하였다. 고구려는 남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연탄일대도 꾸렸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오곡군도 3~4세기에는 이미 설치되었을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성문, 성기위라는 지명들은 바로 고구려때부터의 오랜 지명유제로 보아지는 것이다. 중앙에서 서흥일대에 파견된 인물은 산성도 구축하고 치산치수사업을 진행하여 자기의 세력지반을 닦았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송죽리벽화무덤의 주인공이 처음으로 오곡군에 파견된 인물이었는가는 것이다.

4세기 중엽에 이미 재령(신원) 남평양성이 건설된 조건에서 오곡군이 설치된 것은 그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다.

송죽리고구려무덤은 폐무덤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송죽리무덤의 피장자들이 혈연적(친연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송죽리무덤배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연구가 심화되면 보다 이른 시기의 무덤도 드러날 것이에 기대된다.

송죽리벽화무덤의 피장자가 고구려의 왕족이거나 유력한 귀족층이었다는 것은 회화기법의 높은 수준을 보이도 잘 알 수 있다.

송죽리벽화무덤의 그림그리기수준은 실로 절묘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어린 견마잡이군과 개의 형상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견마잡이군의 얼굴을 가는 붓으로 그렸는데 필치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와 마치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견마잡이군의 입술은 앵두처럼 빨강게 그려졌는데 방금 그려낸 것처럼 생동하다.

흰개 역시 눈이 생동하며 꼬리 역시 살짝살짝 흔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매우 생동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개의 수염이 있는 것까지 그림으로써 해학적 느낌을 주고 있다.

송죽리무덤벽화의 그림은 이제까지 알려준 춤무덤(무용총)이나 씨름무

법, 장천1호무덤 등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집안(국내성)의 고구려무덤벽화들에 찍이지 않는 높은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른 기교로 그려져있다.

이것은 송죽리무덤벽화가 일류급의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5세기 초엽의 것으로 알려진 벽흥리무덤벽화와 대비해볼 때 양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벽흥리무덤벽화는 송죽리무덤벽화에 비해보면 인물형상에서와 필치에서 수준이 낮다. 송죽리무덤벽화에서 개개의 인물들은 신분이 낮은 견마잡이군에 이르기까지 묘사와 필치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고구려의 회화기법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무덤벽화의 주인공이 중임급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왕족 또는 유력한 귀족)로서 급수높은 화공을 초청해와서 자기의 무덤간을 장식하였을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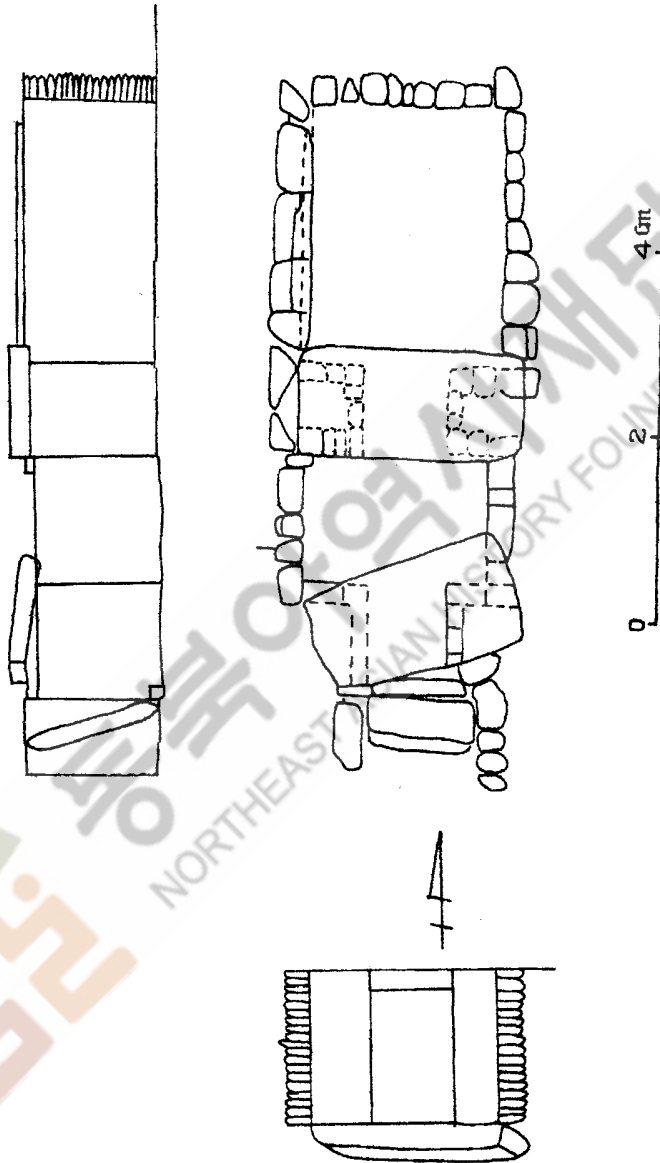
이밖에도 송죽리벽화무덤에서는 은비녀 3개와 은판씩은 판뚝 판고리, 둥근 고리 등 여러 유물들이 나왔다. 판뚝은 매우 크고 호화롭다. 벽화의 내용뿐 아니라 판뚝대가리에 얹게 은판을 씌운 것을 보이도 그렇고 무덤길에 들어가는 돌문짝과 천정뚜껑들이 몹시 큰 것을 보이도 이것은 돌문짝과 천정뚜껑들이 몹시 큰 것을 보이도 이것은 벽화무덤의 피장자가 큰 권력에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상 간단하게 연탄군 송죽리벽화무덤을 둘러싼 역사지리적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연탄군일대의 고구려고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더게 되었으면 것은 전적으로 송죽리 고구려무덤에 봉분(무덤무지)이 없었다는 데로부터 그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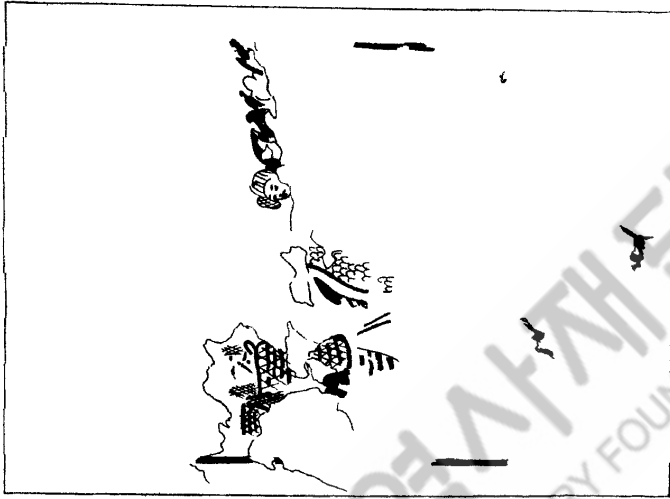
이번 연탄군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한 발굴로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발전수준을 좀 더 깊이 엿볼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조사와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송죽리고구려부덤베의 진상과 그를 통해 본 강대국 고구려의 참모습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밝혀지게 될것이다.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 실측도】



【안길 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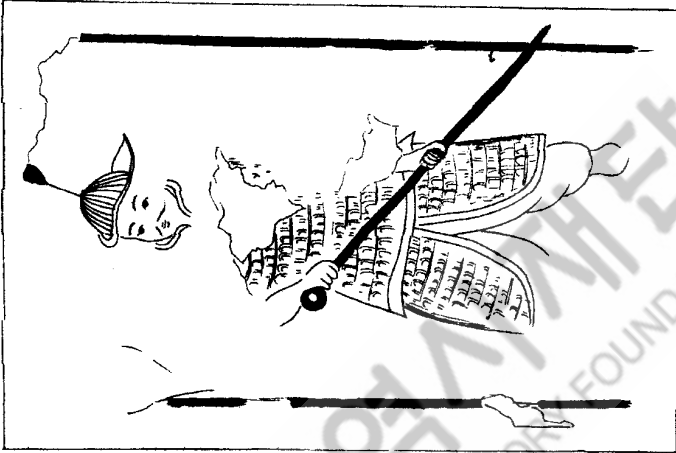
【안길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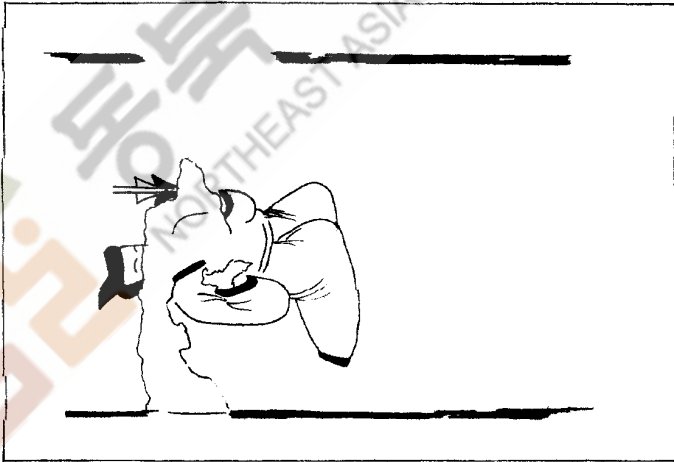
【안간 예표】



【아칸 서벽】



【얇간 남백 서쪽】



【얇간 남백 동쪽】



【사이길 서벽】



【사이길 동벽】



【인간 문화】



【인간 북역】



국내성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에 대하여

최승택(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학사)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강대국으로 이름떨쳤던 고구려는 수도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수많은 성곽을 쌓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켰다.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에서 수도성방위체계는 특별히 견고하고 완비된 것으로 하여 국가와 수도의 안전을 지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성방위체계는 수도였던 환인, 집안, 평양일대와 부수도가 있었던 지역들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년간에 알려진 고고학적자료들에 기초하여 국내성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집안은 고구려가 A.D. 3년에 졸본으로부터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성으로 정하였던 국내성이 자리잡고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집안일대에는 수도성방위체계를 엿볼수 있는 성곽방위시설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국내성도읍시기의 수도성은 평지의 궁성인 국내성(둘레 2,686m)과 그 서북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궁성방위성인 위나암성(산성자산성, 둘레 6,951m)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구려는 이 수도성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로 들어오는 주요통로와 골짜

기, 강변들마다에 여러가지 성방위시설들을 쌓아 강력한 수도성방위체계를 형성하였다.

수도방위성들은 국내성의 북쪽, 서쪽, 남쪽에 방사선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수도방위성들로서는 우선 국내성 북쪽의 대라권구하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교통로에 있는 이도구문차단성, 석호차단성, 자안산성을 들수 있다.

이도구문차단성(고려성자라고도 부름)은 수도로부터 북쪽으로 65km정도 떨어진 길림성 통화시 압원진 이도구문에 있다.

이 차단성은 대라권구하가 혼강에 합류되는 지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도구하는 차단성에서 300m정도 내려가서 대라권구하에 합류된다.

이 차단성은 토석혼축성으로서 관마장 차단성과 비슷한데 내부는 이미 채석장으로 되어 많이 류살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구조는 알수 없다. 석호차단성은 국내성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37km 떨어진 길림성 통화현 석호향 고려성자촌의 동쪽 300m되는 지점에 있다.

이 차단성은 이도구문차단성에서 남쪽으로 34km정도 떨어진 소팔구하와 대라권구하가 합류하는 강변의 산골짜기 사이에 축조되었다. 성벽은 토석혼축으로서 길이 29m, 밑너비 12m, 윗너비 1.5~3m, 바깥벽(북)의 높이 5m, 안벽의 높이 3m이다.

차단성벽에는 반원형의 치가 축조되어 있다. 치는 흙으로 쌓았는데 반경이 5~6m이고 높이는 성벽보다 0.5m정도 더 높다.

차단성벽에서 6m정도 떨어진 바깥쪽에는 너비 8m, 깊이 8m로 된 해자자리가 있다.

자안산성은 집안에서 북쪽으로 약 68km 떨어진 길림성 통화시 강동향 북쪽, 합나하가 혼강으로 들어가는 지점의 작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혼강이 흐르고 있다.

산성이 자리잡은 지세는 매우 험한데 성의 서쪽과 북쪽이 비교적 완만한 고로봉형이다.

성은 둘레의 길이가 2,773m이며 성벽은 돌로 축조되었다.

산성의 동북쪽모서리와 서북쪽모서리에는 각루유적이 남아있으며 동벽 바깥쪽에는 초소자리가 여러곳에 있다.

성문은 서벽에 3개, 북벽에 1개 있다.

성인의 북부와 동남부에는 샘터와 못자리, 건축지가 있다.

건축지들에서는 고구려시기의 회색, 회갈색질 그릇과 기와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자안산성은 이도구문차단성, 석호차단성과 서로 연계를 맺고 혼강과 대라권구하를 따라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 수도방위성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이 성들이 모두 수도방위에 유리한 지리적으로충지들에 쌓어진것을 보고 알수 있다.

대라권구하는 로령산줄기의 북쪽에서 발원하여 혼강으로 들어가는데 국내성으로 들어오자면 반드시 로령산줄기를 넘지 않으면 안된다.

이도구문차단성과 석호차단성은 바로 통하와 집안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막는 중요한 지점에 쌓어진 성들이었다.

자안산성은 대라권구하와 혼강이 서로 합류하는 부근의 혼강서쪽을 차지하고 석호차단성, 이도구문차단성과 서로 방어적연계를 맺고 수도북쪽의 방위를 담당하였다.

수도방위성들로는 다음으로 국내성의 서북, 서쪽방향인 위사하, 청하, 신개하, 혼강, 쿠하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주요통로들에 설치된 관마장차단성, 대전보루, 망파령차단성, 패왕조산성이 있다.

당시 료하방면에서 고구려의 수도로 들어오는 길은 두갈배였는데 그 하나는 위사하 및 그 상류인 대청하를 따라서 오다가 로령을 넘어들어오는 북쪽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개하골짜기를 따라 올라와서 판차령을 넘어 마선구(산성자산성의 남쪽마을)로 들어오는 남쪽길이다.

고구려는 수도로 들어오는 험한 골짜기들을 골라 차단성과 보루, 산성을 각각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고 수도방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성의 서북, 서쪽에 쌓아진 성들은 고구려의 북쪽길과 남쪽길에 주로 배치되어있었다고 할수 있다.

북쪽길을 막기 위한 수도방위성은 판마장차단성과 대천보루이다.

판마장차단성은 국내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대략 65km정도 떨어진 길림성 집안시 열료향 상위촌의 위사하가에 있다.

이 차단성은 집안에서 통화로 가는 도로상에 배치되어있는데 북장(두도판마장), 남장(이도판마장), 동장(삼도판마장)의 3개의 성벽으로 되어있다. 3개의 성벽은 각각 북, 남, 동쪽방향의 각 골짜기입구를 차단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3개의 성벽가운데서 제일 잘 남아있는것은 북장이다.

북장은 원래 길이가 150m 정도였는데 현재는 길이 77.6m, 높이 2.3m정도 남아있다. 성벽의 동쪽끝은 강변까지 이어졌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벼랑으로 되어있다.

남아있는 서쪽성벽은 직선으로 산등성이까지 이르고있다. 성벽은 거의 대부분 자연돌로 쌓아올렸으나 서쪽의 일부는 가공한 돌로 바깥면을 맞추면서 정연하게 쌓았다.

북장벽으로부터 1~4.6m정도 떨어진 곳에는 너비 3.5m, 깊이 0.8m의 해자(도랑)자리가 53m 길이로 남아있다.¹⁾

그리고 그 북쪽에는 크고작은 막돌로 기초를 만들고 그우에 돌과 흙으로

1) 《고고》(중문) 1964년 2기, 76~78페이지

쌓은 성벽이 40m정도 남아있다.

북장의 성벽배치는 이처럼 조밀하고 여러가지 방어시설을 갖춘것을 보면 북쪽이 방어체계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남장은 북장에서 960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남장은 원배 길이가 120m정도였는데 현재 60m정도 남아있다.

성벽은 동서방향으로 나있는데 밑너비 7.5m, 높이 1.5~2.1m이다.

동장은 위사하에서 동쪽으로 150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성벽의 길이는 원배 125m였는데 현재 70m정도 남아있다.

성벽은 높이 0.7~1.4m, 밑너비 6.5~7m이다. 동장의 북쪽끝에서 23m 되는 곳에는 길이 9.6m, 너비 4m인 성문터가 남아있다.

관마장차단성의 북장과 남장은 적의 침입로를 2중으로 차단한것이며 동장은 북장을 파괴하고 침입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한 차단시설로서 통로와 평행으로 쌓아졌다.

대전보루는 국내성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집안시 청하향 동북 2km지점에 있다.

보루는 대청하의 북쪽에 있는 높이가 20m 정도되는 산등성이우에 돌로 쌓아졌다.

이 성은 높은 둔덕에서 바로 그아래를 지나가는 적을 막거나 위사하 하류지대에 대한 감시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성의 평면은 대략 둥글게 생겼다. 그 둘레는 153m, 성벽기초부분 너비는 4m, 남아있는 높이는 약 1m이다.

이 성은 관마장차단성의 서북쪽으로 8km정도 떨어져있다. 성안에는 북에서 적이 발견되면 관마장차단성에 연락하는 망루유적이 있다. 대전보루는 관마장차단성과 멀지 않은 곳에서 호상연계를 맺고 통화와 위사하방향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방위시설로 볼수 있다.

즉 대천보루는 판미장차단성의 전초기지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현재 도 판미장차단성과 대천보루가 지키고있던 통로는 통화와 집안을 연결하는 도로로 리용되고있다.

남쪽길을 막기 위한 수도방위성은 망파령차단성, 패왕조산성을 들수 있다.

망파령차단성은 국내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8km정도 떨어진 집안시 태상현 삼가자에 있다.

이 차단성은 신개하와 망파령사이의 좁은 골짜기를 가로질러막은 석성이다.

신개하의 량쪽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데 강의 오른쪽기슭에 높은 산 봉우리가 강을 밀어내는 형태로 길게 늘어서 천연의 장벽을 이루고있다. 차단성벽은 이 망파령의 동쪽비탈면에서 강기슭까지 쌓아졌다.

성의 전체길이는 750m이고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1.5~2.5m이다. 이 성은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좁고 험한 신개하골짜기를 가로막아 차단하고있으므로수도를 방어하는데서 중요한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있다.

망파령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룡평을 지나 마선하를 따라내려가면 소판차령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가면 산성자산성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은 험하고 좁아 지나가기가 어렵지만 룡하방면에서 고구려수도로 들어오는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당시 적들이 노릴수 있는 통로의 하나였다. 망파령차단성은 바로 이 통로를 막기 위하여 쌓아진것이다.

패왕조산성은 망파령차단성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집안시 재원향 패왕조촌의 동북쪽 혼강과 신개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이 성은 신개하하구의 오른쪽기슭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주요통로를 막고있다.

이 산성은 산등성이의 자연지세에 맞게 축조되었는데 대부분 가파로운 절벽을 충분히 리용하였다. 성의 평면은 대략 제형으로 생겼다. 성은 들베의

길이가 1,260m이다. (동벽 298m, 서벽 420m, 남벽 247m, 북벽 295m)

성벽축조에 이용된 성돌은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가공한 것이다. 성돌의 크기는 길이 20~51cm, 너비 29~42cm, 두께 13~26cm이다.

성벽이 잘 남아있는 곳의 높이는 5.2m, 너비는 1~4m이다.

성벽의 일부 구간에는 성기둥이 있으며 성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1개의 문터가 있다. 성의 북벽 성기둥 안쪽에서는 돌로 쌓은 기둥구멍 18개가 일직선으로 발견되었다.²⁾

패왕조산성은 고구려초기에 쌓은 성으로서 졸본성의 수도방위성으로 되어있었으나 수도가 국내성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망파령차단성과 함께 신개하방향의 남쪽길을 통하여 국내서 서북쪽으로 침입하는 적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있다.

패왕조산성의 서북쪽으로는 남쪽길이 계속 뻗어있는데 그 요소요소마다에는 고구려성들이 있다.

즉 패왕조산성에서 서남쪽으로 혼강을 건너면 30km되는 곳에 오녀산성이 있고 오녀산성에서 북쪽으로 30km가면 흑구산성이 있으며 또 거기에서 혼하상류쪽으로 가면 고구려성들이 축조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쪽길이 료하에서 국내성으로 통하는 주요한 통로였으며 거기에 있는 망파령차단성과 패왕조산성은 그 길을 막기 위한 수도성방위체계의 주요구성부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내성과 서남쪽에는 북구차단성, 외차구성, 해관성(로변장차단성)이 있다.

북구차단성은 료녕성 환인현 사첨자진 북구촌에 있다.

사첨자진에서 동북으로 9km 떨어진 북구촌서남에는 북간구라고 하는 좁은 골짜기가 있는데 강물은 서쪽으로 3.5km 흘러 혼강의 지류인 루하로 들

2) 《고고》(중문) 1962년 11기, 569~571페이지

어간다.

북구차단성은 강과 작은 길이 나란히 있는 두 절벽사이에 쌓았다.

성벽의 길이는 원래 259m였는데 현재 남아있는것은 북쪽 134m, 남쪽 88m뿐이다. 성벽의 바깥벽은 가공된 돌로 쌓아졌고 안쪽은 막돌을 채워넣었다. 성벽의 높이는 1~1.8m, 밑너비는 9~10m이다.

이 차단성은 국내성의 서쪽 환인에서 집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것으로 볼수 있다.

외차구성은 수도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집안시 량수향 외차구촌의 서쪽에 있다.

이 차단성은 칠개정자신의 좁은 골짜기물이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협곡의 남쪽끝에 자리잡고있다. 이 차단성을 기간정자차단성, 칠개정자차단성 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압록강을 따라 7km정도 내려가면 혼강의 합류점인 혼강구이 고고 대안은 초산에 가깝다.

성벽은 좁은 골짜기를 가로지른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성벽은 자연돌로 축조되었다.

동쪽벽은 산등성이의 절벽에서 강물과 접하여 도로가 끊어지는 곳까지 있는데 그 길이는 60m, 높이는 2.4m, 밑너비는 9~11m이다.

서쪽벽은 강변에서 서쪽산등성이까지 있는데 그 길이는 70~75m, 높이 0.6~2.2m, 밑너비 8.5~10m이다.

동쪽벽의 남쪽으로 8m 떨어진 곳에는 길이 20m, 너비 3.5m로 된 또 하나의 돌벽이 있는데 그사이에는 해지를 뚫다.

서쪽성벽의 동쪽끝 안쪽(북)에는 길이 15m, 너비 4.5m인 웅성형태의 성벽이 돌로 낮게 쌓아졌다.

해관성은 수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36km정도 떨어진 집안시 량수향 해

관촌의 북쪽에 있다.

이 성은 외차구성에서 동쪽으로 7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이 차단성의 200m 아래에는 량수천자하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다. 이 강물은 남쪽으로 4km정도 흘러 압록강에 합류된다.

강변의 협곡을 차단하고있는 해관성의 성벽은 동서 두 부분에 쌓이졌다. 차단성은 동쪽벽이 130m, 서쪽벽이 20m정도 남아있다. 높이는 1~2m, 웃너비 1~1.8m, 밑너비 8m이다.

성벽은 대충 가공한 돌로 바깥벽을 쌓고 안에는 막돌과 진흙을 채워넣은 다음 웃부분에 진흙을 씌웠다. 국내성의 남쪽 압록강 건너편에도 수도방위성으로 볼수 있고 산성, 보성이 있다.

그러한 성들로는 도올한 보성과 만포진성, 구보동산성 등을 들수 있다.³⁾

도올한 보성은 집안으로부터 남쪽으로 38km정도 떨어진 평지에 돌로 쌓았다. 둘레가 1,200m인 이 성은 오늘의 자강도 위원군에 있다.

만포진성은 자강도 만포에 있는데 돌로 쌓은 둘레 약 2km 되는 산성으로서 집안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있다.

구보동산성은 자강도 시중군에 있는 토성으로서 집안에서 동남쪽으로 18km정도 떨어져있다.

해관성, 도올한 보성, 만포진성, 구보동산성은 서북방향에 배치된 방위 시설들인것처럼 수도방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할수 없으나 모두 서남쪽에서 압록강을 거슬러올라오거나 압록강에서 상륙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하여 호상 방어적연계를 맺고 수도방위의 사명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성도읍시기 수도주변의 요충지마다에는 여러가지 성방

3) 《고구려의 성곽》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2(2003)년, 104페이지

어시설을 쌓아 비교적 완비된 수도성방위체계를 형성하였다.

국내성도읍시기의 수도성방위체계는 방위성들의 배치와 구조, 방위력에서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그 특징은 우선 수도방위성들의 배치에서 볼수 있다.

수도방위성들의 분포에서 특이한것은 방위성들이 수도의 서북방면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기본통로를 따라 집중배치된것이다.

이도구문차단성, 석호차단성, 자안산성, 관미장차단성, 대전보루, 망파령차단성, 패왕조산성, 북구차단성 등 국내성방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성들은 모두 당시 고구려의 수도로 통하는 기본통로인 북쪽길과 남쪽길의 요충지들에 주로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에 있을 때 서북방면에 고구려의 주되는 침략체력이 있었고 북쪽길과 남쪽길이 고구려의 중심지로 들어오는 기본통로였으며 수도방위에서 기본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당시의 환경과 지리적조건으로하여 수도성방위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북방면의 기본통로방어에 주되는 힘을 넣었던것이다.

물론 수도의 서북방향에도 일부 방어시설들을 쌓았으나 그것들은 서북방향의 성방어시설에 비하면 부차적인것이였다고 생각된다. 당시 고구려남쪽에는 동쪽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남쪽방향에서 크게 위협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남쪽방위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을것이다.

수도방위성배치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또한 방위성들의 대부분이 강과 연결한 도로, 골짜기를 낀 요충지들에 설치되어 호상방어적연계를 맺고있는것이다.

실제로 석호차단성과 이도구문차단성은 대려권구허를 따라 나있는 교통로에 자안산성은 대려권구허와 혼강의 합류지점에, 관미장차단성과 대전보루는 위사하와 청하를 끼고있는 통로에, 망파령차단성과 패왕조산성은 신개하

골짜기를 따라 수도로 들어오는 길목에, 북구차단성은 루히를 낀 좁은 골짜기에, 외차구성은 압록강변의 협곡에 쌓아졌다.

그것은 깊은 강과 골짜기가 적을 막고 자연적인 장애물로 리용될수 있고 당시 집안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주요통로들이 강을 따라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고구려는 바로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방위력이 강한수도성바위체계를 형성한것이다.

그특징은 다음으로 성방어체계를 이루고있는 대개 성들의 구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수도방위성들의 구조적측면에서 특징적인것은 차단성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산성과 보주를 배합하여 군사방어적성격이 매우 강한방어시설을 구축한것이다.

이도구문차단성, 석호차단성, 관마장차단성, 망파평차단성, 북구차단성, 외차구성, 해관성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수도방위성들의 대부분은 차단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차단성들은 졸본도읍시기나 평양도읍시기의 수도방위성의 구조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구조이다.

차단성은 성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만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일정한 부족점이 있지만 당시 수도방어의 요긴한 통로들에 있는 험준한 골짜기의 자연지세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축조됨으로써 일정한 범위를 둘러막은 산성 못지 않는 중요한 방어기능을 수행하였다.

실례로 관마장차단성은 3개의 성벽으로 둘러쌓여있는 그리 크지 않은 차단성이지만 집안에서 통화로 뻗어있는 도로와 위사하에 동, 서 산골짜기입구를 차단하고있으므로 통화방면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데서 매우 중요한역할을 놀았다.

망파령차단정도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좁고 험한 신개하골짜기의 가장 적중한 지점을 선택하여 성벽을 쌓음으로써 적은 역량으로 수도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국내성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는 그 이전 졸본도읍시기의 수도성방위체계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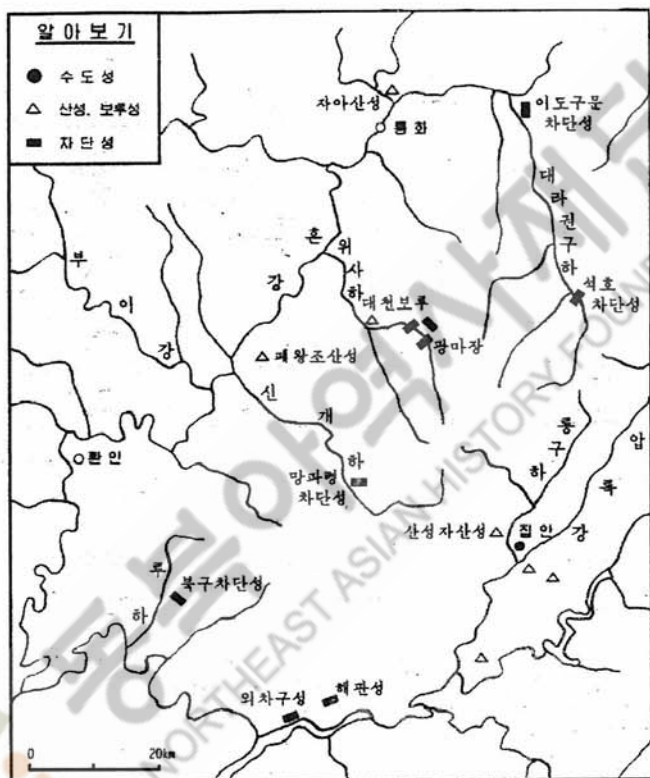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성을 보위하기 위한 수도방위성으로서의 수도의 북쪽에 위치한 룡녕성 신빈현 흑구산성과 동북쪽에 위치한 신빈현 권수호산성, 길림성통화현의 패왕조산성, 삼탑보산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졸본도읍시기의 수도방위체계는 수도성방위체계형성의 초시기였으므로 미비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방위성들이 수도의 북쪽과 동북쪽방향에만 치우쳐있어 수도의 여러 방향의 방위를 강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배치되어있지 못한 점들이다.

여기에 비하면 국내성도읍시기의 수도성방위체계는 수도의 여러 주변에 차단성과 보루, 산성을 비롯한 보조방어시설들을 적지 않게 배치하고있어 졸본의 수도방위체계보다 발전한 것이었다.

국내성도읍시기의 수도성방위체계는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애국심과 창조력에 의하여 이룩된 것으로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후 평양도읍시기보다 완성된 수도성방위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과 토대로 되었다.



【 집안부근 성분포도 】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 대하여

김경삼(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학사)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의 역사를 주도해온 고구려관계 유적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은 평안남도 강서군 배성리3호벽화무덤,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벽화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읍벽화무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벽화무덤의 4기에 달하고 있다.

새로 발굴된 이 벽화무덤들은 그 지리적 위치와 무덤의 축조방법, 무덤간에 그려진 벽화의 주제별 내용 그리고 무덤간에서 드러난 유물들로 하여 삼국시기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로 되고 있다.

먼저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들의 구조형식과 축조년대를 대략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배성리3호벽화무덤은 무덤간이 반지하에 축조된 여러칸의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은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의 좌우에 달려있는 동서결칸, 안칸, 안칸의 서쪽부분과 북쪽부분에 설치된 《㉞》형 회랑, 북쪽회랑의 동쪽부분에서 밖으로 통하게 되어있는 보조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성리3호무덤의 벽화는 여러차례의 도굴로 인하여 벽체와 천정이 심하

게 파괴되었으나 문칸의 서벽에 그려진 붉은색기둥과 코신을 신고 품이 넓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부분, 동벽의 붉은색기둥, 앞칸에서 드러난 구름무늬가 그려진 벽화조각들로 보아 이 무덤칸들에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있었음을 알수 있다.

태성리3호무덤의 무덤칸에서는 금제꽃잎형장식품, 금제살구잎형장식품, 청동팔찌, 회색도기인 바리, 황록색유약을 바른 도기조각, 판못, 구슬 등의 유물들이 드러났다. 이 무덤은 무덤의 구조형식과 거기에서 드러난 황록색유약을 바른도기조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4세기경으로 편년된다.¹⁾

다음으로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은 무덤길, 안길, 앞칸,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진 돌칸흙무덤으로서 반지하에 축조되어있다.

발굴장시 무덤칸들의 벽과 안길, 사이길의 천정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앞칸과 안칸의 천정은 1단 평행고임부분만이 남아있었다.

무덤칸안에는 앞칸과 안칸 안길, 사이길 등 전면에 걸쳐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있었다. 그것을 주제별로 보면 안길의 두벽에는 보병 및 개마무사행렬도가, 앞칸에는 문지기장수, 공양도, 주인공의 행차도, 수렵도가, 사이길의 두벽에는 문지기장수가, 안칸에는 장방생활도 및 정사도가 그려져있었다.

무덤칸에서는 은판을 씌운 판못, 은비녀, 판못들과 관고리손잡이, 여러개의 질그릇조각들이 드러났다. 이 무덤은 무덤칸의 구조형식과 벽화의 내용들로 하여 5세기 전반기로 편년된다. 은파군 음벽화무덤과 대성동벽화무덤은 심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드러났으므로 그 구조형식과 벽화의 주제별내용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안길이 남쪽에 치우쳐있는 외칸돌칸흙무덤으로서 반지하에 축조되어있으며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벽화들로 보아 은파음벽화무덤에는 인물풍속도가, 대성동 벽화무덤에는 사신도가 그려져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1) 《조선고고연구》주체91(2002)년 1호, 6~7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발굴된 이러한 벽화무덤들은 자연지리적위치와 구조형식, 벽화의 주제별내용들로 하여 새로운 문제점들을 적지 않게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벽화무덤들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있다는 종래의 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시와 그 주변인 남포시일대에서 수십여기의 벽화무덤이 발굴되었으며 그외의 지역으로서는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10여기의 벽화무덤이 발굴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종래 학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에만 벽화무덤이 집중적으로 존재하고있는것으로 보고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황해북도에서 2기의 벽화무덤이 새롭게 발굴됨으로써 당시 지배계급들이 벽화무덤을 쓰는 현상이 보편화되고있었으며 중양뿐아니라 지방에 거주하고있던 지배계급 역시 이러한 벽화무덤을 썼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평양일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벽화무덤이 존재하고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있다.

둘째로, 황해북도에서 고구려의 가장 큰 군사행정중심지문제를 밝힐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것이다. 지금까지 고구려시기의 오곡군이 황해북도 연탄군 및 서흥군일대라는것은 인정되었으나 그 군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오곡군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일대를 방위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었다. 이것은 4세기 중엽 고구려의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오곡군이 자리잡고있는 지역에서 고구려와 백제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번에 연탄군 송죽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이 발굴되고 또 그 주변에서 10여기가 넘는 큰 규모의 고구려돌간혹무덤들이 조사됨으로써 오곡군의 소재지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게 되었다. 큰 규모의 돌간혹무덤들과 벽화무덤들은 지배계급들이 쓴것이며 이러한 무덤들이 벼를 지어 자리잡고있는 곳에 그 지역을 통치

하는 지배세력의 중심지가 있었다고 보는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송죽리벽화무덤과 그 주변에 벼를 지어 분포되어있는 고구려돌간혹무덤들에 대한 조사및 발굴은 이 일대에 고구려 오곡군의 소재지가 있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으며 아울러 송죽리와 그와 이웃하고있는 연탄읍의 자연지리적위치, 교통조건 등은 이곳이 오곡군의 소재지였을수도 있다는것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셋째로,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속에서 논의되어오던 고구려의 주요벽화무덤의 피장자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에 대하여 명백한 견해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는것이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안악3호무덤과 덕흥리벽화무덤의 피장자가 고구려사람이며 안악3호무덤은 고국원왕릉, 덕흥리벽화무덤은 고구려의 유주에서 큰 공을 세운 고구려귀족 진의 무덤이라는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안악3호무덤의 앞간에 그려져 있는 문지기장수우에 씌어있는 목서와 덕흥리벽화무덤의 묘지명에서 확인할수 없는 글자문제를 기본근거로 하여 이 무덤들에 묻힌 피장자들이 고구려사람이 아닌 중국계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견해가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 견해는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의 발굴로 하여 완전히 타파되었다고 할수 있다.

우선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발굴로 하여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문제를 해명할수 있게 되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안악3호무덤과 그 구조형식에서 강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이 두 무덤은 다같이 전망이 좋고 무덤의 위풍을 돌구는데 유리한 높은 언덕우에 자리잡고있다.

또한두 무덤은 다같이 무덤길, 앞간, 동서결간, 안간, 회랑, 보조통로 등

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무덤의 벽체축조에서도 문칸부분만은 작은 돌들을 여러 돌기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축조하고 동서결간 회랑부분은 모두 잘 다듬은 커다란 판돌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두 무덤의 무덤간에 있는 기둥에 설치된 주두, 소로, 첨차들 역시 모두 화강암을 기공하여 만든 실물의 것으로서 그 형태가 꼭 같다. 이러한 두 무덤의 공통성은 배성리3호무덤과 안악3호무덤사이의 깊은 친연관계를 보여주고있다.

두 무덤의 구조형식에서 특징적인것은 다른 고구려돌칸흙무덤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조통로가 설치되어있다는것이다. 즉 배성리3호무덤에는 북쪽 회랑의 동쪽끝부분에 밖으로 통하게 되어있는 보조통로가 있으며 안악3호무덤에는 북쪽회랑의 서쪽끝부분에 밖으로 통하게 되어있는 보조통로가 있다. 이 보조통로에는 고구려의 돌칸흙무덤에서 영구적인 봉쇄를 목적으로 안길막이에 리용한 점착체인 회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한자의 화강암판돌만 들어내면 무덤간안으로 들어갈수 있게 되어있다.

고구려의 다른 왕릉급의 무덤들에 없는 이러한 보조통로시설의 사명에 대한 의문은 당시의 역사기록들을 통하여 밝힐수 있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343년 2월에 당시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전연침략자들이 도굴해간 미천왕의 유해를 찾아온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이 기록과 왕릉급의 두 무덤에 축조된 보조통로를 함께 고찰해보면 당시 고국원왕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지역으로 되어있었고 경제, 군사적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평양일대에 미천왕의 무덤 즉 배성리3호무덤을 만든 후 여기에 언너라에서 찾아온 유해를 안치하였으며 이러한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무덤간에 보조통로를 설치하였다고 짐작할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습으로 하여 371년 남평양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을 보조통로가 설치된 안악3호무덤에 안치하였다고 볼수 있다.

결국 두 무덤의 구조형식에서의 강한 공통성은 당대의 역사기록과 함께

태성리3호무덤이 미천왕의 무덤이고 안악3호무덤이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증하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의 발굴은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하고있다.

이 두 무덤은 역시 그 구조형식과 벽화의 배치형식, 주제별내용에서 강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이 무덤들은 다같이 안길, 앞칸,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진 두칸짜리돌 칸혹무덤이며 벽체축조방법과 바닥과 벽에 회죽을 바르는 방법, 전정형식도 같다고 할수 있다. 또한 벽화배치형식에서도 앞칸에 문지기장수와 행차도, 수렵도들, 안칸에 장방생활도와 정사도를 그린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공통성은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의 축조년대가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과 같은 시기인 5세기 전반기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또한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의 피장자가 당시 고구려 오곡군의 군사행정장관이였다고 인정되고있는 사실은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의 피장자가 중국의 망명객이아니라 고구려사람이며 고구려에서 군사행정적으로 여러 관직을 맡아온 높은 급의 관리였다는것을 다시한번 입증해주고있다.

이상과 같이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은 그 자연지리적위치와 구조형식, 벽화의 주제내용들로 하여 고구려역사를 깊이있게 연구하는데 귀중한 고고학적자료로서 국보적가치가 큰 귀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초판1쇄 인쇄 2004년 11월 10일

초판1쇄 발행 2004년 11월 14일

지음 고구려연구재단

펴낸이 김정배

펴낸곳 고구려연구재단

등록 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층

전화 02-2118-1700

팩스 02-2118-1798

ISBN 89-91448-11-9-9390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고구려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